www.sri.re.kr

2026

세종시 바로알기

정책편

교육 보조자료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www.sri.re.kr

2026

세종시 바로알기

정책편

교육 보조자료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Contents

행정수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행정도시 기능 006
국가 중추기능 분산 및 행정기관 이전 019

문화수도 세종

한글 문화 정책과 도시브랜드 032
한글 문화 거점공간 및 콘텐츠 042

스마트도시 세종

스마트 환경 서비스 062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085

정원·생태도시 세종

중앙 녹지공간과 녹지체계 106
금강 수변 생태 활용 117

평생학습도시 세종

세종 평생학습도시 정책 추진체제 및 혁신 인프라 132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세종형 평생학습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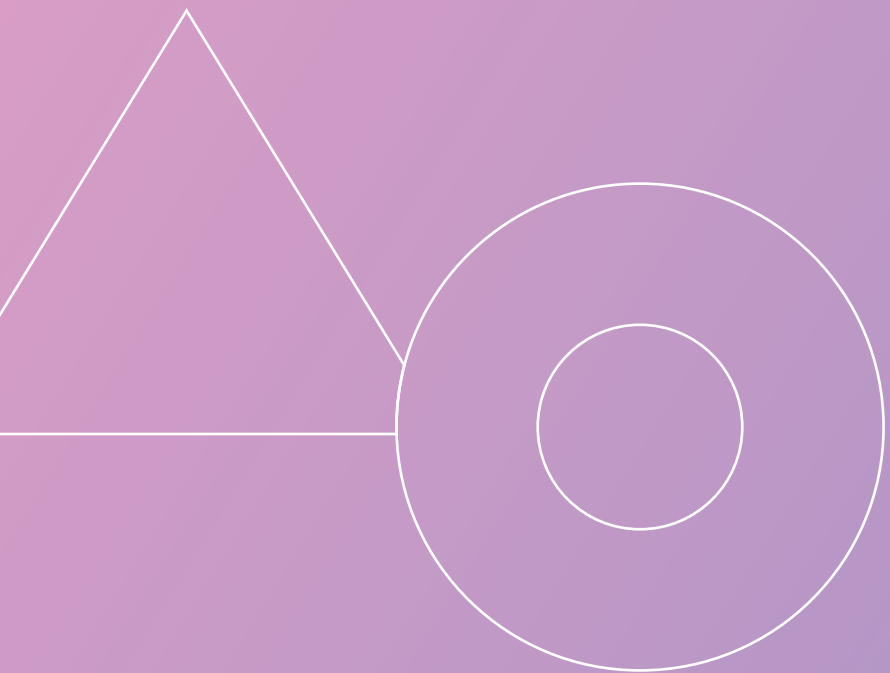
세종시 바로알기



세종시 바로 알기 | 정책편

교육 보조자료

01 PART



행정수도 세종

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행정도시 기능

1-2 국가 중추기능 분산 및 행정기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행정도시 기능

학습목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추진 배경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2. 행복도시 도시계획 특성과 공간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행정수도 기능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수도권 집중과 국가균형발전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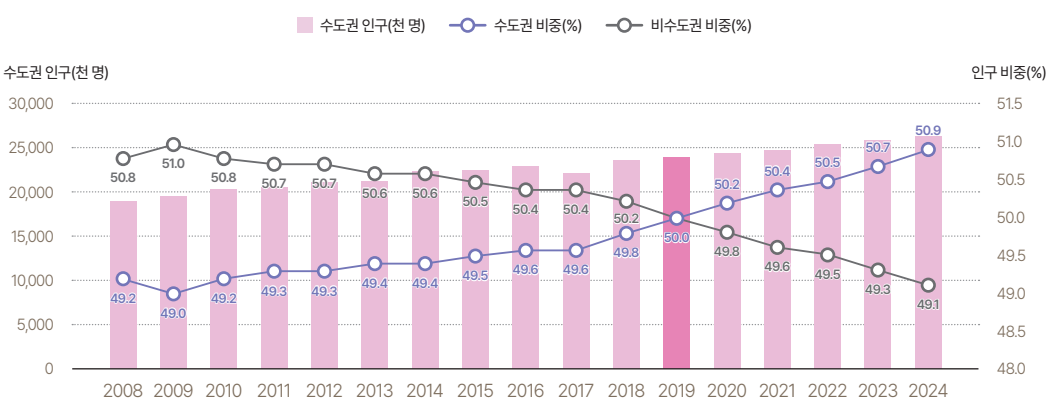
①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인구, 산업, 행정기능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 수도권 집중은 국가 성장에 이바지하였으나, 주택 가격 상승, 교통혼잡,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초래함.
-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 등이 심화함.

※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며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함.

②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수도권 - 비수도권 인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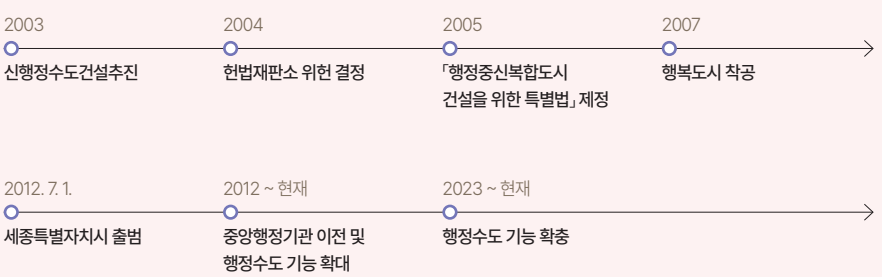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4). 주민등록 인구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행복도시 건설 추진

① 추진배경

-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로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함.
  -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행정기능을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정책 방향을 조정함.
  -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출범하여 도시 건설을 총괄함.
  -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도시로 추진하였으며, 행정 · 주거 · 문화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도시를 목표로 함.

행복도시 건설 주요 연혁



출범 당시 인구 : 약 12.3만 명

국회세종의사당 ·
대통령 제2집무실 · 국가상징구역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연도별 건설 현황
https://naacc.go.kr/WEB/contents/N1050500000.do?utm_source=chatgpt.com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검색일: 2026. 7. 11.)

② 행복도시 건설 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함.
  -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주거 · 교육 · 문화 등 도시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효율성을 높이면서 친환경 · 스마트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를 구현하여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행복도시 건설 목적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적. https://naacc.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검색일: 2026. 8. 1.)



2 추진 내용

가. 행복도시 개요

- 행복도시는 국가행정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목표로 세종특별자치시 남측 약 72.9㎢ 면적으로 조성하고 있음.

행복도시 규모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면적	464.84㎢	73.01㎢
비중	-	세종특별자치시 면적의 약 15.7%
계획인구	-	50만 명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

행복도시 사업 목적과 목표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개요. https://naacc.go.kr/WEB/contents/N1010100000.do (검색일: 2026. 8. 1.)

나. 행복도시 입지 특성

① 행복도시는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 전국 주요 도시와 접근성이 우수함.

- 대전 · 청주 · 오송 등 충청권 핵심 거점과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국가행정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입지임.

②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중부권 거점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을 뒷받침하는 공간적 기반을 갖춤.

세종특별자치시와 행복도시 위치도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
https://naacc.go.kr/WEB/contents/N1010100000.do (검색일 : 2026.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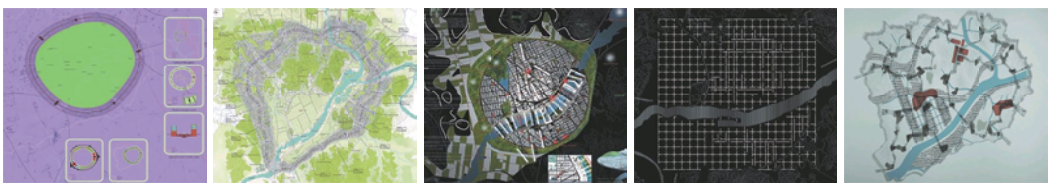
다. 도시 개념 국제공모

① 행복도시는 세계적인 미래형 계획도시 조성을 위해 2005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도시 개념 공모를 진행함.

② 세계 26개국에서 121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함.

- 당선작에서 제안한 도시공간구조와 계획 개념을 종합하여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함.

2005 국제 도시개념 공모 당선작 (5개 작품)



출처: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p.17.

라. 건설 추진체계

① 행복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업을 총괄함.

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개발과 기반 시설 조성을,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서비스와 도시 운영을 담당함.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

기관	주요 역할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건설 정책 총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도시계획 수립과 건설사업 총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사업 시행과 기반 시설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 운영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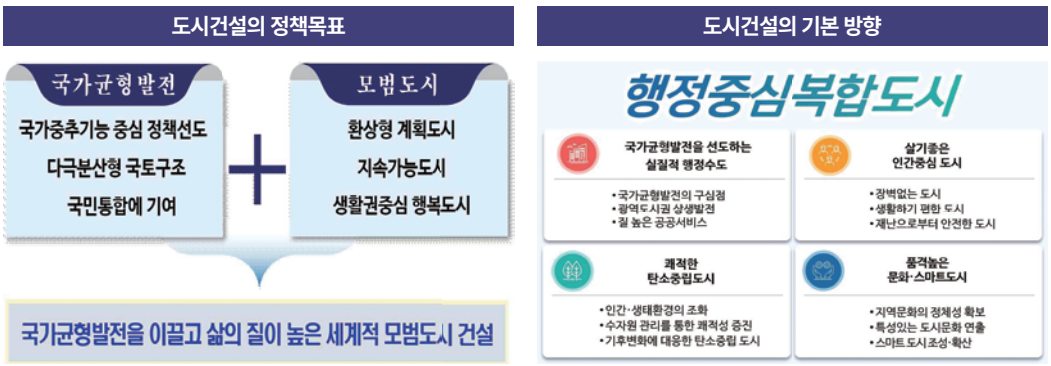
마. 행복도시 건설 비전과 기본 방향

①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건설하는 국가 정책도시로,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합도시를 지향함.

- 건설 기본계획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와 세계적인 모범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도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함.

② 행정 · 자족 · 문화 · 친환경 · 스마트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구현을 계획함.

도시건설의 목표와 방향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 p.47, 49.

바. 행복도시의 도시계획 특성

① 생활권 중심 도시[1)]

- 행복도시는 시민의 일상이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 생활권 중심 도시임.
-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상업시설 등을 생활권마다 균형 있게 배치하여 생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계획함.
-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권 내에서 생활 대부분이 가능한 도시 구조를 구현함.

② 사람 중심 교통체계

- 행복도시는 대중교통과 보행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기본 원칙으로 함.
- 간선급행버스체계(BRT[2)])를 대중교통 중심축으로 하고 보행과 자전거 비중을 높인 친환경 교통체계를 조성함.
- 생활권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체계를 구현함.

③ 녹지와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

- 행복도시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목표로 함.
- 도시 중심에 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을 배치하고 금강, 제천, 방축천을 연계한 녹지축을 조성함.
- 시민의 휴식과 여가, 생태환경 보전 기능을 갖춘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함.

행복도시 공간 구상

생활권 구분 구상



주요 기능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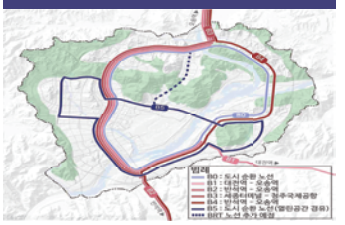
기초생활권 공간개념



주변도시와의 연계



BRT 중심 교통체계



생태 네트워크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 p.62, 63, 90, 95, 100, 103

1) 생활권이란?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족형 공간 단위를 의미함.
2) BRT란?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정시성을 확보한 대중교통체계를 의미함.

④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 행복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이뤄지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자 함.
-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개선함.
-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한 5-1생활권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등 미래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음.

⑤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 행복도시는 행정기능과 함께 교육, 연구, 문화, 상업, 첨단산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함.
- 공동캠퍼스, 국립박물관단지, 스마트국가시범도시 등 다양한 자족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행정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교육,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복합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행복도시의 계획 특성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적용·사례

가. 정부세종청사

① 정부세종청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정부 청사로 국가행정의 중심임.

② 중앙행정기관이 집적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행정수도의 기반을 형성함.

정부세종청사 전경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6.10.28.). 참고자료-행복도시 정부세종청사 개요 등.
https://naacc.go.kr/WEB/contents/N4050100000.do?id=61643&page=4&schM=view&viewCount=10&utm_source=chatgpt.com

나. 복합커뮤니티센터

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권별로 행정 · 문화 · 체육 · 복지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생활 SOC의 핵심 시설임.

②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해 생활권 중심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운영함.

다. BRT 중심 교통체계

① BRT는 정부세종청사와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행복도시 핵심 대중교통수단임.

- 중앙버스전용차로와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 체계를 구현함.

②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복합커뮤니티센터(나성동)



BRT



출처 : 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2022). 행복도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충북일보 게재.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41897 / 우) 세종도시교통공사 제공. BRT 차량. https://www.sctc.kr

라. 중앙 녹지공간

① 중앙 녹지공간은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을 잇는 행복도시 중심부 대표 녹색공간임.

② 시민의 휴식과 여가, 문화 활동은 물론 생태 · 환경 기능도 수행하는 핵심 공공공간임.

③ 도시 중심부 대규모 녹지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세종호수공원 전경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영상기록실. https://naacc.go.kr/WEB/contents/N1010600000.do?utm_source=chatgpt.com#;

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① 5-1생활권은 국가시범도시 지정 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등 미래도시 기술을 실증하고 있음.

②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미래도시 생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조감도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10. 23.). LH, 한국형 스마트시티 대표모델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 박차.
https://lh.or.kr/gallery.es?act=view&b_list=8&bid=0003&keyField=&list_no=9921&mid=a10502000000&nPage=136&orderby=&vlist_no_npage=218

바. 세종공동캠퍼스

① 세종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교육 ·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내 최초 공유형 대학 캠퍼스임.

- 대학 간 교육 · 연구 협력과 산학연 연계를 촉진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함.

② 공동으로 활용하는 교육환경을 통해 대학 간 협력과 지역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사. 국립박물관단지

① 국립박물관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 박물관을 집적한 복합 문화시설로, 문화 · 교육 · 연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국가 문화 거점으로 조성 중임.

②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등 국가 박물관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임.

③ 다양한 문화 · 전시 · 체험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행정수도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세종 공동캠퍼스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출처 : 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09.19.) 세종공동캠퍼스 문 열어… 7개 대학 입주한 '첫 공유형 캠퍼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call_from=naver_news&newsId=148934064&utm_source=chatgpt.com
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2. 5. 25.).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지역의 문화 수준 높인다.
https://naacc.go.kr/WEB/contents/N3050100000.do?schFld=0&schStr=%EA%B5%AD%EB%A6%BD%EB%B0%95%EB%AC%BC%EA%B4%80%EB%8B%A8%EC%A7%80&schM=view&page=3&ordBy=DESC&viewCount=10&id=77200&schBdcode=&schGroupCode=

4 시사점·정리

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표 사례

① 행복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국가정책 도시임.

②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자족 기능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 성장거점을 조성해 국가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나. 미래형 계획도시의 선도모델

① 생활권 중심 도시, BRT 중심 교통체계, 중앙 녹지공간, 스마트도시 등 미래 도시계획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함.

② 도시 기능과 생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한 대표적인 계획도시 사례로 꼽힘.

③ 국내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해외 계획도시 조성에도 참고할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함.

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 제시

① 친환경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 기술을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있음.

② 도시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미래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함.

③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속가능성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미래 도시정책의 방향을 보여줌.

라. 행정수도 기능 확대의 기반

①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가 중추 기능이 집적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으로 행정수도 기능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②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 공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③ 향후 국가 중추 기능 추가 집적과 도시 기능 고도화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위상과 역할이 더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행복도시의 핵심 특성

구분	주요 내용
도시 기능	행정 중심 복합도시
공간구조	6개 생활권 중심 도시
교통체계	BRT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녹지체계	중앙 녹지공간 (세종중앙공원 · 국립세종수목원 · 세종호수공원)
스마트도시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교육 · 문화	세종공동캠퍼스 · 국립박물관단지
행정수도 기능	국가 중추 기능 단계적 확충

생각해 보기

- 행복도시는 일반 신도시와 무엇이 다른가?
-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은 시민의 삶에 어떤 이익과 편의를 제공할까?
- 행복도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

국가 중추 기능 분산 및 행정기관 이전

학습목표

1. 국가 중추 기능 분산과 행정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2. 행정기관 이전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국가 중추 기능의 수도권 집중

①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입법 · 사법 기능, 주요 공공기관 등 국가 중추 기능은 오랫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됨.

- 정책 결정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과 국가 공간구조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② 특히 인구와 산업, 행정기능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성장 격차를 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됨.

- 국가 중추 기능을 단계적으로 분산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중추 기능

정부서울청사



국회의사당



출처 : 좌)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관리본부. (2019). 서울청사관리소. https://www.gbmo.go.kr/chungsa/main.do?utm_source=chatgpt.com
우) 문화체육관광부 e영상역사관. (1988). 국회의사당 전경. https://www.ehistory.go.kr/view/photo?mediaid=10867&mediasrcgbn=PT#

나.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전환

①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수도 이전 대안으로 중앙 행정기능 이전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함.

-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함.

② 행복도시는 중앙 행정기능을 수용할 국가정책 도시로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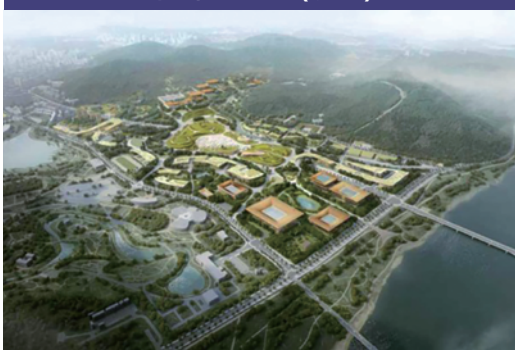
※ 국가상징구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국가 중추 기능을 구현하고자 조성하는 핵심 공간임.

국가상징구역

국가상징구역 예정지



마스터플랜 조감도(당선안)



출처 : 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25).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 착수 - https://naacc.go.kr/file/flexer_doc/20250828/jfile_20250828_198ef65e532830.hwp.files/Sections1.html?utm_source=chatgpt.com
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26). 국가상징구역 예정지 및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설명회 개최. https://naacc.go.kr/WEB/contents/N3050100000.do?id=79464&schBcid=naacc_normal19&schM=view&utm_source=chatgpt.com

다. 행정기관 이전의 필요성

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기능 분산

-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였음.
-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한 곳에 집적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② 행정도시 기반 구축과 기능 확충

-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집적하면서 세종시는 국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함.

2 추진 내용

가. 신행정수도 추진과 정책 전환(2003~2007)

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충청권 이전계획을 마련함.

② 신행정수도 추진 과정에서는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갈등이 이어짐.

③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은 중단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유지되면서 행정기능 이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

④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복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국가 중추 기능을 단계적으로 분산하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마련함.

- 이후 단계적인 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건설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행정수도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신행정수도 추진 과정의 사회적 갈등

수도 이전 반대 집회(서울)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 범국민대회(대전)



출처 : 좌) 황태훈. (2004. 6. 29.). 서울시민연합, 수도 이전 즉각 철회 촉구 궐기대회.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47500?sid=102
우) 특별취재팀 (2004.10.29.). "서울이 수도면 지방은 하수도냐".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7368&utm_source=chatgpt.com



초기 신행정수도 추진 과정

내용	사진
- 신행정수도 추진「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 통과 •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핵심 정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함.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3. 12. 29.)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중단되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함.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위헌 결정 선고 (2004. 10. 21.)
- 후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5.03) • 기본 ·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착수(2007. 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공식 (2007. 7. 20.)

출처 : (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03. 12. 29.).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 특별법도 가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55012907&utm_source=chatgpt.com

(가운데) 김광현. (2009. 10. 09.). [다시 쓰는 2004뉴스] <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41222/8141848/1?utm_source=chatgpt.com

(아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07. 07. 20.) 노 대통령 "청와대 · 국회도 행복도시로 와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기공식 축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28630&utm_source=chatgpt.com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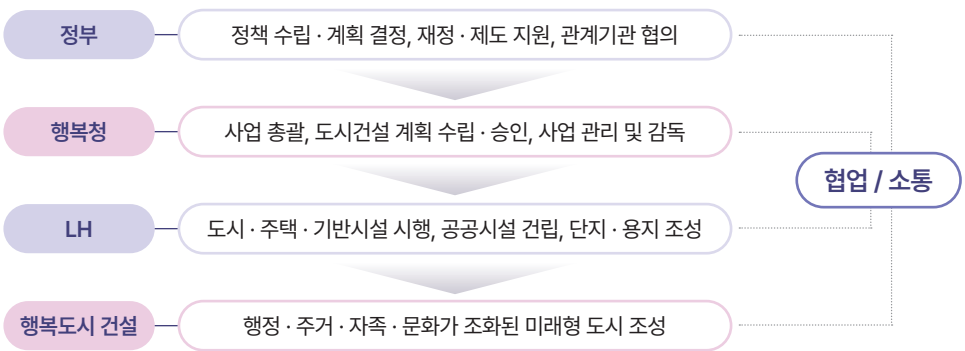
① (법적 기반 마련)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복도시를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사업으로 본격 추진함.

② (추진체계 구축) 행복도시건설청을 설치하고 정부 · 행복청 · LH가 역할을 분담하여 도시 조성, 기반 시설 구축, 행정기관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③ (도시 및 기반 시설 공급) 정부청사, 주거, 교육, 교통,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조성함.

④ (행복도시만의 차별성 '국가계획도시') 행정기능 이전과 도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계획도시 방식으로 안정적인 행정도시 기반을 구축함.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도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정기능 정착

①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 기능을 본격적으로 구현함.

중앙행정기관 이전 현황

구분	주요 이전 기관	주요 내용
1단계 (2012)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작
2단계 (2013)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등	주요 경제 · 사회부처 이전으로 행정기능 집적 확대
3단계 (2014)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등	당초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이전 마무리
추가 이전 (2019~현재)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이전과 중앙동 건립을 통한 행정기능 확충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백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②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집적하면서 행복도시가 대한민국 국가행정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행정 · 정책연구 기능을 연계한 국가행정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음.

③ 중앙행정 기능을 단계적으로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여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함.

④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 · 교육 · 문화 등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음.

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중추 기능 확충

① 중앙행정기관 이전 이후 행복도시는 행정부 중심의 행정도시를 넘어 국가 중추 기능을 집적한 행정수도로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음.

②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면서 행정부 중심 기능이 입법과 국정운영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음.

③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고 국제교류 기능을 확충해 국가대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국가적 위상을 강화함.

④ 행정부, 입법, 국정운영 기능을 단계적으로 집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에 어울리는 국가 중추 기능이 확충됨.

행정수도 기능 확충과 역할 변화

구분	현재 추진 내용	행정수도에서의 역할
행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가행정 기능 집적	국가행정의 중심축
입법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입법 · 행정 연계 기반
국정운영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	국정운영 거점 보완
국가 상징 기능	국가상징구역 조성 추진	국가대표 공공공간 조성



3 적용·사례

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정부세종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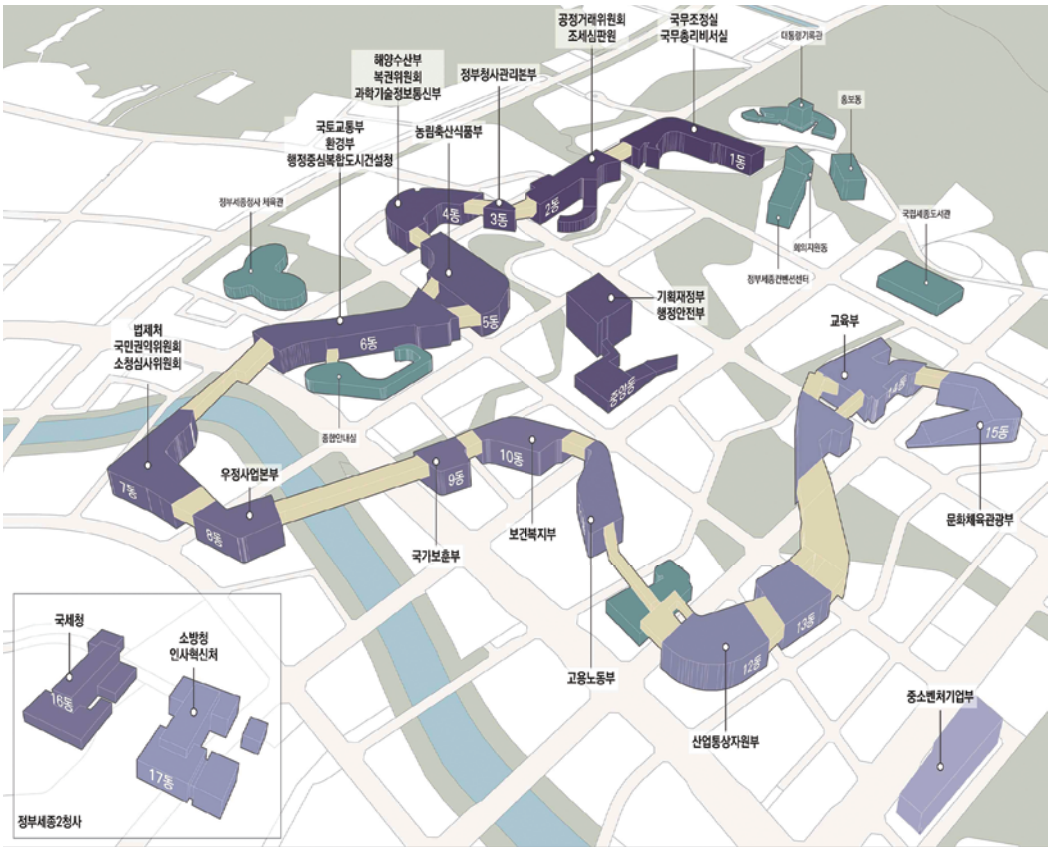
① 중앙행정기관 이전

-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국가행정 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함.
-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집적하면서 새로운 국가행정 중심축을 형성함.
- 현재도 일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청사 기능 확충이 이어지며 행정수도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② 정부세종청사의 역할

- 정부세종청사는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함.
- 행정기능을 지속해서 확충해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

정부세종청사 기관 배치 현황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 p.87

나. 국책연구기관 집적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

① 정책연구 기능 집적

- 경제, 국토, 조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하여 정책연구 기능을 집적함.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이 동일 권역에 자리 잡으면서 정책 수립과 연구 · 분석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국책연구기관 조감도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세종국책연구단지 3D 조감도. (검색일 2026. 08. 01.)
https://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6213&ss=1&utm_source=chatgpt.com

② 국가 정책클러스터 형성

- 행정과 연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국가 정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임.
- 연구 성과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품질과 정책 대응력을 높임.

다. 국가 중추 기능 확충

① 국가 중추 기능 확대

-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행정부 중심의 기능을 입법과 국정운영 기능으로 확장함.
- 행정부와 입법, 국정운영 기능을 집적하면서 행정수도 기능과 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음.

② 행정수도 위상 강화

-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이어 입법과 국정운영 기능을 더하면서 국가 의사결정 체계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음.
- 국가 중추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행복도시의 위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음.

라. 국가상징구역 조성

① 국가대표 공공공간 조성

-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을 연계하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수도의 정체성과 국가 상징성을 구현하는 대표 공공공간으로 계획하였음.

② 국제교류 및 도시 품격 제고

- 국제회의와 문화 · 교류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행정수도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임.
- 국가 상징성과 품격을 갖춘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4 시사점·정리

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중추 기능 분산에서 시작됨

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국가정책임.

②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공간구조를 다핵화하는 정책적 시도로써 의미가 있음.

나. 행복도시는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함

①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집적으로 행정과 정책연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국가행정 핵심 거점으로 발전함.

②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 조정, 연구지원 기능이 결합하며 행정수도 기반을 강화함.

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 확충은 현재도 진행 중임

①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으로 국가 중추 기능이 지속해서 확장됨.

② 행정부 중심에서 입법과 국정운영까지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충하면서 행복도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지속해서 성장 중임.



생각해 보기

-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공간구조 변화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으로 어떤 국가 중추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까?
  : 입법 · 국정운영 · 국제교류 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2.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s://www.aurum.re.kr. (검색일 : 2026. 8. 1.)
3.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s://www.archives.go.kr (검색일 : 2026. 8. 1.)
4. 권영섭 외. (2020).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5. 관계부처합동. (2003).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계획.
6. 대한민국 국회.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7.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 2026. 7. 9.)
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0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2004헌마554 등).
9.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세종청사 소개 및 입주기관 현황. https://mois.go.kr (검색일 : 2026. 8. 1.)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naacc.go.kr (검색일 : 2026. 7. 9.)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2025).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naacc.go.kr.
14.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Memo

02 PART

문화수도 세종

2-1 한글 문화 정책과 도시브랜드

2-2 한글 문화 거점공간 및 콘텐츠

한글 문화 정책과 도시브랜드

학습목표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를 도시브랜드로 선택한 배경과 추진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실현할 방법을 살펴보고,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한글문화도시' 추진 배경과 목적

① 문화도시란 무엇인가?

- 정책적 관점에서 '문화도시'라는 용어는 2000년 1월 28일 개정한 「도시계획법」 제5조 제1항에서 문화도시를 시범도시 유형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함.
- 이후 지역 거점 문화도시 조성 사업, 2012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구 · 논문 등을 통해 문화도시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됨.
- 2014년 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문화도시를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정의함(지방시대위원회, 2025. 6. 30.).
- 2000년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가치와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거점별로 특성 있는 다양한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함.
  - 2004년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시작으로 부산 영상문화도시,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 · 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등을 추진함.
- 이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2014년 남원과 부여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81개 (도시형 36개소, 마을형 45개소)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화함.
- 법규 마련으로 추진 동력을 얻은 문화도시 사업은 2018년 5월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함.
  - 5년간 법정문화도시에 국비를 지원하여 도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전민정, 2025).
- 5회차에 걸쳐 선정하고 추진하던 법정문화도시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문화도시 2.0 전략으로 한 단계 진화함.
  -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권역별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3년간 국비를 최대 100억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화함.
- 이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총 13개 지자체를 선정함.
  - 세종시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한글문화도시 세종'으로서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함.

② 한글문화도시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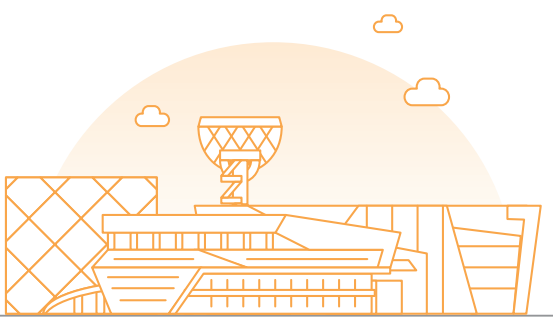
-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조성한 신생 도시임.
  - 충청남도 연기군, 청원군 부용면 일부, 공주시 장기면 · 의당면 · 반포면 등 지역을 통합하여 2012년 7월 1일 특별자치시로 출범함.
- 도시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세종대왕의 묘호에서 유래한 '세종'으로 도시 명칭을 확정함.
-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세종대왕이라는 역사적 상징을 도시의 핵심 서사로 품게 되었으며,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인 '한글'을 도시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마련됨.
- 이에 따라 '세종'과 '한글'을 도시 대표 브랜드이자 문화 자산으로 육성하여, 신생 도시의 한계였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함. 더불어 시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행정적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함(이재민, 2025).
- 한편, 세종시는 국 · 공립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문화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시민들의 문화적인 열망을 충족할 문화 기반을 조성이 요구됨.
- 또한 읍 · 면 · 동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이에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시설 조성과 운영, 예술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문화산업 기반과 문화생태계 구축,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등 종합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해결 방안으로 제기됨(이재민, 2025).
-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정책 기반을 다짐.
- 2014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으로 한글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관련 조례에도 한글 관련 정책을 포함하였음.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관광지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 구역에서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함(제32조).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역축제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한글 점자 주간'을 지정하여 시각장애인의 한글 접근성과 인식 확산에도 노력함(이재민, 2025).
- 행정조직도 정책 추진에 맞춰 한글 진흥 담당을 신설함.
  - 『한글사랑 5개년 추진계획』 연구에서 핵심 가치와 비전, 목표를 담은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함(이재민, 2025).
- 2025년 3월 한글문화도시과를 신설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함.
  -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안에 '한글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여 한글문화도시 사업을 실행함(이재민, 2025).

한글문화도시 주요 추진 과정

2020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 세종형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발족	
2023	·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전담팀 구성 · 충청문화동맹 결성 (세종, 청주, 공주, 천안, 대전) ·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조성계획 승인	
2024	·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전담팀 구성	· 대표 프로그램 시범 운영
2025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 · 한글문화도시센터 개소 (4. 1.)	· 세종시 한글문화과 신설 (3. 2.) · 8개 과제, 21개 사업 본격 추진

③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인 이유

- '세종'이라는 도시명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세종대왕의 묘호를 차용하여 그의 통치 이념과 철학을 행정도시 정체성에 담는 의미를 지님(한상헌, 2025).
- 도시명을 '세종'으로 확정하면서 세종대왕과 그의 업적을 도시의 역사와 미래 비전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
  - 지명은 단순히 지역 구분을 넘어 지역 역사와 문화, 생태, 생활방식, 공동체 가치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상징이며, 지역사회의 이념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이재민, 2025).
- 한글은 세종대왕이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창제한 문자로,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사고의 기반임.
- 조선시대에 언문이나 반절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함.
  -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글', '한글'로 불리며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문화유산이자 식민 통치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됨.
- 일제가 한글을 말살하려 했지만, 수많은 선각자의 노력과 희생으로 계승됨(로버트 파우저. 2025).
  - 광복 이후에는 공식 국가 문자로 자리매김하여 교육과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됨.
- 오늘날 한글은 한류와 함께 세계인이 배우고 활용하는 문화 콘텐츠이자 세계인이 누리는 문화 코드로 재생산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세종대왕과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도시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도시 건설 단계부터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글사랑'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함(이창민 외. 2025).
- 이를 통해 세종대왕의 철학과 한글 창제 정신을 세종시가 '글로벌 행정도시'로 성장하는 도시 비전으로 계승함.
- 세종시가 지향하는 한글문화도시는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세종의 애민 · 자주 · 실용 · 창조 정신을 계승하여, 한글을 시민의 일상에서 새롭게 창조하고 활용하는 문화 자산으로 키워가는 데 목적이 있음.
- 신생 도시가 겪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부족, 시민 간 공감대 부족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한글문화도시라는 문화적 정체성과 시민 자긍심 형성으로 해결하고자 함.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활용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미래 문자로서 한글은 문화와 교육을 넘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디자인, 예술,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문화 자산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음.
- 따라서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정책은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을 통해 새로운 문화도시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2 추진 내용

가. 한글문화도시 추진 목적 및 방법

① 비전과 목표



출처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 BI.
https://www.sjcf.or.kr/hangeul/www/content.do?key=2504150008 (검색일 : 2026. 8. 1.)

- 비전 :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 세종대왕의 이름을 부여받은 도시로서 한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한글 창제 정신을 통해 지역 내 연대, 지역 간 연대와 더불어 세계를 잇는 역할 수행
- 목표 : 한글문화 공동체 형성 / 도시 정체성 확립 / 한글문화 세계화

성과 목표

종합 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619억 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89.9점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문화적 성과	문화 향유자 164만 명	문화 공간 834개소	문화 인력 참여자 2,734명
경제적 성과	문화산업 종사자 8,600명	고용 창출 240명	관광 지출액 4,883억 원
사회적 성과	생활 인구 39만 명	정조 만족도 80점	여가 활동 만족도 29%
특성화 지표	· 한글문화 상징거리 한글 간판 비율 – 한글 간판 개선 비율 70% · 한글문화 상징공간(한글 특화 놀이, 교육 공간)에 대한 시민 만족도 80점 · 한글 특화 콘텐츠 상품화 10건 · 한글문화 관광객수 40만 명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202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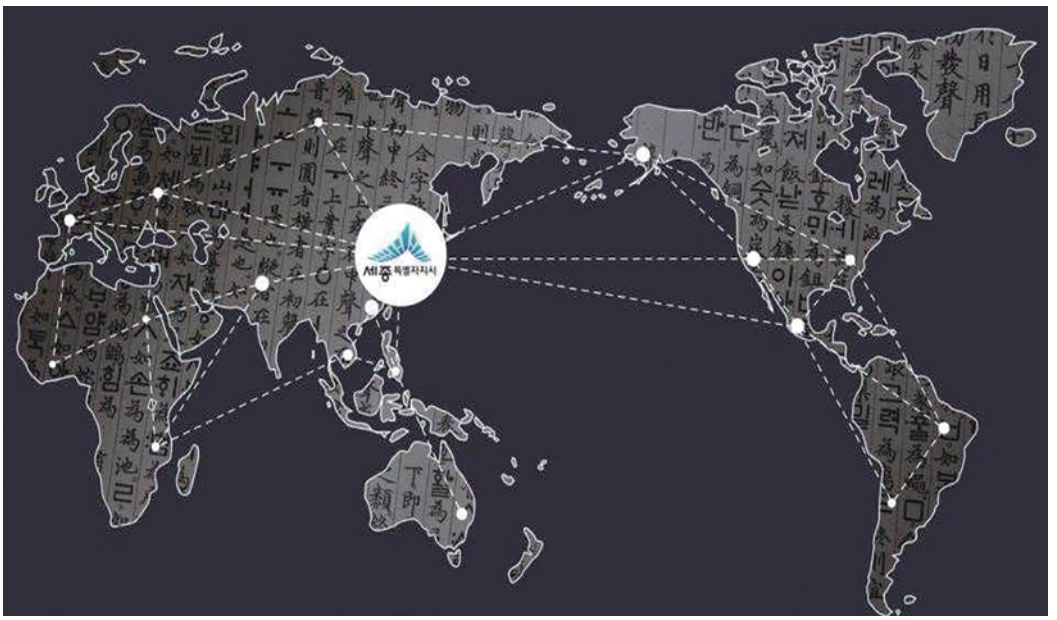
② 사업 범위

한글문화도시 사업 범위

범위	내용
시간적 범위 문화도시 사업 기간과 그 후의 미래	·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기간 (2025~2027) ·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담보 (2028~)
공간적 범위 충청⇔세종⇔세계	· 세종시 읍면동 곳곳으로부터 충청권을 넘어 세계로 문화 확산
내용적 범위 세종시 문화정체성 한글을 바탕으로 이음 · 채움 · 가꿈의 가치 실현	· 가장 창의적인 K-콘텐츠인 한글을 특화산업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추진 · 한글 창제의 애민정신을 통해 지역 내 연대, 지역 간 연대를 넘어 세계를 잇는 역할 수행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202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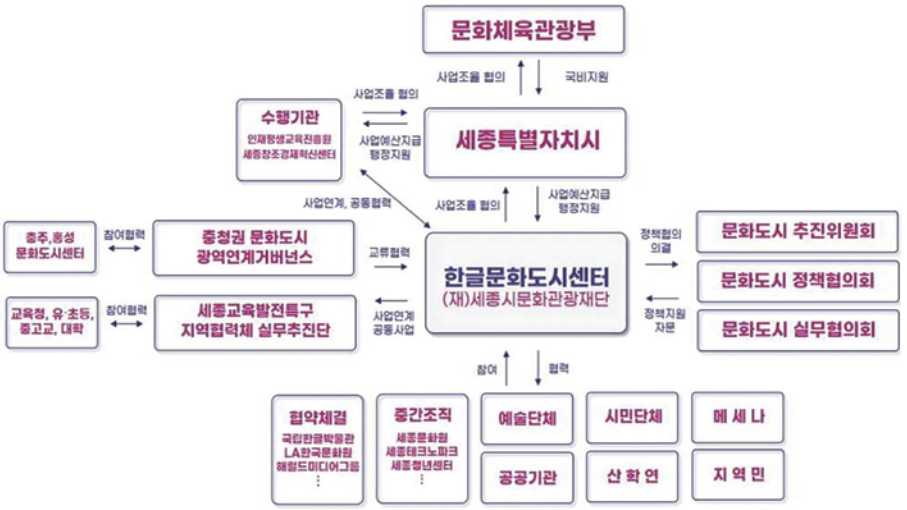
한글문화도시 사업 범위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202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

③ 추진체계

한글문화도시 추진체계도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202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

④ 주요 과제

-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사업의 비전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임.
  - 핵심 가치로는 한글이 가진 '자주 · 애민 · 창조 · 실용'의 가치에서 기인한 '이음 · 채움 · 가꿈'으로 선정함.
- '이음'의 가치는 한글로 세상을 잇고, 한글 사랑을 연대하며, 이를 통해 한글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목표를 설정함.
  - 한글국제비엔날레, 한글문화 특별기획전, 한글 진흥 국제문화교류, 한글 · 세종대왕 연계 관광 프로그램 등 한글을 매개로 국내외 다양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채움'의 가치는 세종시를 한글문화 콘텐츠로 채움으로써 한글문화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한글을 도시 정체성으로 정립하는 목표를 설정함.
  - 세종시라는 도시를 캔버스로 활용하고, 도시를 한글 콘텐츠로 채우고자 한글 문화상품과 콘텐츠 개발,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한글날 기념행사, 한글예술인 마을 사업 등을 추진함.
- '가꿈'의 가치는 한글로 도시를 가꾸고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한다는 의미임.
  - 한글사랑 여민락 아카데미, 찾아가는 한글문화 향유 활동 지원, 찾아가는 세종 한글 컬처로드, 한글상상 문화거리, 한글문화 상설전시관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작은 단위의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문화 행사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종시 곳곳에서 한글문화가 꽃피도록 사업을 구성함.

한글문화도시 주요 사업

핵심 가치	주요 과제
이음 한글 사랑의 연대 다양한 문화 주체가 연대하는 한글 예술의 장	**<앵커 사업 : 온 세상에 한글>** 한글비엔날레와 부대행사들을 통해 다양한 시민 문화 주체들, 한글을 사랑하는 도시들과의 연대를 실현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 문화도시 지원센터 본부와 지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문화도시 정책협의회 등 시민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
	한글비엔날레 / 한글문화특별기획전 / 한글진흥 국제교류 / 한글시민예술가 양성 /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 한글 · 세종대왕 연계 관광 프로그램
채움 한글문화 산업의 요람 문화 · 예술 · 교육 · 음식 등 생산과 소비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유도	**<한글문화 콘텐츠 집대성>** 한글을 소재로 산업을 일구는 기업 등이 산업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
	<한글 예술인 마을 조성> 구도심 재생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한글문화 콘텐츠가 창작 · 소비되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거점을 마련
	<봄과 가을에 꽃피우는 한글 축제의 향연>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과 한글날(10월 9일)마다 매년 풍성해지는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글콘텐츠 개발(한글상점 개발 및 한글문화상품 개발 지원) / 한글날 기념행사 및 세종한글축제 콘텐츠 개발 / 세종대왕나신날 행사 / 한글예술인마을 조성
가꿈 읍면동 마을과의 동행 신 · 구도심 마을 구석까지 문화를 직접 확산하여 생활권 중심의 문화행정 추구	**<읍면동 곳곳의 문화 접근성 향상>**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 공연, 예술, 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내 집 앞 한글문화 생활권 구축
	<문화특구(문체부)-교육발전특구(교육부) 연계 강화> 한글문화도시 세종과 교육발전특구 세종은 문해교육이라는 접점으로 수렴, 기초 문해부터 디지털 문해에 이르기까지 문화 교육을 연계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한글사랑 마을> 한글사랑거리(한솔동), 솔뜩한글쉼터(고운동), 한글빛태극정원(종촌동) 등 읍면동과 주민자치회가 기획부터 조성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
	한글사랑 여민락 아카데미 / 찾아가는 한글문화 향유활동 지원 / 찾아가는 세종 한글 컬처로드 / 한글 시민 상상 문화거리 / 한글문화 상설전시관 운영 /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 /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 한글사랑거리 조성 / 한글놀이터 조성 / 문해력 강화

출처 : 한글문화도시센터. (2025. 8. 4.). 한글문화도시센터 주요 업무 계획. 세종시문화관광재단.

⑤ 기대효과

가) 문화적 효과 및 가능성

- 한글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세종대왕의 정신이 깃든 도시 정체성을 구현함.
- 시민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누리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함.

나) 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 문화도시 사업으로 지방 도시 소멸, 지역 간 문화 격차 등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협력과 상생을 도모함.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 화합과 도시 생활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다) 경제적 효과 및 가능성

-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시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함.
-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개선해 문화 예술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함.
-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기업의 투자와 기부 등 선순환적 환류 체계 구축으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3 적용·사례

가. 도시브랜드로써 한글문화도시

① 도시의 시각 요소로서 도시브랜드

- 도시브랜드는 도시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산업 등 고유한 자산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하여 일관된 이미지로 전달하는 전략임.
-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공간, 정책으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종합적인 도시 커뮤니케이션 체계임.
- 세종시는 '세종'이라는 도시명에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음.
- 세종시는 한글 사랑거리, 한글 조형물, 한글 공공디자인, 한글을 형상화한 건축물과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전반에 한글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음.
  -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한글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접목함으로써 일상에서 시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한글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임.
-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구현하고자 했던 자주 · 애민 · 창조 · 실용의 철학을 도시 디자인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 공공디자인, 건축, 안내 체계, 도시경관, 공공예술,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 창제 원리인 질서, 균형, 과학성, 소통의 원리를 적용하여 '한글의 철학과 정신으로 디자인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따라서 한글은 세종시 도시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각 언어이자,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형성하는 핵심 브랜드이자 자산임.

② 시민 정체성으로써 도시브랜드

- 도시브랜드는 도시를 외부에 알리는 홍보 수단이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정체성임.
- 신생 도시인 세종시에서 '세종대왕'과 '한글'은 전국에서 모여든 도시 구성원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가장 상징적인 문화 자산이자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
-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의 가치가 시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릴 때 도시브랜드가 비로소 시민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따라서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시민 참여를 핵심 가치로 설정함.
  - 시민 예술가와 시민 도슨트 양성, 한글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문화 소비자를 넘어 기획하고 창조하는 문화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함.
  - 시민이 한글을 자기 문화로 인식하는 가운데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하며 지역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때 한글은 시민의 정체성이자 세종시를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로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음.

③ 한글문화산업 생태계로써 도시브랜드

- 오늘날 도시브랜드는 문화적 상징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으로 꼽힘.
- 도시의 문화 자산이 콘텐츠 산업과 창업, 관광, 디자인, 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때 도시브랜드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
- 세종시는 한글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교육, 디자인, 출판, 디지털 콘텐츠, 캐릭터, 패션, 공예, 게임, 인공지능(AI), 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세종시가 추진한 한글 문화상품과 콘텐츠 개발, 한글상점 브랜드 개발, 한글상품박람회, 한글국제비엔날레 등은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었음.
- 앞으로 창작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글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도시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4 시사점·정리

가. 세종시의 한글문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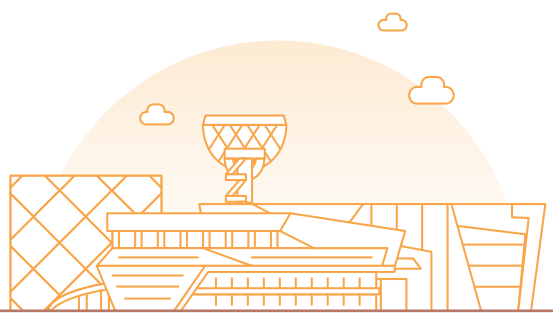
- 세종시가 추진하는 한글문화도시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도시 전략임.
- 한글은 세종시 대표 문화 자산이며,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임.
- 한글은 창제 원리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받는 문화유산이자 글자 자체의 조형미가 예술적 가치가 있음.
- 따라서 한글은 문학, 디자인, 공예는 물론 공공디자인과 건축,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

나. 세계 속의 한글문화 가치

-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한글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한글은 디자인, 예술, 문화와 결합한 문화 자산으로서, 세계인이 배우고 누리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에서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라는 차별화된 브랜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 한글국제비엔날레, 국제교류 사업, 외국인 대상 한글 프로그램, 한글 문화상품 개발 등은 한글을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 예술 콘텐츠로 확장함.

다.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 과제

- 역사와 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생 도시가 고유한 상징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문화 행사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산업생태계, 제도적 기반에 의해 좌우됨.
  - 첫째, 한글문화도시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책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둘째,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지속해서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함.
  - 셋째, 한글문화산업과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문화가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여 한글에 기반을 둔 콘텐츠, 교육, 디자인, 관광 등 미래 산업과의 융합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정책은 한글을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킨 최초의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앞으로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 세계적 확장성을 키우면, 한글문화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음.



생각해 보기

- 세종시가 다양한 문화 자산 가운데 '한글'을 도시브랜드의 핵심 자산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 신생 도시인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한 지역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 한글문화도시가 더 발전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시민, 행정,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문화자원을 도시브랜드로 활용하는지 살펴보자.

한글 문화 거점공간 및 콘텐츠

학습목표

1.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통해 조성한 문화공간과 문화 콘텐츠를 살펴보고 한글문화도시 전략과 성과를 말할 수 있다.
2. '한글문화도시 세종'이 남긴 문화유산과 미래 남겨야 할 문화유산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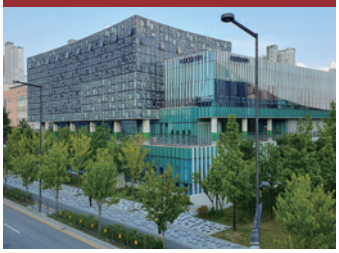
가.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점 공간

-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로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였음.
- 이렇게 창출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발현하려면 시민들이 직접 감상하거나 체험하는 경험 공간이 필요함.
- 시민들이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 공간으로 전시관, 공연장, 강당 같은 전통적인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광장, 거리 등 열린 공공공간을 비롯해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을 재생한 복합문화공간 등이 있음.
- 세종시는 이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한글을 주제로 한 전시, 체험, 공연, 축제 등 공간형 콘텐츠를 운영하고, 대규모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한글문화도시를 피부로 느끼고 공유하게 하였음.
- 세종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청 등 건물 안팎에 한글을 시각적으로 입혀 도심에서 한글 이미지를 구현하였음.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세종의 'ㅅ'과 'ㅈ'을 건물 형태로 구현하였음.
- 보람동에 있는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외벽에 한글 자음을 패턴화하여 독특한 한글 건축물을 구현하였음.
- 세종시청 야외주차장에는 한글을 적용한 보도블록과 벤치를 적용하였음.
- 금강을 가로지르는 세종시청 부근 '이응다리'는 한글 자음 'ㅇ'을 형상화한 원형 구조를 갖추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해인 1,443년을 상징하는 1,443m의 길이로 축조되었음.
- 마을 전체를 한글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사례로, 한솔동에 훈민길, 정음길을 만들어 한글 이야기를 담은 '한글사랑거리'가 있음.
  - 한글사랑거리 조형물, 공공 시설물, 거리 공공 가구 등에 한글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한글을 형상화하고, 다양한 한글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한글사랑거리로 특화하였음.
- 세종시청 4층에는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를 조성하였음.
  - 2021년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종시는 세종과 한글을 주제로 한 책문화센터를 조성하고, 한글 자료 전시 공간, 한글문화 향유 공간, 출판 문화 체험 공간을 갖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이재민, 2025).

반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보람동광역복지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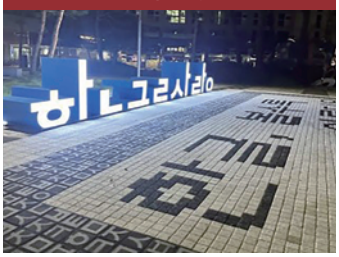
이응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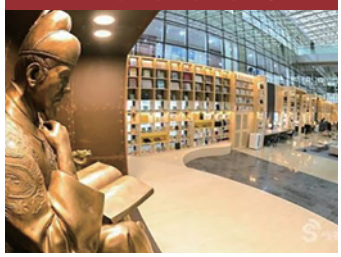
세종시청 보도블록



한솔동 조형물



한글사랑세종책문화센터



출처 : (상좌) 행복청 블로그. 반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https://blog.naver.com/macc2030/223818967232 (검색일 : 2026. 8. 2.)
(상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보람동광역복지지원센터. https://www.sjfmc.or.kr/kor/sub04_17_04.do (검색일 : 2026. 8. 2.)
(상우)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이응다리. https://www.sejong.go.kr/prog/tursmCn/tour/sub05_02_01/view.do?cntno=27 (검색일 : 2026. 8. 2.)
(하좌) 세종의소리. 세종시청 보도블록. 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16 (검색일 : 2026. 8. 2.)
(하중) 세종특별자치시청 제공. 한솔동 조형물
(하우) 세종특별자치시청 제공. 한글사랑세종책문화센터

2 추진 내용

가. 문화상품 개발 지원 기능을 품은 복합문화공간 '한글상점'

- 한글상점은 한글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상품과 콘텐츠 개발,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임.
- 전시 · 판매 · 체험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한글문화상품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창작자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산업 거점으로서 기능함.
- 한글상점은 나성동 상업지역에 있는 공실 상가를 임대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였음.
- 이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문화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이곳에서는 한글문화상품을 편집숍 형태로 전시 · 유통 · 판매하고 새로운 한글문화 상품과 콘텐츠를 직접 기획 · 개발함.
- 한글 관련 세미나와 아카데미, 체험 프로그램,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인, 디자이너, 기업,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한글을 매개로 창작과 산업, 교육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한글 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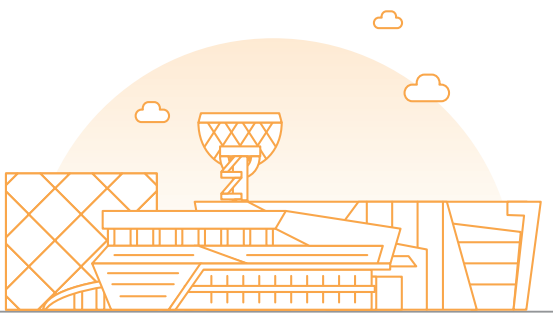
개점일 | 2025년 6월 4일 **위치** | 세종시 어울누리로 67 나릿재마을 2단지 상가 **면적** | 228㎡

사업 내용 | ◎ 상가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상품 유통 · 판매 및 공연 · 전시 · 교육 등 복합 문화예술 거점 공간 마련
◎ 민간기업 및 창작자의 한글 콘텐츠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 입찰 공모를 통해 지역 청년기업을 선정하여 운영
◎ 한글문화 상품 판매 150종, 개발 10건, 판매액 32백만 원 (2025년 기준)
◎ 프로그램 총 40회 운영 (공연 및 강연 10회, 교육 프로그램 30회)
◎ 방문객 현황 : 연 10,000명(25년 기준)
◎ 콘텐츠 참여자 수: 연 8,870명(25년 기준)

기대효과 및 성과 | ◎ 국내 유일무이한 한글문화상품 판매점 및 복합문화공간 창출
◎ 한글 상품 및 콘텐츠 발굴 · 개발을 통한 다양한 한글 산업생태계 조성
◎ 사업 협력자로서 청년기업이 참여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한글문화 상품 및 콘텐츠 대표 브랜드 창출

나. 한글문화예술을 확산하기 위한 BRT 작은미술관과 박연문화관 전시실

- 미술관이 없는 세종시에는 지역 문화예술인 작품을 소개하고 대내외적으로 교류할 문화 거점이 부족했음.
- 이를 극복하고자 한글문화도시 문화교류와 한글예술인 양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해 BRT 작은미술관과 박연전시관 전시실을 조성하였음.
- 다양한 기획전시와 문화예술인 대관 전시를 열어 세종시 문화, 예술, 한글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음.



BRT 작은미술관

BRT 작은미술관은 시설관리 공간이 관리하는 환승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함

개관일 | 2022년 8월 10일 **위치** | 세종시 나성남로7-7 BRT 버스환승장 **면적** | 266㎡

운영 방식 | 한글문화도시 자체 기획전시 및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대상 대관 전시 운영 (연간 20회 전시회 개최)

관람객 현황 | 연간 16,803명 / 참여 작가 수 : 118명

박연문화관 전시실

박연문화관 전시실은 세종종합청사 단지 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기획전과 대관 전시를 개최하여 일 년 내내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함

개관일 | 2021년 3월 28일 **위치** | 세종시 갈매로 387 박연문화관 1층 **면적** | 200㎡

운영 방식 | 한글문화도시 자체 기획전시와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대상 대관 전시 (연간 14회 전시회 개최)

관람객 현황 | 연간 10,742명 / 참여 작가 수: 86명

기대효과 및 성과 |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회 제공 및 전시 향유 확대 / 지역 예술인 대관 전시 및 한글 특화 전시 기획

다. 어린이 한글 교육 · 놀이를 위한 한글놀이터 세종관

- 한글놀이터 세종관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도록 조성한 한글 특화 체험 공간임.
- 어린이 문화 · 놀이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치원 원도심에 조성하여 지역 간 문화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를 위한 문화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음.
- 한글놀이터 세종관은 국립한글박물관이 개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한글놀이터' 콘텐츠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로,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형 한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와 체험 활동을 통해 한글의 원리와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창의력과 언어 감각을 함께 키울 수 있음.

한글놀이터

개관일 | 2025년 12월 11일 **위치** |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 세종시문화예술회관 내

면적 | 543.44㎡ (전시실 : 318㎡, 로비 및 부대시설 : 225.44㎡)

시설 내용 | 영상 · 실감형 콘텐츠 포함하여 총 12개 체험시설

사업 내용 | ◎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한글을 즐겁게 배우는 참여형 전시
◎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제, 회당 50분 운영하여 하루 7회 운영

기대효과 및 성과 | ◎ 한글을 주제로 체험형 · 실감형 콘텐츠 공간을 마련하여 구도심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형식의 한글 콘텐츠 소개
◎ 세종의 지역성을 반영한 한글 교육콘텐츠 개발
◎ 어린이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 어린이 친화도시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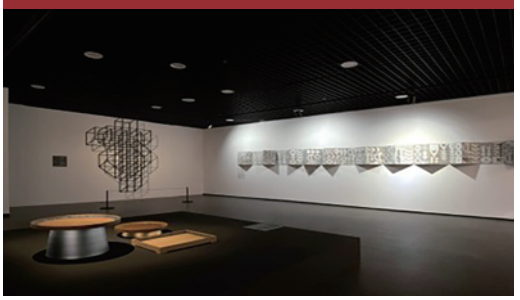
한글상점



BRT작은미술관



박연문화관 전시실



한글놀이터



출처 : (상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한글상점. https://www.sjcf.or.kr/hangeul/www/content.do?key=2504150018 (검색일 : 2026. 8. 1.)
(상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BRT작은미술관. https://www.sjcf.or.kr/hangeul/www/content.do?key=2504150016 (검색일 : 2026. 8. 1.)
(하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박연문화관 전시실. https://www.sjcf.or.kr/hangeul/www/content.do?key=2504150017 (검색일 : 2026. 8. 1.)
(하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한글놀이터. https://www.sjcf.or.kr/hangeul/www/content.do?key=2504150019 (검색일 : 2026. 8. 1.)

라. 비엔날레 전시관

- 세종시는 한글비엔날레를 통해 도시 유휴공간과 기존 시설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재생하여 활용함.
- 격년제로 개최하는 비엔날레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와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음.
- 조치원 원도심에 있는 옛 산일제사는 산업유산의 역사성과 지역의 서사를 보존하면서 전시와 문화 행사가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북세종상생문화지원센터와 함께 원도심 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신도심에는 세종중앙공원 관리동을 리모델링하여 비엔날레 전시관을 조성함.
- 비엔날레 전시 공간 조성과 활용은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복지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

비엔날레 전시관

구도심 서사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산일제사 / 북세종상생문화지원센터

위치 |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60-1 **건축면적** | 220㎡ / 1,496.79㎡ (지상 3개 층)

신도심 문화예술을 위한 전시관 세종중앙공원 관리동(비엔날레 전시관)

위치 | 세종중앙공원 관리동 (개보수공사) **건축면적** | 883㎡

기대효과 및 성과 | ◎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예술 복지 혜택 부여
◎ 도시브랜드 전략으로써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략적 핵심 시설 확충

북세종상생지원센터



산일제사



비엔날레전시관



출처 : (우) 세종특별자치시. (2026). 비엔날레전시관 개보수공사 기획안. 세종특별자치시청.

3 적용·사례

가.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콘텐츠 창출

① 한글국제비엔날레

- 한글문화도시 대표 사업인 한글국제비엔날레 개발사업은 국·공립 미술관이 부족한 도시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전시 예술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함.
- 한글국제비엔날레는 한글을 주제로 국내외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글문화도시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됨.
- 도시의 공공공간과 유휴시설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이 일상과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을 조성함.
- 격년제로 개최하는 비엔날레를 통해 전시 작품과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 자산을 확충하고, 이를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2027년에 개최할 제1회 한글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2025년 프레(pre)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전시 콘텐츠를 발굴하였음.
- 행사 운영 경험을 쌓고 시민과 예술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한글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를 마침.

한극 국제 비엔날레

행사명 |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Pre-Biennale) **장소** | 세종시 조치원 1927, 행사에 맞춰 개최 장소 결정

기간 | 2025년 9월 1일 ~10월 12일 (42일간), 2년마다 개최

전시 내용 | ◎ 한글 창제 원리·가치 등을 담은 예술 작품 전시
◎ 국내외 아티스트 39명, 68여 점 작품 전시, 지역 작가 작품 소개
◎ 국제포럼으로 한글 비엔날레 담론 형성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관람객 수 : 54,000명 / 문화 전문가 100여 명 양성

기대효과 및 성과 | ◎ 도시의 공간과 건축물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한글문화 유산 확보
◎ 예술인의 창작 욕구 충족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한글의 원리·철학·가치 재조명하여 한글의 세계화와 해외 협력체계 구축

② 세종대왕 나신 날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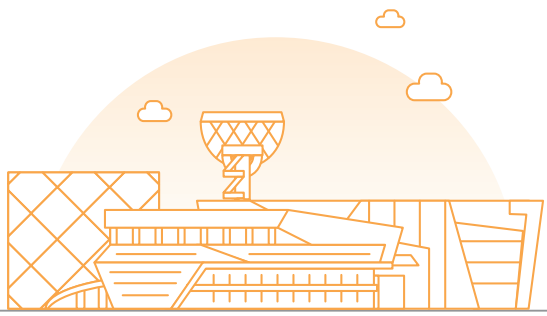
-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개발하였음.
- 축제는 세종대왕의 탄생과 애민 정신, 창조 정신을 기리고, 한글과 세종대왕,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세종시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마련하였음.
- 세종대왕 나신 날 축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며, 세종대왕의 정신과 한글의 가치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체험하도록 구성하였음.
-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특히 세종대왕의 남다른 독서와 학문 정신을 반영한 북페어(book fair)와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개발하였는데, 출판과 독서 문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세종대왕의 책사랑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한 세종시만의 독창적인 축제 모델을 개발하였음.
- 이를 통해 한글문화도시의 대표 콘텐츠이자, 한글과 독서 문화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문화축제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세종대왕 나신 날 축제

기간 | 2026년 5월 15일 ~ 16일 (2일간) **장소** | 세종중앙공원

행사 내용 | ◎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식, 기념 공연, 책사랑축제(북페어)
◎ 참여자 수 21,000명 / 독립서점 35개소 / 한글 콘텐츠 개발자 20개소 참여

기대효과 및 성과 | 한글문화도시 세종 위상 제고 및 시민 자긍심 강화



③ 한글날 기념행사

- 한글날 기념행사는 세종한글축제와 더불어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한글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기획함.
- 대표 프로그램인 한글런(run)은 시민 참여형 마라톤 행사로 한글의 문화적 코드를 활용하여 한글의 역사적 의미와 시민 참여를 함께 담아냄.
-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세계 각국 참가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한국어로 표현하며 한글과 한글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음.
- 외국인 참여로 한국어와 한류 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확대하고, 한글문화의 세계화 기반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함.

한글날 기념 행사

기간 | 2026년 10월 9일 ~ 11일 (3일간) **장소** | 세종호수공원 일대

행사 내용 | ◎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한글날 경축 행사 개최
◎ 한글런(Run) : 한글날을 축하하며 즐길 수 있는 마라톤대회로,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한 5.15km 코스와 한글날을 기념한 10.9km 코스로 마련
◎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표대회로 시 낭송, 동화구연, 주제 발표 등 다양한 형식의 한국어 말하기 프로그램으로 구성
◎ 총 10,312명 참여

기대효과 및 성과 | ◎ 한글문화도시 세종 위상 제고 및 시민 자긍심 강화
◎ 한국어 및 한류 문화 관심 제고로 한글 교육 인구 확대

한글비엔날레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한글날 기념행사



출처 : (좌측부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5). 한글프레비엔날레 도록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책사랑축제 포스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5). 2025한글문화도시 성과보고서

④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

-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은 문학과 독서를 기반으로 한 주·야간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글과 책을 매개로 감성과 사유를 나누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도록 기획한 사업임.
- 도시 곳곳에 실내외 독서 공간을 조성하고, 작가와의 만남, 북 페스티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독서 문화와 한글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함.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

기간 | 2025년 7월 22일 ~ 11월 28일

장소 | 도시상징광장, 한글상점, 세종호수공원 장미원, 세종시립도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23곳, 세종중앙공원 장남뜰 평야 등

행사 내용 | ◎ (반딧불이 독서 뜰) 야외 독서 공간 조성 및 체험·공연 프로그램 운영
◎ (집현전 나들이) 실내 서가 공간 마련, 작가와의 대화, 인문학 강연 및 토론회 개최
◎ (읽을읽을 세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후감 작성 캠페인 운영(세종시립도서관 연계)
◎ (한글모아 예술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북 페스티벌 개최
◎ 참여자 수 9,554명

기대효과 및 성과 | ◎ 도시 전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한글문화 확산
◎ 세종시의 높은 교육 수준과 독서 문화 기반을 활용하여 시민의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는 계기 마련
◎ 한글과 독서를 결합한 체험형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야간 도심에서의 독서, 세종 시민의 밤을 밝히다.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jsessionid=101BA4B5FEB6D51372E06E05F12BBDED.portal1?nttId=B000000139408Xt6lY1q&cmsNoStr=

⑤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전국 규모 경연대회임.
- 어린이들이 우리말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미래 세대의 언어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한글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음.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기간 | (예선) 2025년 7월 19일 (본선) 2025년 8월 23일

장소 | (예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본선) TJB 대전방송 ※주관사에 따라 개최 장소 변경 (2026년 KBS 아트홀)

대회 내용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 능력 전반을 겨루는 경연대회 개발
◎ 어린이 1,748명 참여

기대효과 및 성과 | ◎ 대한민국 전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 중요성을 전파하고 바른말 사용 능력 함양
◎ 대회가 공중파에서 중계됨으로써 한글 사용에 대한 홍보로 대국민 관심 증대

⑥ 한글시민예술가

- 한글시민예술가 사업은 한글을 소재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지역 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임.
- 시민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한글 콘텐츠를 지역 곳곳에서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생활 속 한글문화를 확산하고, 지역문화 인재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한글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함.

한글시민예술가

기간 | 2025년 4월 ~ 12월 **장소** | 세종시 일대 36개소

프로그램 내용 | ◎ 한글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분야별 한글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 기반의 시민 예술가 양성
◎ 미술, 디자인, 공예, 캘리그라피, 생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글 프로그램 26종 개발
◎ 참여자 수 6,131명 / 지역 전문 인력 103명 참여

기대효과 및 성과 | ◎ '한글문화도시 세종' 도시브랜드 강화와 대내외 인식 제고, 시민 누구나 예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환경 구축
◎ 시민 참여로 세종을 대표하는 고유 글꼴 '자으미 모으미' 개발

⑦ 한글사랑 여민락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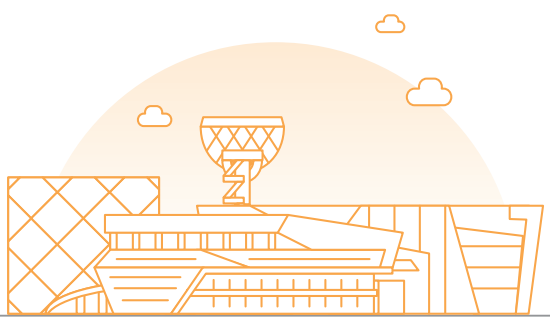
- 한글사랑 여민락 아카데미는 '한글'과 '세종'을 주제로 한 문화 · 예술 분야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한글의 역사와 가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기획함.
- 음악, 미술, 문화 등에서 한글을 융합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고,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인문학 기반을 확대함.

한글사랑 여민락 아카데미

기간 | 2025년 4월 ~ 11월 **장소** |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박연문화관 문화강좌실, 한글상점

프로그램 내용 | ◎ (정기 강의)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주제의 정기 강의 (총 40회)
◎ (특별 강의) 한글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 초청 특별 강의
◎ (한글 도슨트) 전문 도슨트 교육을 통한 시민 도슨트 양성
◎ (시민 참여자 1,715명 참여, 지역문화 인력 232명 양성

기대효과 및 성과 | ◎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깊이 있는 한글 학습 기회를 제공
◎ 한글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 운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확대해 한글 교육산업 기반 구축



⑧ 찾아가는 한글 거리 공연 한마당(컬처로드) 및 한글문화 향유 활동 지원

- 지역 예술단체가 시민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한글을 주제로 한 공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복지 사업임.
-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공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한글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컬처로드 및 한글문화 향유 활동 지원

기간 | 2025년 4월 ~ 11월 **장소** | 세종시 일대 읍면동 2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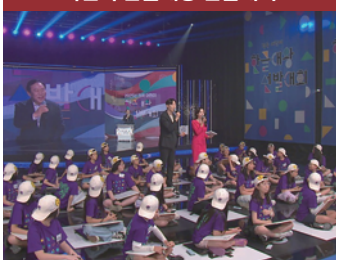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 | ◎ (한글 거리 공연 한마당)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한글을 주제로 한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읍·면·동 수요에 맞춰 공연단이 직접 찾아가는 문화 공연 운영
◎ (한글문화 향유 활동 지원) 읍면동 지역과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예술 체험, 문화예술 교육 등 맞춤형 한글문화 프로그램 지원
◎ 참여 관람객 수 3,700명 / 예술단체 45기관 / 94회 공연

기대효과 및 성과 | ◎ 예술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마련
◎ 세종시 곳곳에서 한글문화를 누리도록 하여 한글문화도시 저변을 확대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한글 시민 예술가 양성



한글사랑 여민락 아카데미



한글 거리 공연 한마당



한글문화 향유 활동 지원



출처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5). 2025한글문화도시 성과보고서

⑨ 한글 시민 상상 문화거리 조성

-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가는 참여형 도시 문화사업임.
- 지역의 역사와 생활 문화, 주민 이야기를 한글과 결합하여 마을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시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도시공간에 구현하고, 생활에서 한글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였음.

한글 시민 상상 문화거리

종촌동 제천뜰 근린공원

(내이름 한글로) 종촌동 주민 50여 명의 참여로 이름과 별명을 한글 디자인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공원 내 체육시설과 야간 그래픽 조명 등에 적용하여 주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문화 공간으로 조성

조치원 청과거리

(한글 싱싱로) 조치원 청과거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한글 싱싱로'를 조성하고, 과일 판매와 함께 한글을 활용한 전시.체험.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한 한글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

기대효과 및 성과 | ◎ 한글문화거리 조성으로 한글에 관한 관심과 자부심 제고
◎ 세종시 곳곳에 한글을 특성화한 개성 있는 마을과 공간을 연출하면서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종촌동 한글상상거리



종촌동 한글상상거리



조치원 한글싱싱로



출처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5). 2025한글문화도시센터 성과보고서

나. 한글문화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음 정책 또는 전략

- 진정한 문화도시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해서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며, 새로운 산업과 관광, 교육으로 확장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글문화도시 세종은 한글문화도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전략을 추진해야 함.

① 한글문화 거점 공간 상시 운영체계 구축

- 문화공간은 조성 자체보다 운영이 더 중요한데, 한글상점, 한글놀이터, BRT작은미술관, 박연문화관, 비엔날레 전시 공간 등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지속해서 방문하는 문화 플랫폼이 되어야 함.
- 연중 상설 프로그램 운영, 전문 운영 인력 확보, 민간 운영조직 참여 확대 등으로 자생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 각 공간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시민들이 하나의 문화 여정을 경험하도록 해야 함.

② 한글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한글은 문화유산이자 미래 산업자원이 될 수 있음.
- 이에 행정수도 완성,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정책과 만나 미래 AI 산업, 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 등으로 진화해야 함.
- 이에 한글문화도시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산업, IP 콘텐츠 산업, 디지털 콘텐츠, 출판, LLM 기반 AI 산업, 관광 산업 등으로 진화해야 함.

③ 국제 한글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 K-문화는 세계적일 때 비로소 가치와 의미가 있는데, 한글문화도시 역시 세종시의 문화사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됨.
- 한글 비엔날레 같은 글로벌 문화 행사나 한글 산업전 같은 국제 산업 교류 전시 등의 포맷을 개발하여 한글문화 사업과 한글 산업이 확장되는 자생적 플랫폼을 갖추어야 함.
- 최근 세계적인 한국어 학습 인구 증가와 K-컬처 확산은 한글문화도시가 한글 콘텐츠를 기반에 둔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가능성을 확인함.

④ 시민 참여형 문화도시 운영

- 시민 예술가, 시민 도슨트, 자원활동가, 문화 기획자 등을 지속해서 양성하고 주민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읍·면·동 생활권 단위로 작은 한글문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글문화를 경험하도록 해야 함.

⑤ 관광과 연계한 한글문화 브랜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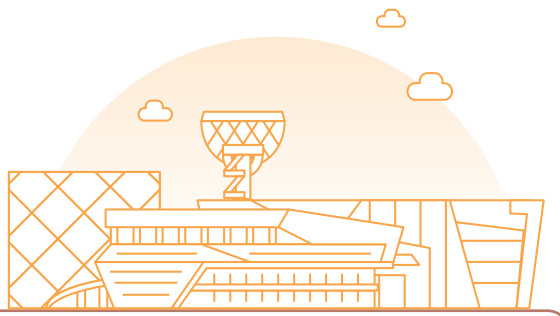
- 문화도시는 관광과 결합할 때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둠.
- 세종시는 한글을 중심으로 한 도시관광 환경을 구축하여 관광객이 체류하며 소비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함.
- 특히 한글을 기반에 둔 국제 언어 교육도시로서 장기체류형 언어교육 관광상품을 개발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큰 만큼, 세종시만의 관광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⑥ 한글문화 연구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

- 세종시는 대학, 연구기관,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한글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한글문화 연구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임.
- 특히 AI 시대 AI 한글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기반 언어 혁신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AI 기업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R&D에도 투자하여 미래 AI 시대에 대응하고 다양한 민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함.

4 시사점·정리

- 한글문화도시 세종은 시민의 삶, 도시 공간, 문화예술, 교육, 산업, 관광을 한글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거점 공간 조성,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시민 참여 확대,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여 한글을 도시브랜드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한 부분은 국내 문화도시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줌.
- 한글문화도시는 공간과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도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음.
- 한글상점, 한글놀이터, BRT작은미술관, 비엔날레 전시관 같은 거점 공간은 시민과 방문객이 한글을 직접 경험하고 창작하며 교류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였음.
- 국제비엔날레, 세종대왕 나신 날 축제, 한글날 행사, 시민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등이 결합하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확장됨.
- 앞으로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문화산업 육성, 국제협력 확대, 디지털 콘텐츠 개발, 시민 참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글문화도시 성과를 도시의 장기적인 자산으로 쌓아가야 함.
-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한글은 창작, 기술, 디자인, 교육, 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문화자원으로 재조명해야 함.
- 세종시가 한글문화 연구, 산업, 국제교류를 선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의 한글문화 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한글문화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음.
- 한글문화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시민 삶에서 살아 숨 쉬는 한글문화를 조성하고 미래 세대가 새로운 가치와 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있음.
- 이러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때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임.



생각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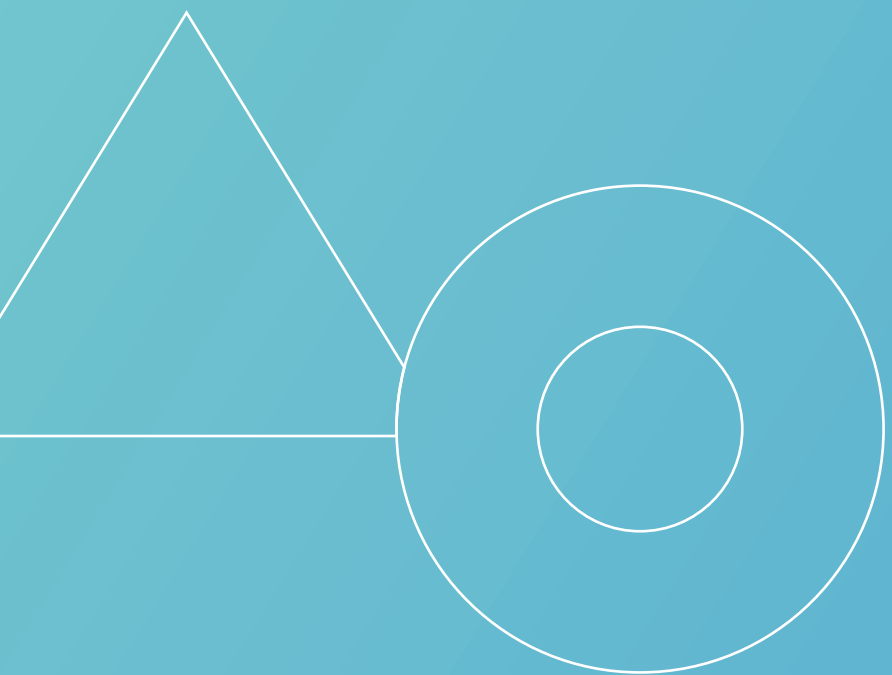
- 문화도시를 조성할 때 문화시설(공간 등)과 문화 콘텐츠는 어떤 역할을 하며, 두 요소는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한글이 문화유산이라는 가치를 넘어 문화산업과 관광, 교육, AI 기술 등과 연계하여 창출할 새로운 콘텐츠나 사업을 제안해 보자.
-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된 후 지속 가능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세종시가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 문화 콘텐츠 수도로 성장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참고문헌

1. 로버트 파우저. (2025). 문자 전파담. 혜화1117.
2. 세종특별자치시. (202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
3. 유정미. (2025. 9. 1.).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 탐구-CI디자인, 슬로건을 중심으로. 세종지역학 기획총서 제3권. 세종연구원.
4. 이장민, 조현구, 이기대, 안병섭, 이재민, 김선영, 김유진, 황원준. (2025. 11. 14.). 한글사랑 추진계획 수립 연구 결과보고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5. 이재민. (2025. 9. 1.).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한글이라는 옷을 입은 세종시". 세종지역학 기획총서 제3권. 세종연구원.
6. 전민정. (2025). 법정문화도시 8년의 기록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전국문화도시협의회.
7. 지방시대위원회. (2025. 6. 30.)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정책용어사전.
8. 한글문화도시센터. (2025. 8. 4.). 한글문화도시센터 주요 업무 계획. 세종시문화관광재단.
9. 한상헌. (2025. 9. 1.).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한글의 추상, 추상도시 세종". 세종지역학 기획총서 제3권. 대전세종연구원.

Memo

03 PART



스마트도시 세종

3-1 스마트 환경 서비스

3-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환경 서비스

학습목표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계획 단계에서 담은 환경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 드러난 한계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2. 스마트 환경 서비스가 센싱 · 데이터 · 분석 · 서비스의 네 단계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국내외 도시의 적용 사례를 통해 세종시 스마트 환경 서비스의 다음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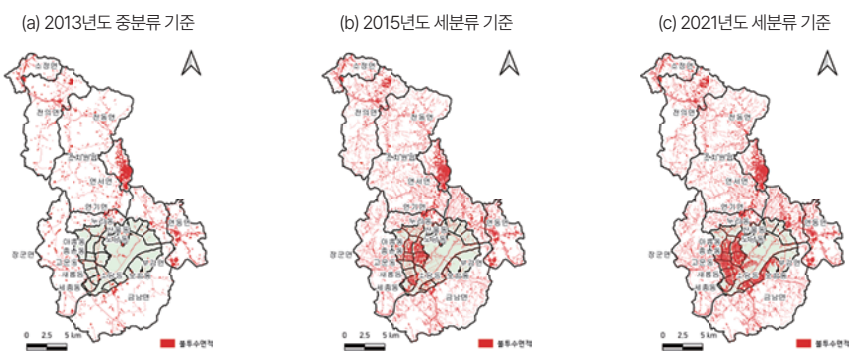
가. 세종시는 설계 단계부터 환경을 담은 계획도시임.

① 행복도시는 백지 위에 물순환을 그려 넣은 도시로 출발함.

- 행복도시는 세 차례의 국제공모를 거쳐 설계되었으며, 2007년 중앙녹지공간 국제공모에서는 도시 중심을 건물이 아닌 녹지로 비워 두는 계획안이 당선됨.
- 도시 조성 과정에서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이 계획에 반영되어, 5 · 6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요소기술 적용 기준을 포함하고 우수저류지 30개소 조성을 계획함.

※ 이 조건은 세종시가 스마트 환경 서비스를 논할 때 갖는 가장 큰 자산임. 설계 의도와 시공 정보가 온전히 남아 있어, 실제 성능과 대조할 기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세종시 읍면동별 불투수면적 비율(2021년 기준)



※ 출처 : 송양호, 이자은, 박윤경 (2023).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② 그러나 개발 속도가 관리 체계를 앞질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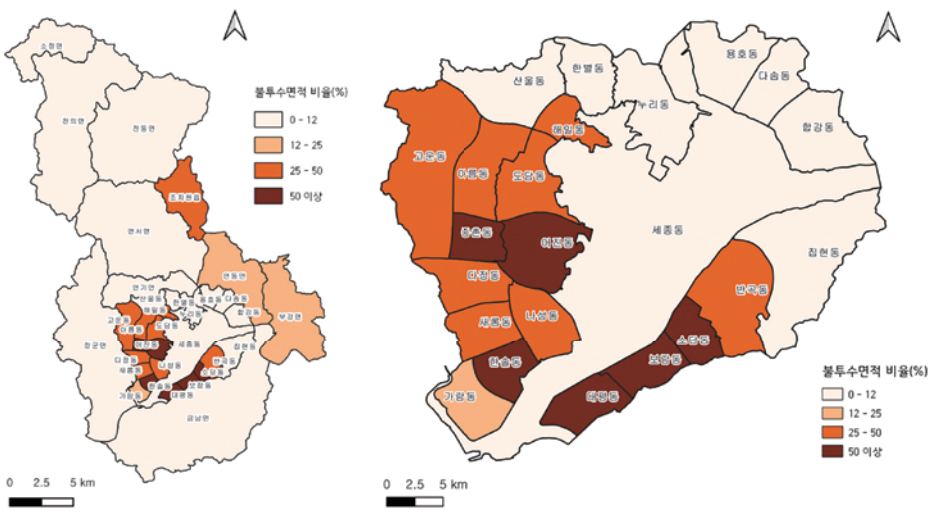
- 세종시의 불투수 면적은 2013년 25,122,404㎡에서 2021년 48,863,150㎡로 약 194.5% 증가하였고, 불투수면적률은 5.4%에서 10.5%로 상승함.
- 33개 법정동 가운데 15개 지역이 불투수면적률 25%를 초과하였으며, 보람동 63.6%, 어진동 61.9%, 종촌동 5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불투수면적률에 따른 유역 상태 구분

구분	불투수면적률	유역 상태	관리 방향
1기	0~10%	좋음	현 상태 유지
2기	11~25%	보통	사전예방적 관리
3기	26~50%	나쁨	사후대책적 관리
4기	51% 이상	매우 나쁨	적극적 복원

출처 : 송양호, 이자은. (2024). 세종시 물 안심공간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바탕으로 재구성

세종시 읍면동별 불투수면적 비율(2021년 기준)



※ 출처 : 송양호, 이자은, 박윤경 (2023).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③ 계획도시의 역설 — 설계도는 있으나 운영 데이터가 없었음.

- 홍수 취약성 연구는 세종시의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함.
  - 저영향개발을 표방하며 조성했으나 빠른 개발 속도에 비해 도시 물순환을 관리하는 불투수면적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취약성이 드러났고, 이는 자연적 원인보다 행정 · 제도적 실패와 물리적 환경이 결합해 증폭된 결과임.
- 실제로 계측 기반은 설계 시점보다 한참 뒤에 갖추어짐.
  - 세종시 자동기상관측소는 2020년 4월에야 정규 관측을 시작하여, 확률강우량 산정 시 대전 · 청주 · 천안 관측소의 장기 자료를 티센다각형 비율로 환산해 사용하고 있음.
- 도시 유출을 모의하는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형을 구축하려면 강우 사상별 유출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실측자료가 필요하나, 세종시 대상 유역에는 해당 계측자료가 없어 미계측 지역 연구를 참고해 분석을 수행한 사례가 있음.
- 전국 빗물이용시설 3,544개소 가운데 1,943개소(54.8%)는 연간 사용량이 0으로 기록되어 있어, 시설은 있으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 설계는 2005년 국제공모부터 시작되었으나 도시 자체의 정규 계측은 2020년에야 시작됨. 약 15년의 공백은 세종시가 자신의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단 없이 성장했음을 뜻함. 스마트 환경 서비스는 이 공백을 메우는 일에서 출발함.

세종시 환경 설계와 계측의 시간 격차



※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2007) 및 송양호 외(2023)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 송양호 · 안용준(2025) 세종시 홍수 취약성 평가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작성

나. 기후 위기가 도시환경 리스크의 성격을 바꿈.

① 세종시의 기후는 이미 달라짐.

- 최근 5년(2020~2024년) 세종시의 연평균 강수량은 1,487.4㎜이며, 이 중 하절기(6~9월) 강수량이 881.8㎜로 연간 강수량의 약 58.5%가 여름에 집중됨.
- 같은 기간 연평균 기온은 13.1°C에서 14.5°C로 상승하였고, 폭염일수는 2020년 10일에서 2024년 32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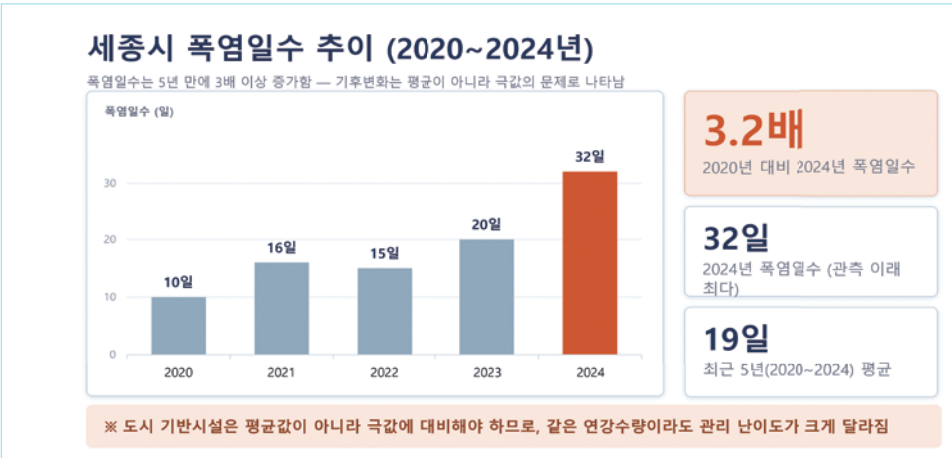
※ 기후변화는 평균이 조금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한 번에 쏟아지는 양이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남. 도시 기반 시설은 평균값이 아니라 극값에 대비해야 하므로, 같은 연간 강수량이라도 관리 난이도가 크게 달라짐.

세종시 기후 현황(2020~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평균
연강수량(㎜)	1,551.20	1,073.10	1,247.90	2,219.40	1,345.60	1,487.40
강수일수(일)	111	118	99	103	124	111
평균기온(℃)	13.1	13.5	13	13.8	14.5	13.6
폭염일수(일)	10	16	15	20	32	19

출처 : 송양호, 이자은. (2025). 세종시 수변공간의 이 · 치수 조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연구. 세종연구원. 바탕으로 재구성

세종시 폭염일수 추이(2020~2024년)



※ 출처 : 송양호, 이자은. (2025). 세종시 수변공간의 이 · 치수 조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연구. 세종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작성

② 피해보다 복구가 비싼 구조가 반복됨.

- 2023년 한 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하천 수해는 국가하천 17건, 지방하천 76건, 소하천 49건으로 집계되었고, 추정 피해 금액은 113.3억 원, 추정 복구 금액은 190.1억 원에 이름.
- 피해는 지방하천에 집중되었는데, 지방하천 피해액이 53.5억 원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는데, 이는 국가하천보다 관리 재원이 취약한 지방하천 · 소하천이 기후 리스크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을 보여줌.

※ 복구 금액이 피해 금액의 약 1.7배에 이르는 구조는 사후 복구가 사전 예방보다 훨씬 비싼 대응임을 수치로 확인시켜 줌.

③ 도농복합 · 단층제라는 이중 조건이 처방을 갈라놓음.

- 읍 · 면 지역의 평균 불투수면적률은 11.4%로 행복도시 평균 32.3%와 약 3배의 격차가 있으며, 조치원읍(32.6%)만이 읍 · 면 중 유일하게 25%를 초과함.
- 신도시는 설계 단계에서 물순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구도심과 농촌은 기존 시설이 노후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음.
-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의 권한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시 · 도에서 도지사와 시장 · 군수로 나뉘는 계획 수립과 집행이 하나의 주체로 수렴하므로, 지역별로 다른 처방을 일관되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이 있음.

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부여한 과제

① 세종시는 스마트시티를 실증하도록 지정된 도시임.

- 세종 5-1생활권은 2018년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약 83만 평 규모에 2023년까지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함.
- 2018년 12월에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인 ISO 37106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하여, 도시 운영의 표준을 제시하는 위치에 있음.
- 국가시범도시 7대 혁신 요소는 모빌리티, 교육 · 일자리, 에너지 · 환경, 안전 · 생활, 문화 · 쇼핑, 거버넌스, 헬스케어임.

※ 에너지 · 환경이 7대 혁신 요소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세종시에서 환경이 스마트시티의 부수 영역이 아니라 도시 운영의 핵심 축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뜻함.

② 스마트 환경 서비스란 무엇인가?

- 스마트 환경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환경 기반 시설과 결합하여 도시의 환경 상태를 상시 계측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행정이 체감하는 형태로 되돌려주는 서비스 체계임.
- 핵심은 의사결정의 근거가 바뀌는 데 있는데, 담당자의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판단을 관측값과 예측값에 근거한 판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임.

※ 이 단원에서 다루는 스마트 환경은 환경 분야 중에서도 도시의 물 환경을 중심으로 함. 물은 기후 위기의 영향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매체이면서 상하수도 · 하천 · 지하수 · 방재로 부서가 나뉘어 있어 데이터 통합의 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임.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설명
물순환(water cycle)	• 강우가 증발산 · 침투 · 유출의 경로로 나뉘어 순환하는 현상
불투수면적률	• 유역 면적 중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면적의 비율
저영향개발(LID)	• 개발 이전의 물순환 상태에 가깝도록 침투 · 저류 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계획 기법
자연기반해법(NbS)	• 습지 · 숲 · 하천 복원 등 자연의 기능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 배출 지점이 특정되지 않고 강우 시 광범위하게 유출되는 오염원
하수역학(WBE)	• 하수에 남은 물질을 분석해 지역사회의 건강 · 생활 상태를 익명으로 추정하는 방법

2 추진 내용

가. 스마트 환경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① 네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서비스

- 스마트 환경 서비스는 센싱 · 데이터 · 분석 · 서비스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완성됨.
- 어느 한 단계가 끊어지면 앞 단계의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부서별로 다른 형식으로 자료를 쌓으면 통합 분석을 할 수 없고, 분석하고도 그 결과가 현장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창고에 쌓이는 데 그침.

스마트 환경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네 단계



② 세종시의 현재 위치를 단계별로 점검함.

- 센싱 : 지하수측정망은 국가 2개소와 보조 31개소에 그치고, 자동기상관측 이력은 2020년부터임.
- 데이터 : 물 업무가 5개 부서에 나뉘어 있고 자료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분석 : 강우-유출 해석 모형, 분야별 취약성 평가 기반 다양한 환경 서비스 연구를 통해 축적되고 있음.
- 서비스 : 홍수 예 · 경보와 스마트 안전망 등 개별 서비스는 존재하나 통합 창구는 미비함.

※ 세종시는 분석 역량은 앞서 있으나 센싱과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임. 즉 계산할 능력은 갖추었으나 계산에 넣을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것이 스마트 환경 서비스의 가장 시급한 병목임.

나. 세종시 스마트 환경 서비스의 세 갈래

세종시 스마트 환경 서비스의 세 갈래

구분	시민이 받는 것	주요 수단
물순환 서비스	도시가 스스로 빗물을 처리하여 침수와 오염이 줄어듦	저영향개발 시설, 물순환 관리목표량, 빗물저금통, 우수저류지
물 재해 서비스	위험을 미리 알려 대피와 대응 시간을 벌어 줌	영향한계강우량 4단계, 홍수 예 · 경보,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스마트 안전망
물 환경 품질 서비스	수질과 생태 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공개함	물환경측정망, 지하수측정망, IoT 수질센서, 스마트 하수도

① 물순환 서비스 — 도시가 스스로 빗물을 처리하게 함.

-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식생수로, 침투트렌치, 빗물정원 등 저영향개발 요소기술을 분산 배치함.
- 세종시는 시설 유형별로 물순환 관리목표량을 설정하여 각 시설이 자기 부지에 내린 빗물 중 얼마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명시함.

② 물 재해 서비스 — 위험을 미리 알려 시간을 벌어 줌.

- 물 재해 서비스의 핵심 지표는 영향한계강우량인데, 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개념으로 계획홍수위 대비 수위 비율에 따라 발령 단계를 설정함.
- 세종시 지방하천의 3시간 지속 강우 기준 영향한계강우량은 관심 28.7~32.3㎜, 주의 48.2~54.2㎜, 경고 76.0~85.5㎜, 위험 107.4~120.7㎜로 산정됨.

※ 모형 결과는 설정된 가정과 입력자료의 한계에 따른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모형을 맹신하지 않는 것도 데이터 행정의 일부임.

③ 물 환경 품질 서비스 — 상시 감시하고 공개함.

- 지하수는 국가측정망 2개소와 보조측정망 31개소에서 수위 · 수온 · 전기전도도를 자동 관측하거나 월 2회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음.
- 환경부는 2045년까지 국가측정망 4,219개소, 보조측정망 43,0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세종시도 2030년까지 국가측정망 기준 20~40개소 수준의 후보군 선정이 필요한 상황임.

※ 측정 결과를 시민에게 어떤 형태로 공개할 것인가가 품질 서비스의 완성도를 좌우함. 측정값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과 오늘 이 하천에서 물놀이해도 되는가에 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수준의 서비스임.

저영향 개발 기법의 기술요소 및 실증 사례

(a) 저영향개발 기법의 기술별 요소



(b) 저영향개발 기법의 대표 기술



출처 : 송양호, 이자은, 박윤경 (2023).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량(안)

시설 분류	강우량 기준(㎜)	강우강도 기준(㎜/hr)
공공 · 교육시설	30.0	3.5
공원 · 녹지	45.0	5.0
교통 · 기반 시설	25.0	3.0
민간 대규모 시설	30.0	3.5
민간 소규모 시설	20.0	2.0

※ 불투수면의 71.9%가 도로 · 주차장 등 교통 지역이라는 점에서, 물순환 서비스는 환경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로 · 교통 · 건설 부서의 설계 기준과 직결되는 과제임

※ 출처 : 송양호, 이자은, 박윤경 (2023).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다. 서비스를 지탱하는 제도와 조직

① 법과 제도가 지방의 의무를 규정함.

- 「물관리기본법」은 건전한 물순환의 실현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함.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종합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를 제도화하였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2024년 3월 시행)은 도시 침수 대응을 하천 단위가 아닌 유역 단위로 전환함.
- 세종시 차원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가 시행 중이며,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안)」가 제안되어 있음.

물관리 권한 재편의 경과와 세종시 업무에 미친 영향

시기	제도 변화	세종시 업무에 미친 영향
2018년	• 물관리 일원화(정부조직법 개정)	• 수량 · 수질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 • 환경부 협의 창구 단일화
2020년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지방 이양 • 자체 재원 확보 부담 증가
2022년	• 하천관리 일원화(하천법 이관)	• 하천 점용허가 · 유지보수 기능의 환경부 통합
2024년	•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시행	• 유역 단위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발생

※ 출처 : 송양호, 변성수. (2024). 세종시 지방하천 관리 필요성과 방향 검토. 대전세종연구원. 바탕으로 재구성



② 조직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를 나눔.

- 세종시의 물 업무는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세종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로 나뉘어 있음.
- 부서마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자료를 축적하여 통합 분석이 어려운 것이 실질적인 제약임.
- 지하수 인허가 같이 연간 1,500여 건이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자 1인이 처리하는 등 분야별 인력 편차도 큼.

세종시 물 관련 업무의 부서별 분장

부서	주요 업무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물순환 회복, 물 수요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하수 관리, 수질오염총량제, 방재시설, 하천 유지관리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공급 · 검침, 스마트 관망 관리, 배수지 · 가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관로 기술 진단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호우 · 태풍 · 가뭄 대응 및 복구, 재난 예 · 경보 시설 구축 · 운영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양 · 배수장, 관정 개발 · 유지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유지관리
세종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	먹는물 · 폐수 검사, 물환경측정망(하천수) 운영관리, 방류수 검사

※ 출처 : 송양호, 안용준, 이자은, 김영일, 최한주. (2023). 세종시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중점과제 발굴. 대전세종연구원. 바탕으로 재구성



3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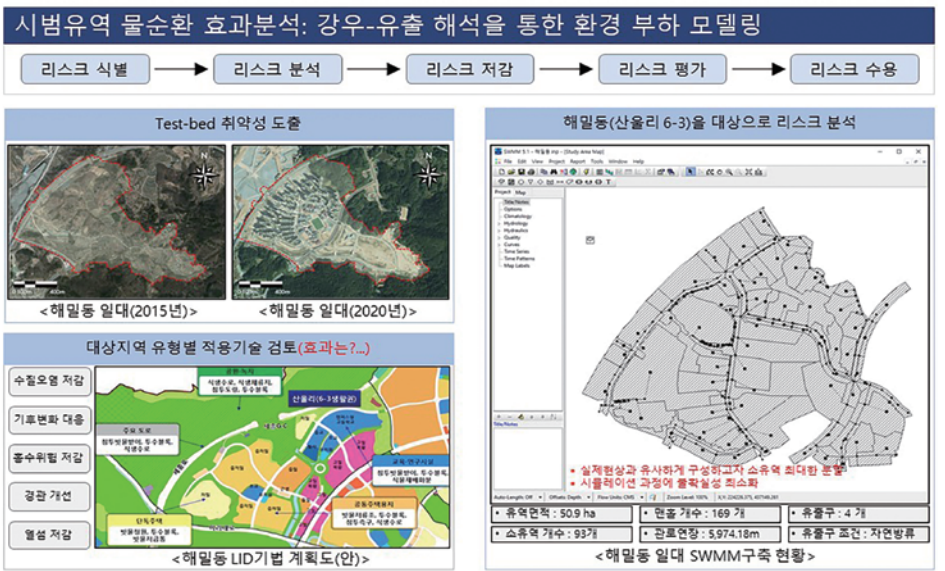
가. 세종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① 해밀동 — 설계 효과를 미리 계산해 본 사례

- 세종시는 해밀동 일대 509,470㎡를 대상으로 SWMM 모형을 구축하고, 저영향개발 시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의 효과를 모의하였음.
- 대상 구역은 시가화 면적이 약 53%, 불투수면적률이 57%에 이르는 전형적인 신도시 생활권으로, 해밀 A부터 D까지 네 개 배수분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 60분 동안의 호우가 지속되는 강우를 기준으로 BOD는 평균 47.1%, 부유물질(TSS)은 평균 45.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유출량 저감 비율은 평균 4.5%에 그침.
- 옥상녹화를 6,160㎡까지 확대하면 연간 85.7 tCO_2eq의 온실가스 감축과 최대 0.38°C의 열섬 저감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됨.

※ 수질 개선 효과가 유출 저감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결과는 저영향개발을 홍수 대책으로만 이해하면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됨을 뜻함. 저영향개발은 비점오염 관리와 탄소중립 · 열섬 대응을 함께 달성하는 다목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저영향개발 기법의 기술 요소 및 실증 사례



※ 출처 : 송양호, 이자은, 박윤경 (2023).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② 읍면동 홍수 취약성 지도 — 같은 도시, 다른 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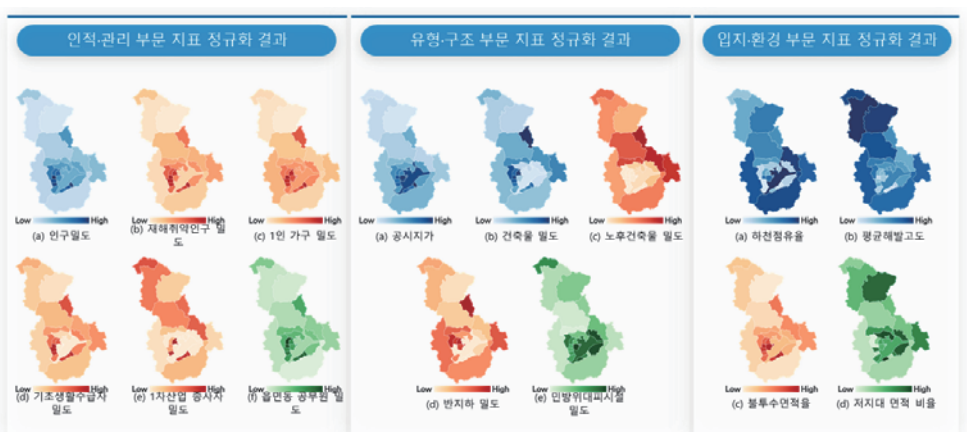
- 세종시는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5개 지표를 수집하고, 이를 인적 · 관리, 유형 · 구조, 입지 · 환경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통합 홍수 취약성 지수(FVI)를 산정함.
- 분석 결과 취약성은 도시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세종시 지역 유형별 홍수 취약성 구조와 처방

지역 유형	대표 지역	취약성의 성격	핵심 근거	정책 처방
구도심	조치원읍	구조적 민감성	반지하 주택 345개 중 139개(40%), 노후 건축물 2,911개(23%) 집중	기존 시설 성능 개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도심	종촌동 · 보람동	환경 · 설계적 민감성	불투수면적율 57~63%, 낮은 해발고도와 경사도	설계 개선, 저영향개발 의무화, 녹지 확충
농촌(면 지역)	연기면 · 전동면	적응 능력 공백	방재 인프라와 재난관리 인력 부족	최소 안전 기준 보장, 다목적 대피시설 확보

※ 출처 : 송양호, 안용준. (2025). 세종시 홍수 취약성 평가 연구. 세종연구원.

지표별로 바라본 세종시 읍면동간의 홍수취약성 현황



※ 신도심은 최종 취약성 지수가 낮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위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적응 능력이 위험을 상쇄한 결과임.
평시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지역일수록 복합재난 상황에서의 잠재 위험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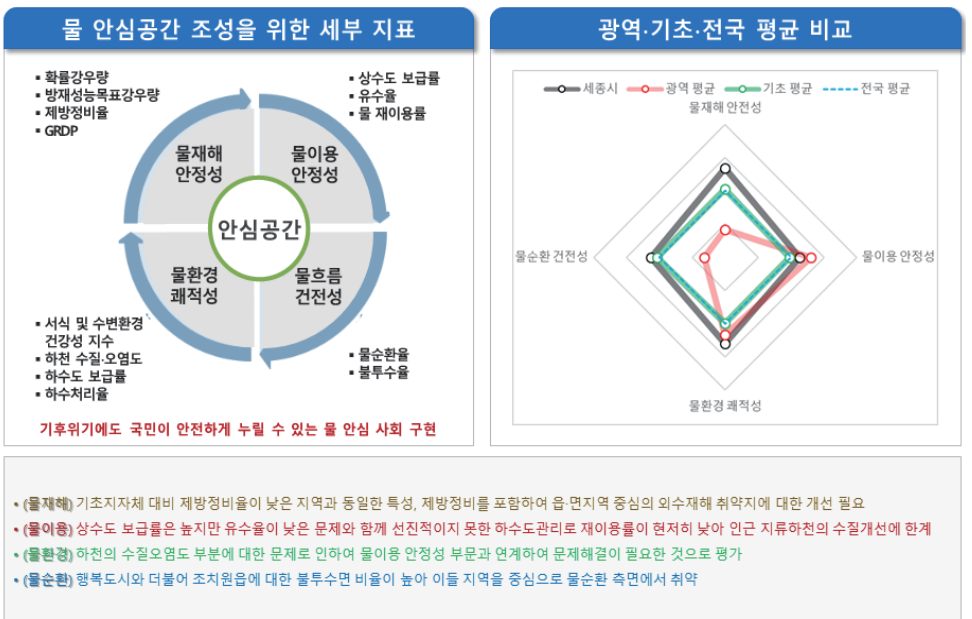
※ 출처 : 송양호, 안용준. (2025). 세종시 홍수 취약성 평가 연구. 세종연구원.

③ 조치원읍 물 안심공간 — 진단하고 처방하는 절차를 갖춤.

- 세종시는 조천 좌안 조치원읍 시가지 약 3.49㎢를 대상으로 물 안심공간 기본구상을 수립하였는데, 조치원읍은 읍·면 지역 중 유일하게 불투수면적률 25%를 초과하는 지역임.
- 물 안심공간은 물 이용 안정성, 물환경 쾌적성, 물재해 안전성, 물흐름 건전성의 4개 분야 13개 지표로 지역의 물관리 수준을 진단한 뒤 대책을 설계하는 방식임.
- 진단 결과 세종시는 상수도 보급률 100.00%, 불투수율 10.15% 등 양호한 상태이지만, 물 재이용률 7.00%와 제방 정비율 75.33%에서 취약성이 드러남.
- 도출한 대책에는 우수관거 통수능 확보와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시스템 구축, 도시홍수 관리시스템과 스마트 하수처리장 도입, 관심·주의·경계·심각 기준 수위에 따른 사전 홍수 예경보 체계 운영이 포함됨.

※ 이 사례의 의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진단 → 처방의 절차를 만들었다는 데 있음. 지표로 먼저 재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고르는 방식은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 안심공간 조성 사업의 지표와 세종시 비교 현황



- (물재해) 기초지자체 대비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역과 동일한 특성, 제방정비를 포함하여 읍·면지역 중심의 외수재해 취약지에 대한 개선 필요
- (물이용) 상수도 보급률은 높지만 유수율이 낮은 문제와 함께 선진적이지 못한 하수도관리로 재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인근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에 한계
- (물환경) 하천의 수질오염도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물이용 안정성 부문과 연계하여 문제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물순환) 행복도시와 더불어 조치원읍에 대한 불투수면 비율이 높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물순환 측면에서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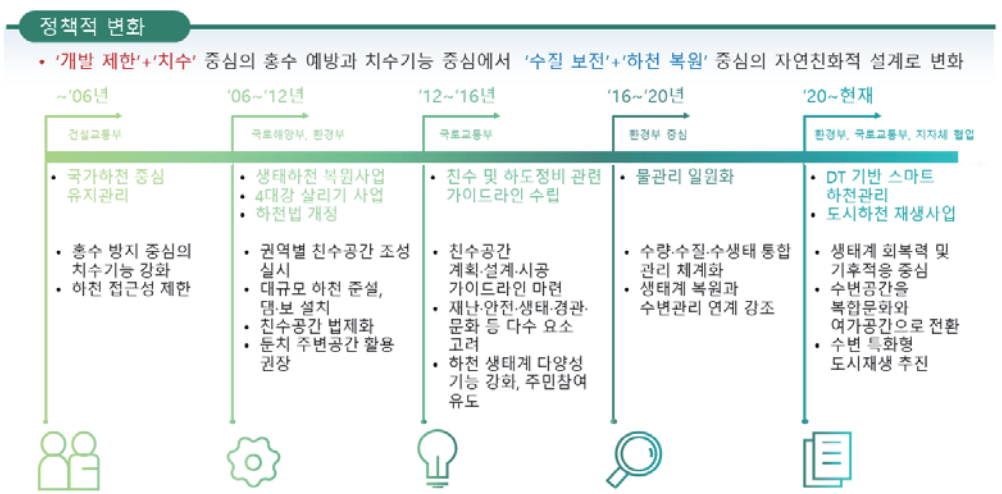
※ 송양호 외. (2024). 세종시 물 안심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④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 수변공간 정책 변화가 도달한 지점

- 하천 수변공간 정책은 2006년 이전 치수 중심의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 2006~2012년 생태하천 복원과 친수공간 법제화, 2012~2016년 친수 및 하도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2016~2020년 물관리 일원화를 거쳐, 2020년 이후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하천관리와 도시하천 재생 사업으로 이어짐.
- 이 흐름의 핵심은 하천을 '접근을 제한하는 공간'에서 '이용을 전제로 관리하는 공간'으로 전환한 데 있으며, 소관 부처도 건설교통부 단독에서 환경부 · 국토교통부 · 지자체 협업 구조로 바뀌었음.
-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세종보에서 이응다리를 지나 합강습지에 이르는 약 9㎞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21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351억 원 규모임.
- 사업은 수변 이용 · 문화 공간 조성과 생태 복원, 스마트 관리 기반이 하나로 묶여 있어, 정책 변화의 마지막 단계인 스마트 하천관리와 도시하천 재생이 한 사업에서 동시에 구현되는 형태임.
- 대표 과제인 삼각편대 스마트 안전망은 인공지능 관제와 드론, 자율주행 4족 보행 로봇을 결합하여 수변 이용객의 안전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으로, 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이용 시간대 전체를 포괄함.

※ 이용을 전제로 한 수변공간에서는 안전 관리 범위가 곧 개방이 가능한 공간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스마트 안전망은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친수사업 전반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수변공간에 대한 국내 정책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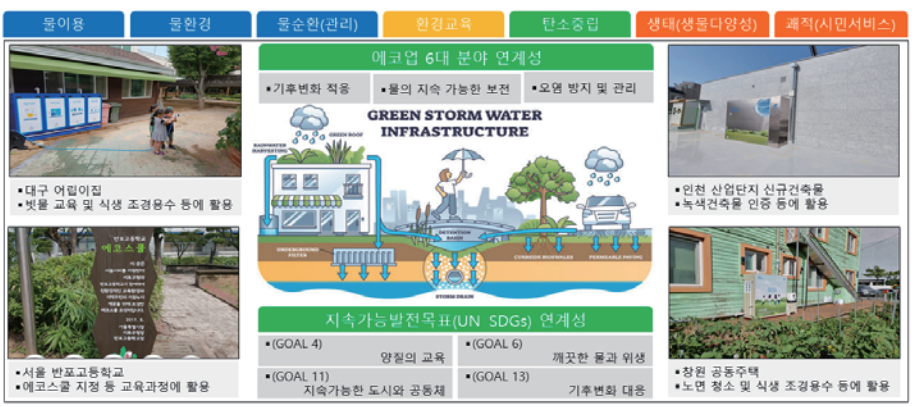
※ 출처 : 송양호, 이자은. (2025). 세종시 수변공간의 이 · 치수 조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연구. 세종연구원.

⑤ 빗물저금통 — 기술만으로는 서비스가 되지 않음.

- 빗물저금통은 개별 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저영향개발 시설이자, 물순환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환경교육의 매개체이기도 함.
-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자 3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설치 의향은 64.1%로 높게 나타났지만,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약 5%에 그쳐 정보 전달의 공백이 확인됨.
- 가장 필요한 지원은 설치 비용 재정 지원(71.8%)보다 정기적인 유지보수 지원(76.9%)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설치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수도 요금 절감(17.9%)이 아닌 어린이 환경교육 강화(82.1%)가 꼽힘.
- 이를 반영하여 대학 · 연구기관 · 지자체가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U-R-G 거버넌스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대학은 교육과 인력 양성, 연구기관은 기술 표준화와 효과 검증, 지자체는 재정과 제도를 담당함.

※ 시민이 원한 것은 설치비가 아니라 관리였음.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시설을 만드는 일보다 그 시설이 계속 작동하도록 돌보는 일이 정책의 본체임.

빗물저금통의 지향점과 국내 설치·운영 사례



※ 출처 : 송양호, 안용준, 이자은. (2025). 빗물저금통 보급 · 확산을 위한 대학-연구기관-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효과 분석 연구. 세종연구원.

나. 국내 현황 — 실증에서 상시 서비스로

①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물순환 실증사업을 이어 왔음.

- 우리나라의 도시 물순환 정책은 2013년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부처의 실증사업이 이어지며 축적되었음.
- 초기에는 특정 단지에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이후 도시 단위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실시간 감시를 결합한 상시 서비스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
- 세종시가 참고할 지점은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 이 흐름 자체임.
  - 실증 → 도시 확산 → 상시 서비스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세종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국내 물순환 관련 주요 실증사업의 계보

사업명	주관	기간	성격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환경부	2013~2018	단지 단위 저영향개발 효과 실증
통합 ·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환경부	2013~현재	오염 지류 집중 개선(세종 조천 포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환경부	2014~현재	공공시설 중심 그린 인프라 확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환경부	2016~2023	도시 단위 물순환 회복 종합 실증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2017~2022	재생 사업에 물순환 요소 결합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부	2021~2022	기후 위기 대응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환경부	2022~2025	노후 산업단지 불투수면 개선

※ 출처 : 송양호 외. (2024). 세종시 물 안심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바탕으로 재구성

-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은 1단계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2단계 전북 전주시 서곡지구에서 추진되었으며, 배수구역 단위 유출 저감율은 각각 24.1%와 8.6%로 나타남.
- 스마트 그린도시는 100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25곳이 선정되었고, 저탄소 그린산단은 불투수면적이 90%를 넘는 노후 산업단지 5곳을 대상으로 추진함.

※ 같은 기법을 적용해도 지역에 따라 저감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24.1% vs 8.6%)은, 표준 설계를 그대로 옮겨 심는 방식이 통하지 않음을 뜻함.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설계와 사전 · 사후 모니터링이 함께 가야 함.

② 물순환 선도도시 — 도시 단위로 확장된 첫 시도

- 환경부는 인구 10만 이상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5개 도시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하고, 총사업비 1,23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함.
- 각 도시는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과 결합한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인데, 광주의 도시 온도 1°C 낮추기 정책과 대전의 수생태계 · 대기질 개선을 연계함.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개요

도시	대상 지역	사업비	연계 전략
울산광역시	삼호동	96억 원	강우유출량 저감 및 수질 향상
광주광역시	치평동	295억 원	도시온도 1°C 낮추기 정책과 연계
경북 안동시	운흥동 · 명륜동	410억 원	전통문화 자원과 결합한 생태 물순환도시
대전광역시	둔산동 · 월평동	280억 원	수생태계 · 대기질 개선 통합관리체계
경남 김해시	동상 · 회현 · 부원동	150억 원	물순환 균형도시

※ 출처 : 송양호 외. (2024). 세종시 물 안심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바탕으로 재구성

③ 서울특별시 — 지수로 진단하고 절차로 이행시킴.

- 서울특별시는 런던 · 뉴욕 등 세계 57개 도시가 활용하는 물순환 지수(Blue City Index)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7개 분야 25개 항목을 0~10점으로 점수화해 물순환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있음.
- 지수를 산정하는 목적은 순위를 매기는 데 있지 않고, 정책 · 재정 · 기술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음.
-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인허가 전에 물순환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선 5기에는 물순환안전국을 신설하여 조직 차원의 전담 체계를 갖춤.
- 빗물마을 조성사업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 은평구 불광동은 유출량이 약 19%, 강북구 수유동은 약 38%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분산형 시설의 효과가 실측으로 입증되었으며, 2050년까지 연 강수량의 40%(약 620㎜)를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함.

※ 서울의 사례에서 핵심은 지수 · 제도 · 조직이 한 묶음으로 움직였다는 점임.
지수만 만들면 보고서로 끝나고, 제도만 만들면 근거 없이 규제한다는 반발에 부딪힘.

④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 물을 주제로 삼은 또 하나의 국가시범도시

-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세종 5-1생활권과 함께 지정한 국가시범도시로, 낙동강 삼각주라는 입지를 살려 물을 도시의 주제로 삼은 점이 특징임.
- 스마트 물관리, 저영향개발, 자연형 수처리(에코 필터링), 소형 강우레이더 기반 도시 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을 적용한 국내 최초 분산형 스마트 정수장, 하천수 온도 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등이 적용됨.
- 2021년 12월 완공된 스마트빌리지에서는 약 200명의 입주자가 5년간 무상으로 혁신 기술을 체험하는 리빙랩을 운영하며, 300여 종의 데이터를 수집함.

※ 세종시가 참고할 지점은 기술 목록이 아니라 리빙랩이라는 방식임.
실제 거주자가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남기는 구조를 만들었기에 설계 의도와 실제 성능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음.

⑤ 환경부 인공지능 홍수예보 — 예보의 범위와 속도를 함께 바꿈.

- 환경부는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체계를 도입하여 홍수특보 지점을 75개소에서 223개소로 약 3배 확대하였으며, 특히 지방하천은 12개소에서 130개소로 약 10배 늘림.
- 기존 물리 모형은 한 번 계산에 약 30분이 소요되었으나, 인공지능 모형은 10분마다 자동으로 계산하며 자료 수집 후 몇 초 내에 결과를 제시함.
- 물리 모형이 유량을 계산한 뒤 수위로 환산하는 방식이었다면, 인공지능 모형은 수위를 직접 예측하는 방식을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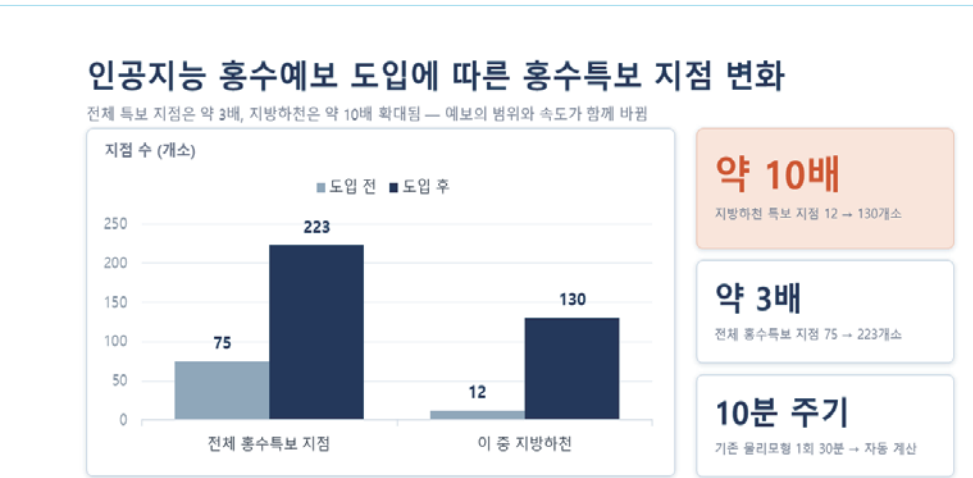
※ 세종시 지방하천이 2023년 수해 피해액의 47.2%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하천 특보 지점의 확대는 세종시에 직접적인 의미를 가짐.
다만 예보 지점이 늘어난 만큼 발령 시 대응할 현장 체계도 함께 갖추어져야 함.

⑥ 환경부 스마트 하수도 사업 — 하수도를 감시 자산으로 전환함.

- 환경부는 2021년 스마트 하수도 사업 대상지 33곳을 선정하고 4년간 약 2,23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에 실시간 감시 · 제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함.
- 이 사업은 도시 침수 대응, 하수 악취 관리, 하수도 자산관리, 하수처리장 스마트화 등으로 구성되어, 하수도를 단순 배출 시설이 아니라 도시 상태를 알려주는 감시 자산으로 전환하는 성격을 지님.

※ 세종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6.6%(2021년)로 전국 평균 15.4%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하수도의 스마트화는 침수 대응뿐 아니라 물 재이용 확대의 기반이 되기도 함.

인공지능 홍수예보 도입에 따른 홍수특보 지점 변화



※ 출처 : 통계청. (2024).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현황 소개. 통계의 창. https://shi.kostat.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작성

국내 스마트 환경 서비스 사례와 세종시 시사점

사례	핵심 수단	대표 수치	세종시에 주는 시사점
물순환 선도도시(5곳)	도시 단위 물순환 회복	총사업비 1,231억 원, 74개 도시 공모	지역 현안과 결합한 목표 설정이 성패를 가름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단지 단위 저영향개발 실증	유출 저감 24.1%(오창) vs 8.6%(전주)	표준 설계 이식이 아닌 지역 맞춤 설계 필요
서울특별시	물순환 지수 + 사전협의제도 + 전담조직	7개 분야 25개 항목, 빗물마을 유출 19~38% 저감	지수 · 제도 · 조직을 한 묶음으로 추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리빙랩 기반 물 특화 도시	스마트빌리지 약 200명 거주, 약 300여 종 데이터	거주자가 데이터를 남기는 구조 설계
환경부 인공지능 홍수예보	수위 직접 예측 인공지능 모형	특보 지점 75 → 223개소, 10분 주기	지방하천 중심 도시에 직접 효과
환경부 스마트 하수도 사업	하수관로 · 처리장 실시간 감시	33곳 선정, 4년간 약 2,230억 원	침수 대응과 물 재이용을 함께 푸는 수단

※ 출처 : 송양호 외(2024) 세종시 물 안심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송양호 외(2023)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 통계청(2024)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현황 소개, 전자신문(2021. 7. 7.) 환경부 하수도 스마트화 관련 보도, 워터저널(2023) 스마트워터시티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을 바탕으로 재구성

다. 국외 현황 — 도시가 물을 다루는 네 가지 전략

① 목표를 숫자로 못 박는 전략 — 미국 뉴욕 · 필라델피아

- 뉴욕시는 Green Infrastructure Plan을 통해 불투수면적의 10%에서 발생하는 초기 강우 1인치(약 25.4㎜)를 처리하는 것을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기 목표로 설정함.
- 목표를 면적 비율과 강우 깊이라는 두 개의 숫자로 명시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성과를 같은 기준으로 합산할 수 있게 함.
- 필라델피아시는 2011년 Green City, Clean Waters를 시작하여 25년에 걸쳐 합류식 하수 월류를 그린 인프라로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5년 차 기준 목표였던 3,812 그린 에이커를 넘어 3,860 그린 에이커 이상을 조성하였고, 1,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료함.
- 오염수 저감 실적은 2021년 기준 연간 30.8억 갤런이며, 사업 완료 시 연간 40억 갤런 이상 저감이 예상됨.

※ 두 도시의 공통점은 그린 에이커처럼 합산이 가능한 성과 단위를 먼저 정의한 데 있음. 단위가 있어야 매년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보고할 수 있고, 예산이 계속 배정됨.

② 물길에 공간을 되돌려주는 전략 — 네덜란드 · 독일

- 네덜란드는 강에 공간을(Room for the River) 정책을 통해 제방을 높이는 방식 대신 하천에 범람할 공간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함. 제방 후퇴, 홍수터 확보, 우회수로 조성 등이 주요 수단임.
- 독일 뮌헨은 이자르 플랜(Isar-Plan)을 통해 콘크리트로 직강화된 도심 하천을 자연형으로 되돌렸으며, 자갈밭과 수변 습지가 되살아나 여름철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 휴양지로 변모함.

※ 세종시 수변공간 연구가 제시한 홍수터 공원과 자연기반해법(NbS) 도입은 이 전략과 같은 계열임. 둔치 친수시설이 200년 빈도 이하 홍수에도 잠기는 조건에서는 막는 설계보다 잠겨도 되는 설계가 더 현실적임.

③ 도시 전체를 물그릇으로 설계하는 전략 — 덴마크 · 싱가포르

- 덴마크 코펜하겐은 2011년 폭우로 약 60억 크로네의 피해를 입은 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폭우관리계획(Cloudburst Management Plan)을 수립함.
- 이 계획은 폭우 전용 도로와 저류 도로, 저류 지역, 녹색 도로, 하천 복원 등 약 300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총 약 120억 크로네를 투입하여 20~30년에 걸쳐 연 15개 내외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주목할 점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비용편익을 비교했다는 것임. 전통적 하수관 확장 방식은 200억 크로네를 투자하고도 40억 크로네 손실을 예상했지만, 지상 저류를 결합한 복합 방식은 130억 크로네 투자로 30억 크로네 순이익이 산출됨.
- 싱가포르 국가수자원청(PUB)은 2006년 ABC(Active, Beautiful, Clean) Waters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약 8,000㎞의 수로망과 17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천을 시민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함.
- 대표 사례인 칼랑강 복원(비산-앙모키오 공원)은 직선 콘크리트 수로를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면서 수자원 · 홍수 조절 · 생물 다양성 · 여가를 하나의 기반 시설로 융합하였고, 공원 전체를 범람원으로 설계하여 폭우 시 물을 받아들이도록 함.

※ 코펜하겐 사례의 교훈은 기술이 아니라 절차임. 어느 방식이 싼가를 먼저 계산해 지상 저류가 더 경제적임을 입증했기에 대규모 예산이 확보될 수 있었음. 세종시가 스마트 설비를 도입할 때도 생애주기비용 비교가 설득의 출발점이 됨.

④ 거대 인프라로 방어하는 전략 — 일본 도쿄

- 일본은 수도권외곽방수로(G-Cans)를 1993년부터 건설하여 2006년 완공하였음.
  - 지하 약 50m에 총연장 약 6.4km의 터널과 대형 조압수조를 두고, 초당 최대 200톤을 에도강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갖춤.
- 나카가와강과 아야세강 유역의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되나, 13년의 공사 기간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다른 도시가 그대로 따라 하기는 어려운 방식임.

※ 이 전략은 이미 고밀도로 개발되어 지상에 공간이 없는 도시의 선택지임.
아직 녹지가 남아 있는 세종시는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지상에서 물을 받을 공간을 확보하는 선택이 가능하며, 이는 계획도시가 가진 시간적 이점임.

국외 도시의 물관리 전략 비교

전략 유형	도시 · 국가	대표 내용과 수치	세종시에 주는 시사점
목표를 숫자로	미국 뉴욕	불투수면 10%의 초기우수 1인치(25.4㎜), 2010~2030	합산이 가능한 성과 단위를 먼저 정의
	미국 필라델피아	2011~ 25년 사업, 15년차 3,860 그린 에이커, 1,100여 개 사업, 연 30.8억 갤런 저감	매년 진척을 보고할 수 있는 지표 설계
공간을 되돌림	네덜란드	Room for the River — 제방 증고 대신 범람 공간 확보	막는 설계에서 잠겨도 되는 설계로
	독일 뮌헨	이자르 플랜 — 도심 콘크리트 제방 철거, 자갈밭 · 습지 복원	복원이 곧 시민 여가 공간 확보
도시를 물그릇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2011년 폭우 피해 60억 크로네 → 300개 사업, 120억 크로네, 20~30년	비용편익 비교로 예산 확보 논거 마련
	싱가포르	ABC Waters(2006~), 수로 8,000㎞ · 저수지 17개, 칼랑강 복원	치수 · 생태 · 여가를 분리하지 않고 설계
거대 인프라 방어	일본 도쿄	G-Cans — 지하 50m, 터널 6.4㎞, 초당 200톤 배수, 2006년 완공	지상 공간이 없을 때의 최후 선택지

※ 출처 : 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tform(연도 없음) The economics of managing heavy rains and stormwater in Copenhagen, Philadelphia Water Department(연도 없음) 15 Years of Green City Clean Waters, PUB Singapore(연도 없음) About ABC Waters, 송양호 외(2023)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 송양호 · 이자은(2025) 세종시 수변공간의 이 · 치수 조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 네 전략의 공통점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목표를 숫자로 못박고 그 숫자를 재는 체계를 함께 만들었다는 데 있음.
세종시의 시설 유형별 물순환 관리목표량(20.0~45.0㎜)도 같은 성격의 장치이며, 남은 과제는 이를 재고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일임.

라. 한 걸음 더 — 하수를 도시의 센서로

① 하수역학은 하수를 도시 건강의 진단 자료로 활용함.

- 하수역학(WBE, Wastewater-Based Epidemiology)이란 하수에 남은 물질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 생활 상태를 익명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함.
- 하수 신호는 임상 지표보다 수일 앞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감염병 조기경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② 이미 국제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0년 국가하수감시체계(NWSS)를 출범시켜 연방 · 주 · 지방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는 상시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회원국이 하수 감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권고를 채택하였고, 세계보건기구는 2024년 다중 병원체 하수 · 환경 감시 가이드를 발간하였음.

※ 다만 집수구역을 좁게 설정하면 특정 집단이 식별될 수 있어 낙인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발생함. 최소 해상도 기준, 데이터 익명화, 결과 공개 방식에 관한 원칙을 도입 이전에 마련하여야 함.

4 시사점·정리

가. 스마트 환경 서비스가 바꾸는 것

① 성과의 기준이 설계에서 운영으로 옮겨감.

- 계획도시는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담았는가로 평가했으나, 스마트 환경 서비스에서는 그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재고 있는가가 기준이 됨.

② 대응의 시점이 사후에서 사전으로 옮겨감.

- 2023년 세종시의 하천 피해 복구 금액(190.1억 원)이 피해 금액(113.3억 원)의 약 1.7배에 이른 것은 사후 복구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수치임.
- 홍수 취약성 지도와 영향한계강우량은 예산과 인력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배분할 수 있게 하여,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피해 저감효과를 얻게 함.

③ 협력의 단위가 부서에서 도시로 넓어짐.

- 5개 부서에 나뉜 물 업무는 데이터 형식을 통일할 때 비로소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연결됨.
- 빗물저금통 사례에서 보듯 행정만으로는 유지관리와 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대학 · 연구기관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지속가능성을 좌우함.

나. 세종시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스마트 환경 서비스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조건

유리한 점	불리한 점
계획도시로 조성되어 설계 의도와 시공 정보가 온전히 남아 있음	정규 관측 이력이 2020년부터로 짧아 시계열 자료가 부족함
단층제 자치단체로 계획 수립과 집행이 하나의 주체로 수렴함	물 업무가 5개 부서에 분산되어 자료 형식이 통일되지 않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기술 실증 기반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	도농복합 구조라 단일 처방이 통하지 않음
연구를 통해 모형과 지표 등 분석 역량이 축적되어 있음	분석에 넣을 실측자료가 부족하여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

다. 향후 과제

① 계측 기반 확충이 모든 것의 전제임.

- 관측 이력이 짧고 실측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모형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므로, 측정망 확충과 유량계 설치 의무화가 우선 과제임.
- 새올행정시스템 등 기존 행정자료의 현행화와 미등록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② 목표와 이를 재는 체계를 함께 만들어야 함.

- 뉴욕과 싱가포르의 사례가 보여주듯, 목표를 숫자로 명시하는 것과 그 숫자를 재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 묶음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세종시는 시설 유형별 물순환 관리목표량을 이미 산정하였으므로, 남은 과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와 같은 이행 절차와 성과 측정 체계를 갖추는 일임.

③ 제도와 조직이 기술을 뒷받침해야 함.

-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갖추어야 개별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축적됨.
- 지하수 인허가 연 1,500여 건을 담당자 1인이 처리하는 구조로는 스마트 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전담 조직 확충과 특별회계 구성이 필요함.

④ 시민이 데이터의 생산자가 되어야 함.

-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프로그램과 빗물 이용 지도 등 참여형 모니터링은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관측망의 빈틈을 메우는 수단이 됨.





생각해 보기

- 세종시는 설계 단계에서 저영향개발을 담은 계획도시이지만, 그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측자료는 2020년에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도 만들 때의 설계 기준은 있으나 지금 성능을 재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부터 재기 시작해야 할까요?
- 세종시 홍수 취약성 분석 결과 조치원읍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종촌동·보람동은 높은 불투수면과 낮은 지대라는 설계적 취약성이 두드러졌습니다. 한정된 방재 예산을 두 지역에 배분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 빗물저금통 조사에서 시민이 가장 원한 지원은 설치비(71.8%)가 아니라 정기 유지보수(76.9%)였습니다. 스마트 환경 서비스도 설비를 들이는 일보다 계속 작동시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세종시가 도입한 스마트 설비가 10년 뒤에도 살아 있게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학습목표

1.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주요 서비스와 공간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3. 시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사례와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세종시와 스마트시티 정책의 시작

① 행복도시 조성 배경

-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임.
-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행복도시는 중앙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 ·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 · 연구, 의료 · 복지, 첨단지식 기반 등의 기능을 배치하여 복합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함.
- 행복도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 기능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환상형 도시 구조를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도시 인프라와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있음.
- 이러한 계획도시의 특성은 도시 조성 단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 기반 시설과 연계하고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함.

행복도시 도시개념도



※ 출처 : KPA 행복도시 기획조정단. (2026). 세종 스마트서비스 리뷰 및 추진방향. p.5

② 계획도시 기반 스마트시티 특징

- 세종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연계한 대표적인 계획형 스마트도시임.
- 초기에는 도시시설물 관리, 교통, 방범 · 방재, 환경 등 도시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도시(U-City)[3] 기반을 구축함.
- 행복도시는 2011년 첨단도시정보화사업을 착수하고, 이후 도시통합정보센터와 교통 · 안전 · 환경 관련 스마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에는 기존의 기반 시설 중심 U-City에서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로 정책 범위를 확대함.
-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목표도 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함.
- 특히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고 이를 도시서비스에 활용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도시 플랫폼을 지향함.

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장

① U-City에서 스마트시티로의 정책 변화

- 초기 U-City 정책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둠.
- 이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됨.
-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는 개별 시설이나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교통 · 안전 · 환경 · 에너지 · 주거 등 여러 도시서비스를 서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함.
- 또한 공공기관 중심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시민과 민간기업 등이 도시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 · 참여형 방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시민은 리빙랩 등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도시 기반을 제공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해짐.
-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가보다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가가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음.

3) U-City(유비쿼터스 도시)
: 도시공간에 정보통신망과 센서 등을 구축하여 교통 · 방범 · 환경 등 도시정보를 수집하고 도시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시 모델임.

②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 정부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 · 접목하고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시범도시 정책을 추진함.
- 2018년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됨.
- 세종 5-1생활권은 기존 도시 기반이 없는 그린필드(Greenfield)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도시공간과 스마트서비스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뿐만 아니라 교통 · 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데이터 기반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5-1생활권 전체를 리빙랩(Living Lab)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실제 도시공간에서 적용 ·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지향함.
- 기존 도시에 스마트 기술을 추가하는 방식과 달리 계획 · 설계 · 건설 단계부터 도시공간과 스마트서비스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국가시범도시의 중요한 특징임.

2 추진 내용

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체계

① 국가시범도시 추진 방향

- 시민 행복과 혁신을 위한 미래도시
  -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시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지향함.
  - 탈물질주의, 탈중앙화,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도시공간과 서비스에 구현하고자 함.
  -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 일자리, 에너지 · 환경, 거버넌스, 문화 · 쇼핑, 안전 · 생활 등 7대 혁신 요소를 중심으로 도시서비스를 계획함.
  - 인공지능(AI), 데이터허브,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7대 혁신 요소를 지원하는 도시 기반을 구축함.
  - 도시 전체를 하나의 리빙랩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기업 등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도시공간에서 실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개별 기술을 실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 혁신 서비스와 새로운 산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함.



세종 국가시범도시 가치와 7대 혁신 요소



※ 출처 : KPA 행복도시 기획조정단. (2026). 세종 스마트서비스 리뷰 및 추진방향. p.11

- 국가시범도시 추진 연혁
  - 정부는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세종 5-1생활권을 국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함.
  - 2018년 국가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선정하고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함.
  - 2018년 기본구상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7대 혁신 요소 중심의 도시계획을 마련함.
  - 2019년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과 실시계획을 수립함.
  - 2020년 민간사업자(SPC) 공모와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함.
  - 2022년 세종 국가시범도시 민 · 관 사업법인(SPC)을 설립함.
  -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사업 추진체계를 구체화함.
  - 2025년에는 스마트도시 계획과 서비스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함.
  - 2026년에는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선도지구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18	국가시범도시 지정
2018	기본구상 및 시행계획 수립
2019	서비스 로드맵 수립
2020	SPC 공모 및 부지 조성 공사
2022	SPC 설립
2024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추진체계 구체화
2025	스마트도시 계획 및 서비스 계획 구체화
2026	실시계획 승인 및 선도지구 조성 추진

② 국가시범도시 공간구조와 도시계획

- Greenfield 기반 미래도시 조성
  -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기존 도시 기반이 없는 Greenfield(백지상태)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 중임.
  - 기존 도시 구조의 제약 없이 미래형 도시공간과 교통체계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행복도시 북동측 금강 · 미호강 합류부 일원에 약 274만㎡ 규모로 조성 중임.
  - 계획인구는 약 2만 2천 명 규모이며, 주거와 미래 산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시를 목표로 함.
  - 인근 대학 · 산학연 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 · 실증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함.
  - 신규 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도로 · 건축물 등 물리적 공간과 스마트서비스를 별도로 계획하지 않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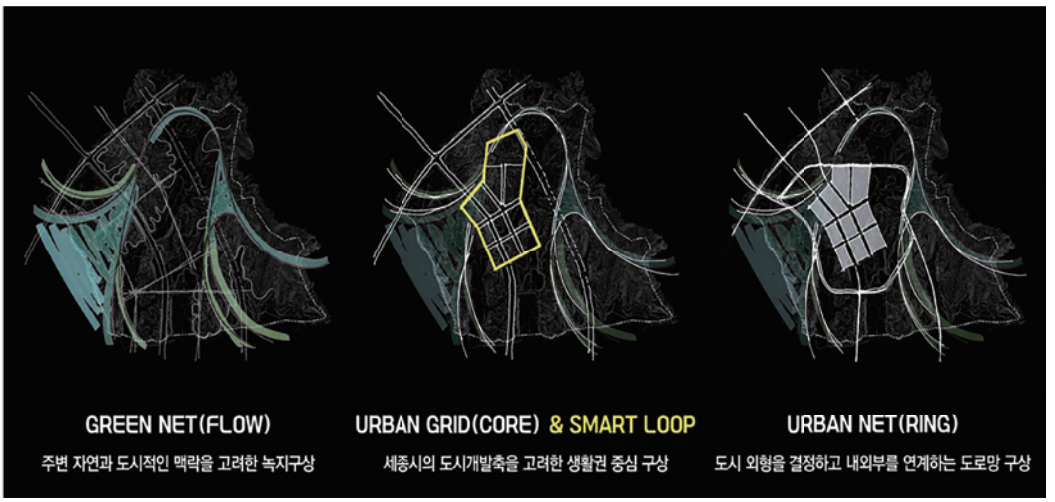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5-1생활권 대상지



※ 출처 : 국토부, 스마트시티종합포털-국가시범도시 조성, https://smartcity.go.kr/ko/pages/nationalPilotCities (검색일: 2026. 7. 17.)

- 공간계획 핵심 개념
  - GREEN NET은 도시 내부와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 개념으로, 자연환경과 도시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URBAN GRID는 생활권 중심축과 주요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 도시 구조 개념으로, 주거 · 업무 · 상업 등 다양한 활동이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
  - SMART LOOP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생활권의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체계를 의미함.
  -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유차량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하여 소유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 · 공유교통 중심의 이동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함.
  - BRT 등 대중교통과 보행을 도시 이동 체계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보행 · 자전거 · 개인형 이동 수단(PM)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가로환경을 계획함.
  -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노면 정보 등 보행 안전 서비스를 함께 적용하여 미래 모빌리티의 편의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함.

국가시범도시 공간계획 개념



※ 출처 : KPA 행복도시 기획조정단. (2026). 세종 스마트서비스 리뷰 및 추진방향. p.13

나. 세종 국가시범도시 핵심 서비스

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 미래형 이동서비스 구축

-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자율주행과 공유 기반 이동 서비스를 활용한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함.
- 대중교통, 차량공유, 개인형 이동 수단(PM),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합 연계하는 통합 모빌리티(MaaS)[4] 기반 구축을 추진함.
- 5-1생활권 내부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보행 중심 공간에서 끊김이 없는 이동을 지원하고, 생활권 외부에서는 BRT와 시내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것을 지향함.
- 통합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이동 정보와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검색 · 예약 · 결제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추진함.
- 자율주행 셔틀과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생활권 내부의 세밀한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BRT 등 간선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스마트 주차와 차량공유, 개인형 이동 수단 등을 함께 연계하여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함.
-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정보, C-ITS 등 교통안전 · 운영 서비스도 함께 연계하여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4) MaaS(Mobility as a Service)
: 대중교통 · 공유 차량 · 개인형 이동 수단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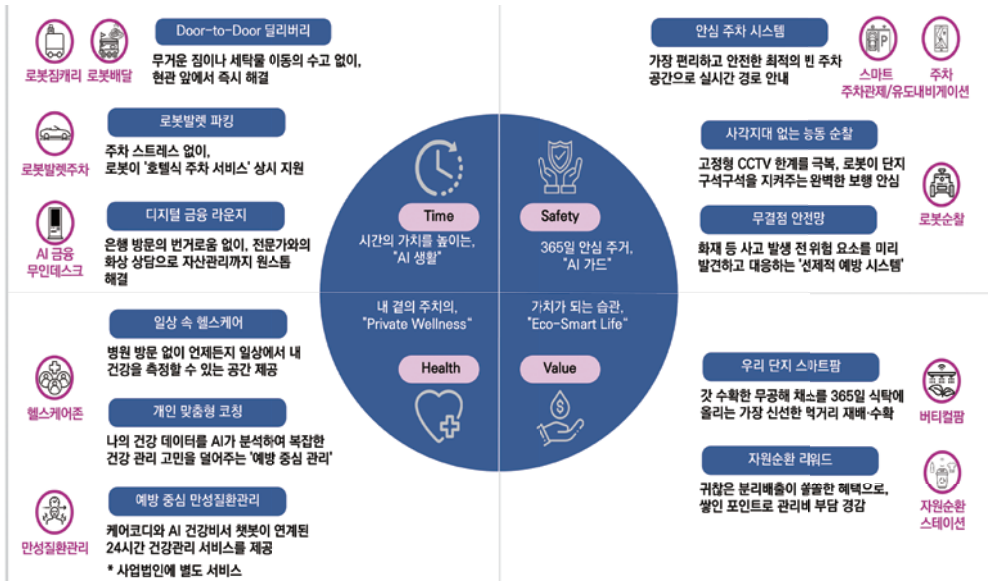
※ 출처 :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p.14

② 생활혁신 스마트서비스

-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첨단기술 자체보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구현을 추진함.
- 2026년 선도지구 계획에서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스마트팜, 스마트홈 · 타운, 미래금융, 스마트 자원순환, 짐캐리, 로봇 보안 등 생활 혁신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음.
- 스마트홈 · 타운은 주거 공간의 출입 · 보안 · 에너지 · 가전 제어 등과 단지 내 주차 · 커뮤니티 · 생활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이 하나의 생활환경에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추진함.
- 로봇 배송과 로봇 순찰, 짐캐리, 로봇 발렛 등 로봇 기술을 생활공간에 적용하여 시민 편의와 도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 도입을 계획함.
- 헬스케어, 스마트팜, 자원순환 등의 서비스를 주거 및 생활공간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의 적용 범위를 교통과 도시 관리에서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함.
- 이러한 생활 혁신 서비스는 시민의 실제 이용과 운영 성과를 확인하면서 개선 ·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생활혁신 서비스



※ 출처 :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p.21

3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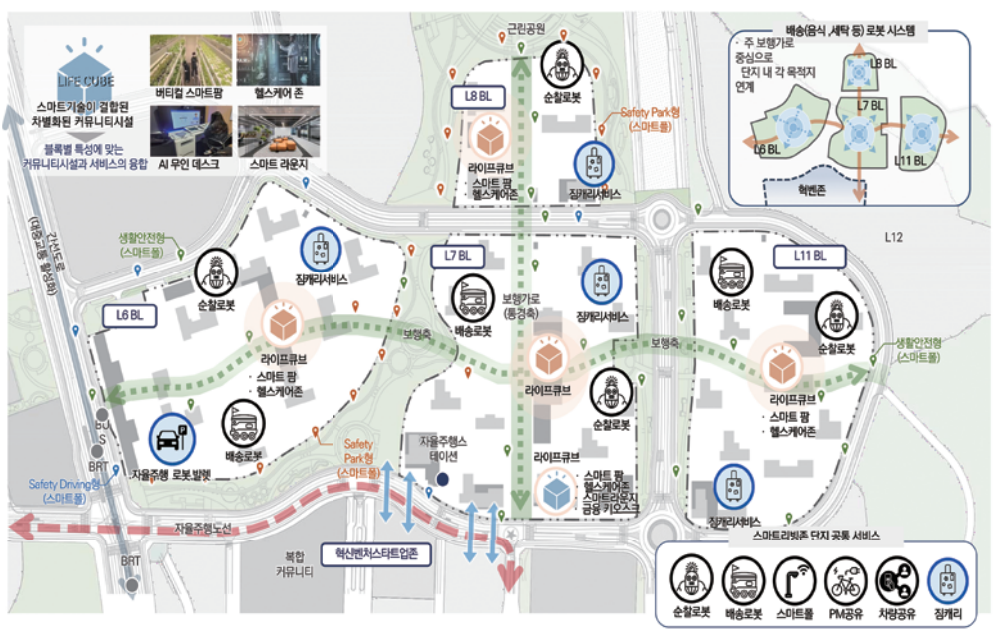
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적용 사례

① 스마트리빙존(L-Zone) 구축 사례

- 주거 중심 스마트서비스 구현

-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스마트리빙존(L-Zone) 조성을 추진함.
- 스마트리빙존은 주거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 건강, 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연계하는 생활공간으로 계획됨.
- 스마트홈 · 타운, 스마트 주차, 차량공유, 개인형 이동 수단(PM), 로봇 배송, 스마트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공동주택 세대에서는 스마트 월패드와 홈 IoT, 공기질 모니터링, 가전 제어, 홈 시큐리티 등을 적용하고, 단지에서는 로봇 배송과 로봇 순찰, 자원순환 등의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임.
- 지하공간에서는 스마트 주차 관제 · 유도와 차량공유, 로봇 발렛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거 공간과 이동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함.
- 스마트리빙존은 개별 기술을 단순히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스마트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선도 공간이라는 데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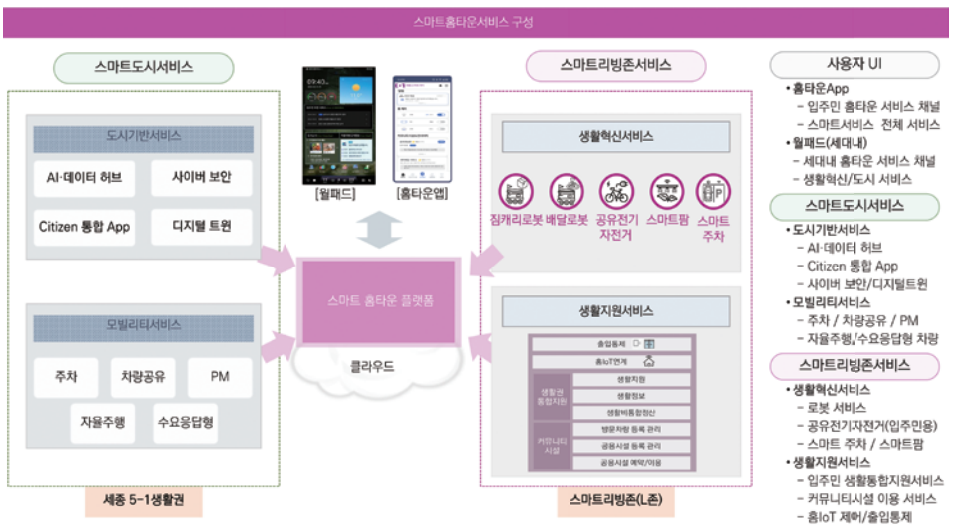
스마트리빙존(L존) 스마트서비스 구현도



※ 출처 :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p.6

- 스마트홈타운 플랫폼 구축
  - 스마트홈과 스마트타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
  - 스마트폰 앱이나 월패드 등을 활용하여 출입, 주차, 에너지, 가전 제어, 생활 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세대 내부의 스마트홈 서비스와 공동주택 단지 서비스뿐 아니라 국가시범도시의 모빌리티 및 생활 혁신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지향함.
  - 이를 통해 집 안에서 시작되는 스마트서비스가 공동주택 단지와 도시공간까지 연결되는 생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스마트홈타운 플랫폼



※ 출처 :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p.22

② 미래형 모빌리티 구축 사례(통합 모빌리티(MaaS) 서비스)

- 통합 이동 서비스 구축
  - 대중교통, 차량공유, 개인형 이동 수단(PM),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을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연계함.
  - 이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적절한 이동 수단을 검색하고 예약 · 결제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을 추진함.
  - 5-1생활권 내부의 이동 서비스와 BRT · 시내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생활권 안팎의 이동이 단절되지 않는 체계를 지향함.
  - 다양한 이동 수단을 연계하여 승용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승용차 의존과 불필요한 차량 이동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 5-1생활권에는 중속 및 저속 수요대응형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중속 자율주행 셔틀은 생활권 주요 거점과 BRT 등 대중교통 거점을 연결하고, 저속 자율주행 셔틀은 생활권 내부의 단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함.
  -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BRT와 연계하여 간선 대중교통과 생활권 내부 이동 서비스 간 환승 편의를 높이는 것을 지향함.
  - 향후 실제 이용 수요와 기술 수준, 안전성 등을 검증하면서 서비스 범위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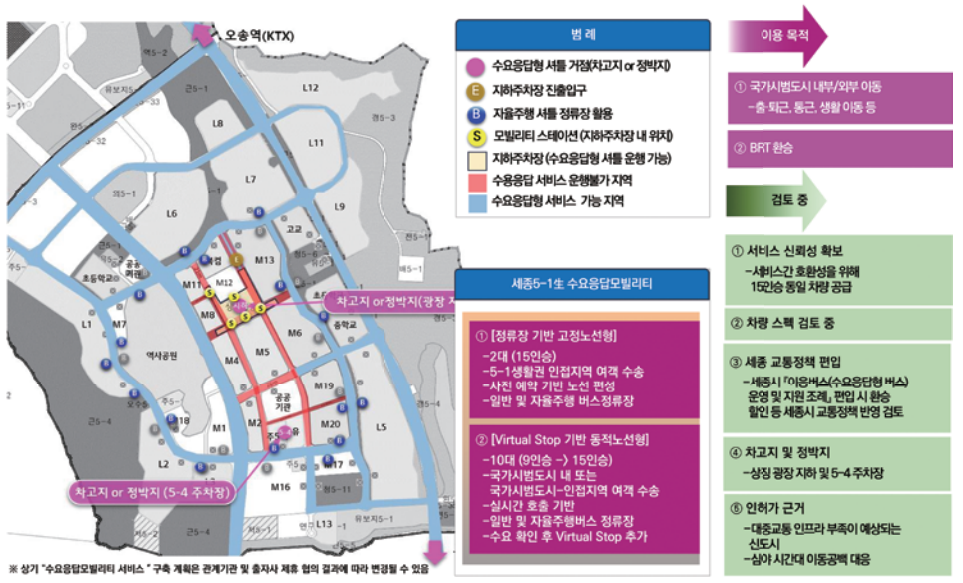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체계



※ 출처 :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p.17

- 수요응답형 교통(DRT)
  - 수요응답형 교통은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방식과 달리 이용자의 호출과 이동 수요에 따라 운행경로와 배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서비스임.
  -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생활권 내부의 이동수요에 대응하고 BRT 등 주요 대중교통 거점과의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도입을 계획함.
  - 고정 노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대와 지역의 이동 수요를 보완하여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DRT는 기존 간선 대중교통을 대체하기보다 BRT와 시내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 운영체계



※ 출처 :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p.18

③ 생활 혁신 서비스 구축 사례(시민 체감형 서비스 운영)

- 건강 · 생활 서비스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건강 정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계획함.
  - 스마트리빙존 등에 헬스케어존을 조성하여 시민이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건강 정보와 상담 · 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지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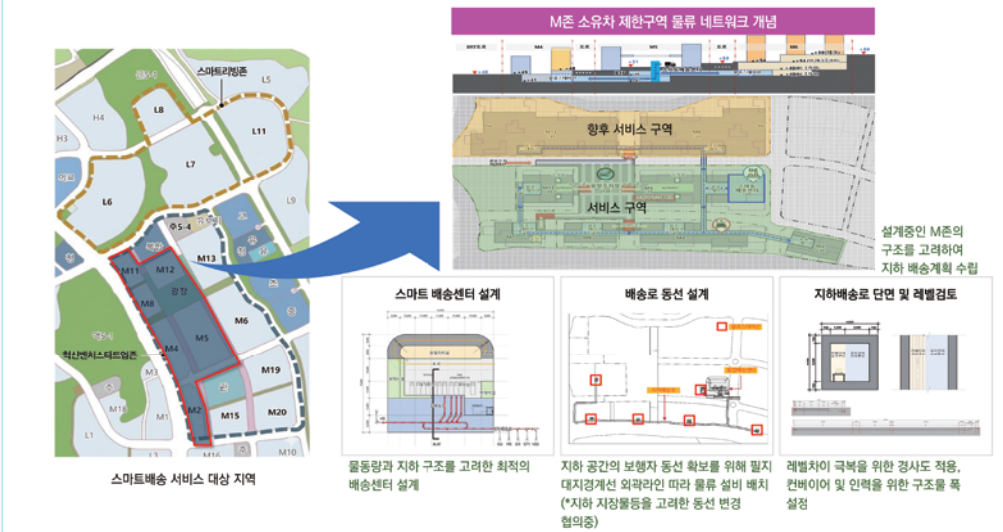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체계



※ 출처 :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p.34

- 스마트 물류 및 로봇 서비스
  - 스마트 통합배송과 로봇배송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생활공간의 물류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임.
  - 로봇 짐캐리, 로봇 순찰, 자율주행 로봇 발렛 등 다양한 로봇 서비스 도입을 계획함.
  - 반복적인 배송 · 운반 · 순찰 · 주차 업무에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로봇 서비스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이동 동선, 시설물과의 연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배송서비스 네트워크 개념



※ 출처 :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p.23

- 스마트팜 및 자원순환 서비스
  - 버티컬팜 등 도시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작물 생산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스마트농업을 체험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자원순환 스테이션 등을 구축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계획함.
  -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적용 영역을 교통 · 주거뿐 아니라 환경과 자원순환 등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함.

스마트 팜 서비스 설계체계



스마트팜 위치 (L존)



※ 위 조감도는 생성형AI로 생성된 이미지로, 추후 설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p.25

4 시사점·정리

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정책적 의미

①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

- 인프라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정책

- 초기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망과 센서, 통합정보센터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국가시범도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교통 · 주거 · 건강 · 환경 · 물류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스마트서비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도시 전체를 리빙랩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를 지향함.
-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성과는 첨단기술이나 서비스의 도입 개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는 서비스 이용률과 시민 만족도,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안전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② 미래도시 실증 플랫폼 역할

- 국가대표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정책

-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새로운 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도시공간에서 시험하고 검증하는 국가대표 테스트베드라는 성격이 있음.
-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수요응답형 교통, AI · 데이터허브, 디지털트윈, 로봇 등 미래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Greenfield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간구조와 도시서비스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함께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음.
- 시민 · 기업 ·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를 실증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국가시범도시에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향후 세종시의 기존 생활권과 국내 다른 도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③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발전 방향

-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확대 정책

-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은 개별 스마트서비스를 서로 연결하고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스마트시티의 핵심 기반임.
- 교통 · 환경 · 안전 ·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연계하고 AI · 데이터허브와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하여 도시 상황을 분석 · 예측하는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데이터는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시정책과 서비스 운영, 의사결정에 활용될 때 정책적 가치가 발생함.
- 또한 국가시범도시에서 계획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증뿐 아니라 운영 주체, 유지관리, 재원 조달, 시민 이용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특히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를 기존 생활권으로 확대하면, 기존 도시 인프라와 정보시스템, 대중교통체계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정책적 가치는 하나의 첨단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실증 · 검증하여 세종시 전체와 다른 도시로 확산할 수 있는 미래도시 운영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있음.





생각해 보기

-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일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일까?
-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이 확대되면 우리의 도시 생활과 이동방식은 어떻게 변화할까?
-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 실증된 서비스를 기존 생활권으로 확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리빙존(L-Zone) #자율주행 #통합모빌리티(MaaS) #수요응답형 교통(DRT)
#생활혁신서비스 #디지털트윈 #리빙랩(Living Lab)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 (202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2. 송양호, 변성수. (2024). 세종시 지방하천 관리 필요성과 방향 검토. 대전세종연구원.
3. 송양호, 안용준, 이자은. (2023). 세종시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중점과제 발굴. 대전세종연구원.
4. 송양호, 안용준, 이자은. (2025). 빗물저금통 보급 · 확산을 위한 대학-연구기관-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효과 분석 연구. 세종연구원.
5. 송양호, 안용준. (2025). 세종시 홍수 취약성 평가 연구: H-T-L 프레임워크 기반 미시적 취약성 분석. 세종연구원.
6. 송양호, 이자은, 박윤경. (2023). 세종시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7. 송양호, 이자은, 서환석. (2024). 세종시 농촌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8. 송양호, 이자은. (2024). 세종시 물 안심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9. 송양호, 이자은. (2025). 세종시 수변공간의 이 · 치수 조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연구: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원.
10. 세종스마트시티. (2026).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서비스 설명자료.
11.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 총괄계획단. (2019). 2018-2019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백서.
12. 세종특별자치시. (연도 없음).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란?. 세종특별자치시청. https://www.sejong.go.kr/kor/sub04_1405.do (검색일 : 2026. 8. 8.)
13.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2026. 8. 2.). 국가시범도시 조성 - 세종 5-1생활권. https://smartcity.go.kr/ko
14. 워터저널. (2023). 스마트워터시티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 https://www.waterjournal.co.kr
15. 전자신문. (2021. 7. 7.). 환경부, 하수도 스마트화 위해 4년간 2230억원 투입. https://www.etnews.com/20210707000150
16. 통계청. (2024).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현황 소개. 통계의 창. https://shi.kostat.go.kr
17.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2016).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18. 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tform Climate-ADAPT. (연도 없음). The economics of managing heavy rains and stormwater in Copenhagen — The Cloudburst Management Plan. https://climate-adapt.eea.europa.eu (검색일 : 2026. 8. 8.)

19 European Commission. (2021). Commission Recommendation (EU) 2021/472 on a common approach to establish a systematic surveillance of SARS-CoV-2 and its variants in wastewaters in the EU.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98, 3–7.

20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2026). 세종 스마트서비스 리뷰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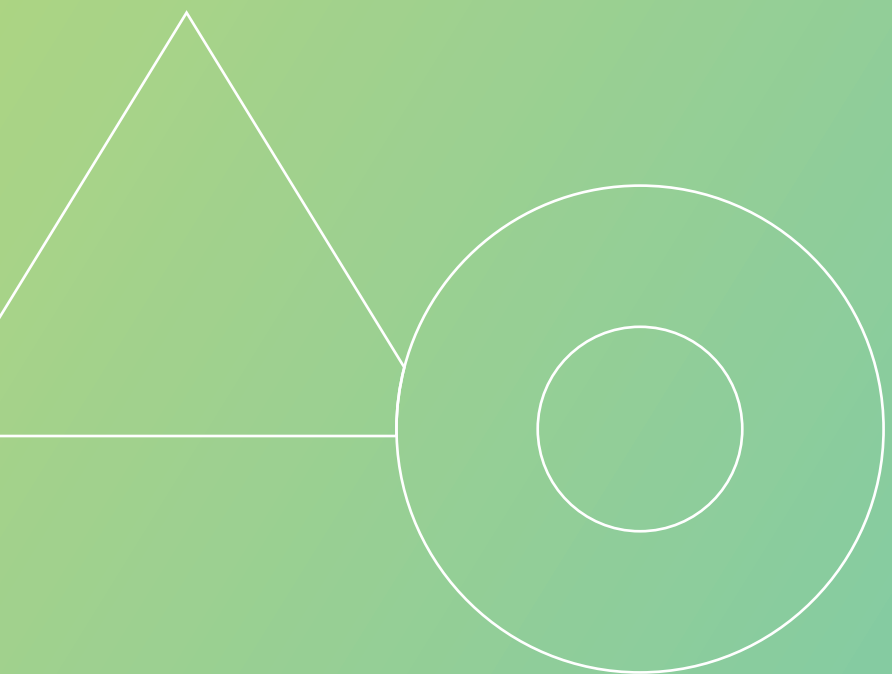
21 Philadelphia Water Department. (연도 없음). 15 Years of Green City, Clean Waters. https://water.phila.gov (검색일 : 2026. 8. 8.)

22 PUB Singapore. (연도 없음). About ABC Waters. https://www.pub.gov.sg (검색일 : 2026. 8. 8.)

2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 Wastewater and environmental surveillance for one or more pathogens: guidance on prioritization, implementation and integration. WHO.

24 国土交通省 関東地方整備局 江戸川河川事務所. (연도 없음). 首都圏外郭放水路. https://www.ktr.mlit.go.jp (검색일 : 2026. 8. 8.)

04 PART



정원·생태도시 세종

4-1 중앙 녹지공간과 녹지체계

4-2 금강 수변 생태 활용

중앙 녹지공간과 녹지체계

학습목표

1. 중앙 녹지공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상징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이용 통계 · 시민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공원을 위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정원 · 생태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① 정원 · 생태도시의 탄생 배경

- 영국의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었지만, 동시에 도시의 인구 밀집, 극심한 환경문제, 도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킴.
- 우리 도시는 극심한 과밀화, 열악한 주거환경, 자연환경 오염을 극복해야 모두가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음.

※ 극단적인 사건으로 '런던 스모그'는 3주 동안 4천 명이 사망하고, 이후 만성 질환으로 8천 명이 추가 사망하였음. 게다가 가축들이 질식사하고 도심의 식물도 죽고 건축물도 부식됨.

② 정원도시

- 19세기 정원도시(Garden City) 개념은 산업화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고안한 개념임.
- 영국의 하워드(Ebenezer Howard)는 '정원도시(또는 전원도시)'를 제안하였는데, 그는 대도시를 벗어난 곳에 인구 3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가 이상적이라 함.
- 하워드의 정원도시 개념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 레드번(Radburn), 호주 캔버라(Canberra), 우리나라 1기 신도시 등 전 세계에서 실현되었음.

③ 현대의 정원도시

- 현대에도 정원도시는 여전히 중요한 개념임.
- '정원'에 담긴 '자연', '관심과 돌봄', '문화와 예술'의 의미를 도시에 덧입혀 사람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살도록 함. 이를 통해 도시는 지속 가능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음.

④ 생태도시

- 생태계(Eco-system)란 인간을 포함한 생물, 비생물적 물질이 함께 순환하는 관계를 말함.
- '생태도시(Eco City)'는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공간구조가 자연 생태계의 속성(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에 가깝게 계획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임.
- 생태도시를 계획할 때는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미래 세대의 생명과 지속성을 고려해야 함.

좌) Garden City 개념도, 우) Canberra 정원도시 전경







※ 출처 : 좌) Howard, E.. (1898). Tomorrow : A Peaceful to Real Reform.
https://en.wikipedia.org/wiki/Garden_Cities_of_To-morrow#/media/File:Diagram_No.2_(Howard,_Ebenezer,_To-morrow.).jpg
https://www.europan-europe.eu/media/default/0001/25/033a6bf83ef2ae9f4de790c80c5e57ace7d2270b.jpg
우) Alamy. (연도 미상). 캔버라 의회지구와 벌리 그리필 호수 전경(BBYGHP).
https://www.gardencitiesinstitute.com/resources/garden-cities/canberra



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누가 그렸나?

- 국토 발전의 획을 바꾼 국가적 프로젝트

•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새 도읍을 정하려고 네 지역을 살핀 후 한양에 도읍을 정함. 그로부터 한양 600년의 역사가 시작됨.

※ 풍수지리상 명당 찾기는 정치 · 경제 · 지리를 종합적으로 살핀 것으로 당시의 과학적 입지 선정법.

• 2003년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을 발족함. 이로부터 9년 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출범함.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됨.

• 이처럼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된 대형 국가 프로젝트임.

세종시 출범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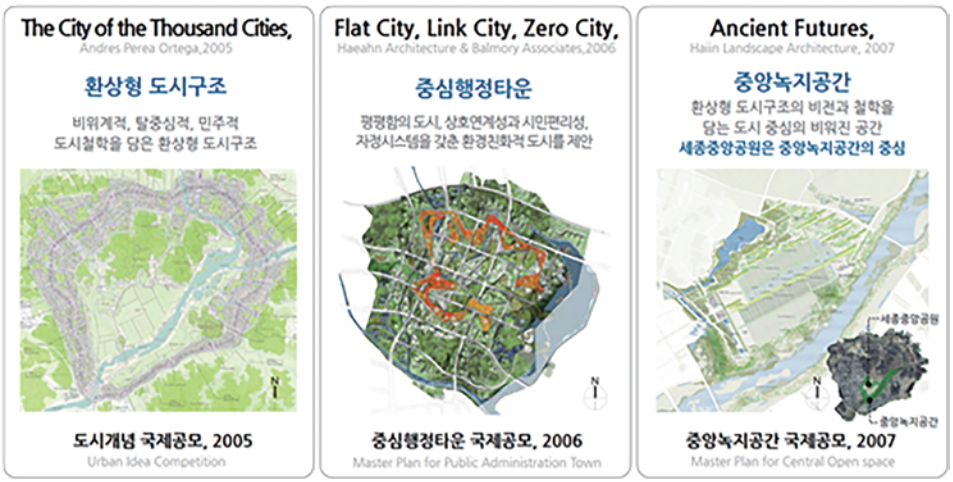
시대	내용
1970년대	**박정희 정부 : 안보 및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임시행정수도'** - 1971년 :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대전으로의 수도 이전을 최초로 공약. - 1977년~1978년 :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수도권 인구 분산과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피하는 방안으로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을 공식 발표. 충청권 일대가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으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사실상 백지화됨.
2000년대	**참여정부 : '신행정수도' 추진 및 위헌 결정** - 2002년 :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 - 2003년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2004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현재의 세종시)가 최종 입지로 확정. - 2004년 7월 :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 이에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전면 중단.
2010년대	**세종시 출범 및 실질적 행정수도화** - 2005년~2010년대 :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된 형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었고,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순차적으로 이전. - 현재 및 향후 과제 :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전도 계획.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되어, 관련 사업들이 차례로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

2 추진 내용

가.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의 도시

- 세 번의 국제공모를 통해 기존의 격자형 도시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도시 구조를 구상함.
  -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그리는 상상력을 공모한 '도시 개념 국제공모(2005년)', 탈중심적 환상형 도시 구조를 그린 계획안이 당선됨.
  - 국가 운영의 핵심이 되는 행정 공간을 그리는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2007년)', 상호 유기적 연결을 그린 계획안이 당선됨.
  -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그리는 '중앙녹지공간 국제공모(2007년)', 금강과 장단평야를 살려 도시 중심의 비워진 공간을 그린 계획안이 당선됨.

국제공모 당선작 마스터플랜 (왼쪽부터 도시개념, 중심행정타운, 중앙녹지공간)



※ 출처 : 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 p.10.
중) Balmori Associates · H Associates · Haeahn Architecture. (2007).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 Master Plan for Public Administration Town. https://www.balmori.com/portfolio/new-government-city
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작품집, Ancient Futures(1등작).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https://library.krihs.re.kr/library/10190/contents/5912154

나. 도시의 심장이 된 중앙녹지

① 중앙녹지공간의 상징성

- 국제 현상공모에 25개국 92개 작품이 출품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받음, 당선작은 조경설계 해인의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s)'
- 도시 한가운데에 건물의 마천루가 아닌 녹지로 열린 공간을 담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음.
- 이것은 비위계적, 탈중심적으로 도시 철학을 바꾸는 일이었으며, 도시경관을 수직에서 수평적 틀로 보게 만든 도시계획의 혁신적인 사건이 됨.

② 중앙녹지공간의 비전

- 서구로부터 시작된 전통적 공원의 형식을 재구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고유의 인문 특성과 경관, 자연을 담는 공원상을 완성함.
- 환상형의 도시 개념, '제약이 없는 도시, 자연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도시' : 이용이 가능하며 시민이 공공공간의 주인이 되는 도시의 철학을 현실화 함.
- 제방 후퇴 등의 역개발 전략을 통한 세계적인 국토개발 ·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함.
- '생산의 대지 프로그램'을 통한 공원이용과 새롭게 형성될 도시공동체의 교류를 촉진함.
- '도시 중심에 펼쳐지는 거대한 수평경관'을 통해 도시 경계로부터 평등하고 열린 경관을 제공함.
- '그린 인프라 스트럭춰'를 통해 공원이 도시계획과 도시환경의 중추가 되는 역할을 담당함.

③ 도시 상징 문화경관 연결 체계

- 중앙녹지공간은 도시 상징 문화경관과 도시공원 프로그램의 연결을 이룸.
- 중앙녹지공간은 기본계획 · 설계 단계를 거치며 현재의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국립박물관단지, 금강수변으로 구체화함.

중앙녹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오래된 미래'



도시상징의 연결 체계



※ 출처 : (좌)조경설계 해인. (연도 없음). 중앙녹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오래된 미래'. 당선작 설명자료집 p.6
(우)조경설계 해인. (연도 없음). 도시상징의 연결 체계. 당선작 설명자료집 p.56

다.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된 공원

-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
  - 중앙녹지공간은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1 · 2단계),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변으로 나뉘어 조성 · 운영되고 있음.
  - 2020년대 들어 개장된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은 세종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임.

※ 세종중앙공원은 1 ·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단계가 먼저 개장됨.

  - 세종호수공원의 주요 시설은 호수와 섬으로, 수상무대섬, 축제섬, 물놀이섬, 풀꽃섬, 습지섬이 있고, 분수 감상, 물놀이(여름), 전통썰매(겨울), 정원감상, 문화 행사 등이 이루어짐.
  - 세종중앙공원(1단계)의 주요 시설은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이 있는데, 복합 체육시설이 스포츠 활동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예술숲, 도시 축제 마당, 어울림정원, 가족여가숲, 장남뜰(2단계)이 있어 다양한 체육활동, 휴식, 피크닉, 문화 행사 참여가 이루어짐.
  - 세종중앙공원은 세종시에서 벌어지는 대형 행사가 열리는 첫 번째 장소로,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이 예정되어 있고, 세종축제, 낙화축제가 열리며, 인근 이응다리와 금강에서는 세종 빛 축제, 금강 청소년 축제를 연계 행사로 진행함.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 개요

구분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
주소	세종시 세종동 1201	세종시 세종동 1204
면적	697,246㎡ (수공간 322,800㎡)	(1단계) 525,379㎡, (2단계) 868,892㎡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문화공원

※ 출처 : 세종시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알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중앙공원 1단계 준공 모습(2021)



공원에서 열리는 축제 모습



※ 출처 : 좌) 세종특별자치시. (2021). 중앙공원 1단계 준공 모습. https://blog.naver.com/la_korea/222173102376
우) 굿모닝충청. (2022). 세종의 10번째 생일, 2만 5천 명 인파 몰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096
; 뉴시스. (2022). 세종시 희망의 불꽃 '낙화놀이 다시 재개'.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21013_0002046405

3 적용·사례

가. 시민이 사랑한 공원

① 시민 활용 현황

- 이용자 통계를 분석 결과, 2023년 이용객은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됨.

※ 세종시설공단이 국내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산한 자료

- 계절별 방문객은 활동하기 좋은 봄과 가을에 많았으며 여름 · 겨울에는 줄었음.
- 외지인 방문은 140만명 으로 전체 이용객 대비 비율은 41%이며 대부분 세종시 인근 대전(50.8%), 청주(30.2%), 공주(4.6%) 지역에서 방문함.
- 계절별 특성 분석 결과 10월에 이용객 수가 39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내 다양한 지역에 분포도를 보이고 있음. 분포도 상으로 세종중앙공원(1단계)보다 세종호수공원의 이용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계절별 이용객 추이 변화는 세종중앙공원(1단계)이 더 큼.
- 가장 많이 방문한 10월의 이용객의 시간대 분석 결과 오후 시간대(13~18시)에 많이 방문함.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이용객 특성(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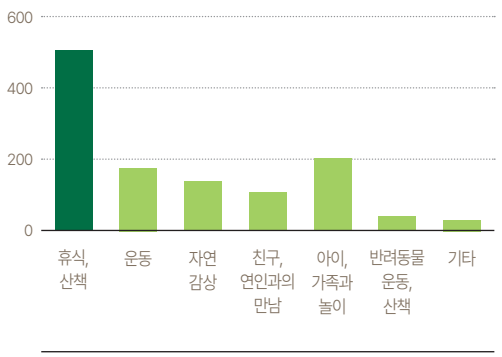


※ 출처 : 대전세종연구원. (2024). 세종호수공원 · 중앙공원 발전방안 설정을 위한 활용 현황과 서비스 평가 연구. p.81.
https://www.sri.re.kr/dms/contents/dms/header/01/content.01.51.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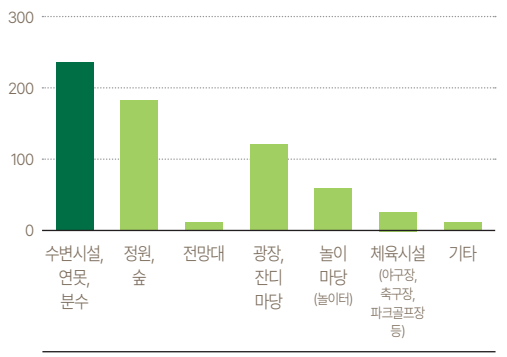
② 시민 만족도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592명의 만족도를 평가함.
- 방문의 주요 목적은 휴식, 산책이 가장 높았으며(응답 수 496, 45.6%), 가족과의 휴식이나 놀이(응답 수 187, 8.0%), 운동의 목적(응답 수 168, 15.4%)이 다음 순위로 나타남.
- 공원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오래 머무는 '공간'은 수변시설이며(응답 수 227. 38.3%), 정원과 숲(응답 수 168, 28.4%), 광장이나 잔디마당(응답 수 113, 19.1%)이 뒤를 이음.
- 가장 큰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녹지공간(그늘)이 가장 많이 꼽음(응답 수 334,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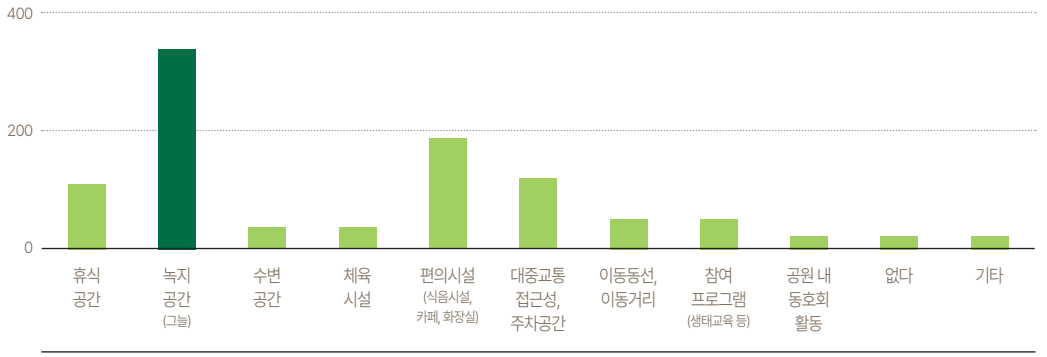
방문 목적(2024)



선호하는 공간(2024)



개선이 필요한 부분(2024)



※ 출처 : 대전세종연구원. (2024). 세종호수공원 · 중앙공원 발전방안 설정을 위한 활용 현황과 서비스 평가 연구. p.89.
https://www.sri.re.kr/dms/contents/dms/header/01/content.01.51.motion

나. 시민의 생활이 된 공원

① 공원의 공간 구성

- 공원은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한 대형 공원으로 각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음.
-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공원시설은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도시농업 시설, 재난관리시설이며,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1단계)은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위) 세종호수공원 공간 / (아래) 세종중앙공원(1단계) 공간



※ 출처 : 대전세종연구원. (2024). 세종호수공원 · 중앙공원 발전방안 설정을 위한 활용 현황과 서비스 평가 연구. p.97~98.
(원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공원관리사업소 홈페이지, https://www.sjfmc.or.kr/sjpark/sub01_02_01.do)

② 우리가 만들어 갈 공원

- 세종중앙공원(2단계)은 2031년을 목표로 재착수하여 오색경관 숲, 도시축제정원, 도시생태숲, 공생의 들 등의 시설을 구상함.
- 생태문화 공간으로 설계하고, 금강과 장남뜰의 생태 역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구역과 국립박물관단지와 연계하여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예정임.

4 시사점·정리

가. 중앙녹지공간의 정책적 의의 종합

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형 도시 철학의 성공적 실현

- 수평적 · 탈중심적 도시경관의 완성 : 도시 중앙부를 녹지공간으로 비운 것은 비위계적이고 평등한 민주주의 철학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세계적 혁신 사례임.
- 지속 가능한 정원 · 생태도시의 롤모델 : 19세기 하워드의 정원도시 개념과 친환경 생태도시의 속성(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② 중부권 대표 광역 문화 · 휴양 거점으로의 도약

- 높은 시민 활용도와 광역적 유인력 : 약 350만 명의 이용객 중 41%(약 140만 명)가 대전, 청주, 공주 등 외지인으로 나타나, 세종시 공원이 지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함.
- 도시 상징 문화경관의 유기적 연계 :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박물관단지, 금강 수변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로 하나로 연결되어 사계절 문화축제와 시민 교류를 촉진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함.
- 국가상징구역 및 글로벌 중심 공간으로 도약 : 향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세종집무실이 들어서 대한민국 국가 상징물로 자리할 예정임.

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① 데이터 기반의 시민 체감형 공원 서비스 개선

- 시민 여가 욕구에 부합하는 공간 유지관리: 시민 편의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수변시설(38.3%)'과 '정원 및 숲(28.4%)'이, 방문 목적으로 '휴식과 산책(45.6%)'이 꼽힌 만큼, 정적인 힐링 환경과 친수 공간의 청결 ·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함.
- 기후 환경 변화 대응 및 녹지공간(그늘) 확충 :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녹지공간 및 그늘 부족(35.5%)'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름철 방문객 감소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됨.
  교목 식재 확대를 통한 자연 그늘 조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스마트 그늘막, 쿨링포그(Cooling fog), 파고라 등 인공 그늘과 기후 쉼터 시설을 적극 도입하는 유연한 행정 대응이 필요함.

② 세종중앙공원 2단계 및 수변 생태벨트의 성공적 완수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문화 공간 조성 : 2031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2단계(장남뜰, 도시생태숲 등)는 단순한 휴양 공원을 넘어, 금강 평야의 농업 · 생태 역사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유기체적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 국가적 이벤트와 연계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 개최 등 예정된 대형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 문화 시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원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철학을 실현해야 함.
- 국정 핵심 기관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국가상징 도심공원' 위상 확립: 향후 완성될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세종집무실 등 '국가상징구역' 및 국립박물관단지와 중앙녹지공간이 하나의 경계 없는 공간으로 조화롭게 연계되어야 함. 이는 미국의 워싱턴 내셔널 몰이나 영국의 하이드 파크처럼,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중심지라는 엄숙함과 시민들의 일상적 힐링 · 문화 예술 활동이 공존하는 가장 명예롭고 민주적인 국가적 랜드마크 공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의미함.
-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모델 구현: 중앙녹지공간 완성은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형 행정수도의 완성을 뜻함. 도심 한가운데의 거대한 수평 녹지와 금강 수변 생태축이 강력한 카본 싱크(Carbon Sink, 탄소 흡수원)이자 도시의 바람길 · 생태 거점이 되도록 관리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의 글로벌 선도모델이 되어야 함.



생각해 보기

- 세종시 중앙녹지공간은 도시 중심을 비워 모두에게 평등한 '수평적 경관' 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 모든 시민이 소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원은 어떤 모습일까? 운영·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 2031년 완성될 세종중앙공원 2단계에는 원래 이곳에 있던 넓은 논인 '장남뜰' 을 없애지 않고 공원 안에 그대로 남길 예정이다. 이는 개발 이전 세종시 땅의 오래된 농경 문화와 생태환경을 기억하고 보전하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시도이다. 소중한 농경 문화를 지키는 공원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자.

금강
수변 생태 활용

학습목표

1. 금강의 상징적 의미 이해하고 세종시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다.
2. 생태와 인간의 공생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하천 만들기를 위한 실무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비단 물결의 역사

① 금강(錦江) 명칭의 유래

- 백제시대에는 '곰강(고마나루 강)'이라 불렀는데, '곰'은 고대어로 '크다' 또는 '신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본래는 '큰 강'이라는 뜻임.
- 이후 '곰'의 음을 차용한 한자 '금'을 사용하였음. 비단 '금'(錦)을 사용하여 비단처럼 고운 강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음.
- 세종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비단강 명칭을 금강의 애칭으로 사용하고 있음.

② 금강의 지리적 중요성

- 금강은 남한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임. 동으로는 백두대간, 남으로는 호남정맥, 북으로는 한남정맥에 걸쳐 있고 충청도의 기맥(氣脈)인 금남정맥과 금북정맥의 사이를 가로지르듯 흐름.
- 전북 장수의 뜬봉샘에서 발원해 금산, 옥천 등을 거치며 흘러 세종시에서 미호천과 합류한 뒤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서해로 흐름.

③ 금강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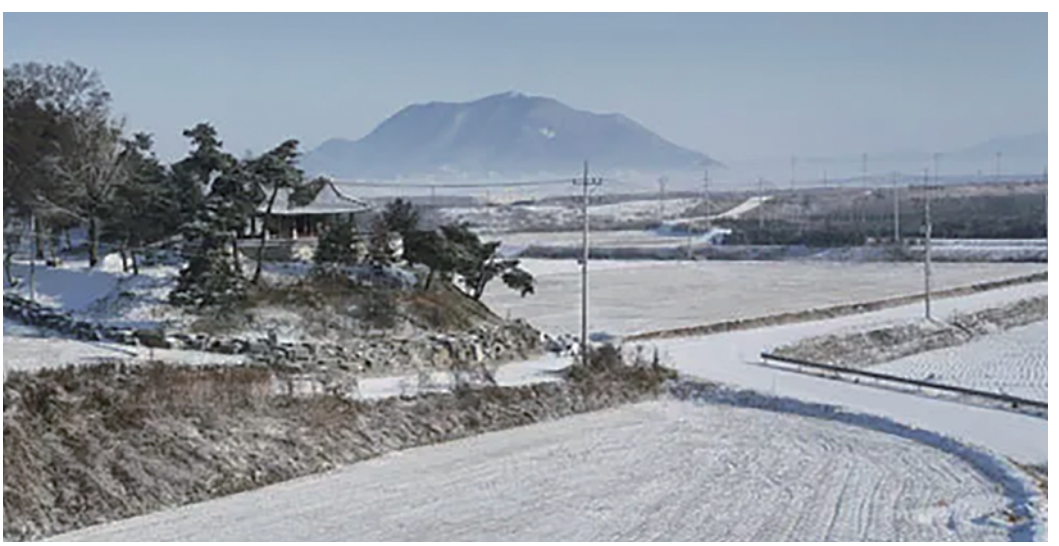
- 금강 유역은 선사시대부터 최적의 삶터였음. 금강이 역사적 중심지가 된 때는 백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시작되었음.
- 고려 말 충신 임난수 장군은 고려가 멸망하자 낙향하여 전월산 인근에 머물며 잃어버린 나라를 그리워하였는데, 상려암에 매일 올라 개경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고 망국의 한을 달랬으며, 전월산 정상의 샘물인 용천을 마시며 심신을 수련함.
- 독락정(獨樂亭)은 임난수의 아들 임목이 아버지의 절개와 의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임. 홀로 즐기기 좋다는 뜻으로 유유히 흐르는 금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함.

독락정에서 보는 금강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블로그. (2020. 10. 7.). 세종시 명소 –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독락정.
https://m.blog.naver.com/sejong_story/222109169022

전월산과 독락정



※ 출처 : 경향신문. (2006. 1. 16.). 독락정과 전월산. https://www.khan.co.kr/article/200601161500232

나. 도시와 강

① 강(江)을 품고 생겨난 문명

- 문명(文明)이란 인류가 원시적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을 말함.
  가장 먼저 국가와 도시의 형태를 갖춘 4대 문명권은 모두 강을 중심으로 생겨났음.

※ 이집트 문명 –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인도 – 인더스 강, 중국(황허, 양쯔강)

- 강 유역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 물류 이동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세계의 주요 도시는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음.

② 도시의 생명 길이 된 강

- 도심 속의 강물은 도시의 다기능적 인프라로 중요하게 이용됨.
- 친환경 생태 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경제 기반 시설로 이용하기도 함.
- 무엇보다 강을 시민에게 열어주었을 때 그 도시는 낭만 가득한 도시가 됨.

도심지 강의 여러 가지 쓰임

기능	내용	사례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조절	• 수자원 냉각 시스템 : 여름철 폭염을 완화하기 위해 강물을 활용한 지구 냉각 시스템을 가동, 강물을 순환시켜 빌딩과 시설을 냉방하여 탄소 배출을 줄임. • 수력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 강물의 낙차나 흐름을 이용해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파리
수상 교통 및 물류	• 수상 버스와 택시 : 강을 도로망처럼 활용해 출퇴근용 수상 버스나 수상 택시를 운영. • 유람선 및 관광 :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크루즈, 유람선, 수상 택시 등을 운행하여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를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로 사용.	 암스테르담
여가 및 스포츠 공간	• 강변 공원 및 산책로 : 자전거 도로, 산책로, 잔디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 수상 레포츠 : 카약, 조정,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 스포츠를 도심 한가운데서 즐길 수 있도록 계류장 및 편의시설을 제공.	 취리히
생태 복원 및 도시경관	• 도심 속 생태계 보호 : 자연형 하천은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철새와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활용. • 야간 경관 조명과 문화 행사 :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활용.	 청계천

2 추진 내용

가. 세종시의 젖줄, 금강

① '금강시'가 될 수도 있었던 세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의 국민 공모에서 '금강'이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음. 금강은 한반도 젖줄인 금강(錦江)이자 금수강산의 줄임말(金剛)로. 도시의 핵심 자원임.

② 세종시의 랜드마크 금강

- 금강은 세종의 풍수지리적 중심지이자, 친환경 · 문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음.
- 세종시를 대표하는 제야행사와 불꽃축제 등 연중 여러 행사가 열리며, 평소에도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명소임.
- 수변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자연성이 우수한 곳임.

※ 흰목물떼새(멸종위기 2급), 흰수마자(멸종위기 1급),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 1급)이 출현함.

이응다리(밤)



이응다리(낮)



제야행사 불꽃축제



금강 세종보



※ 출처 : 좌상) 세종특별자치시. (연도 없음). 이응다리. https://www.sejong.go.kr/prog/tursmCn/tour/sub01_19/view.do?cntno=27
우상) 세계일보. (2022. 8. 6.). 한글의 화려한 변신...국내 최장 금강보행교 '이응다리'가보셨나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6504437
좌하) 금강일보. (2025.12.31.). 2026 세종 새해 카운트다운쇼 일정은?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229
우하) 디트NEWS24. (2026.3.23.) 세종보 천막 농성, 700여 일 만에 '해체결정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045

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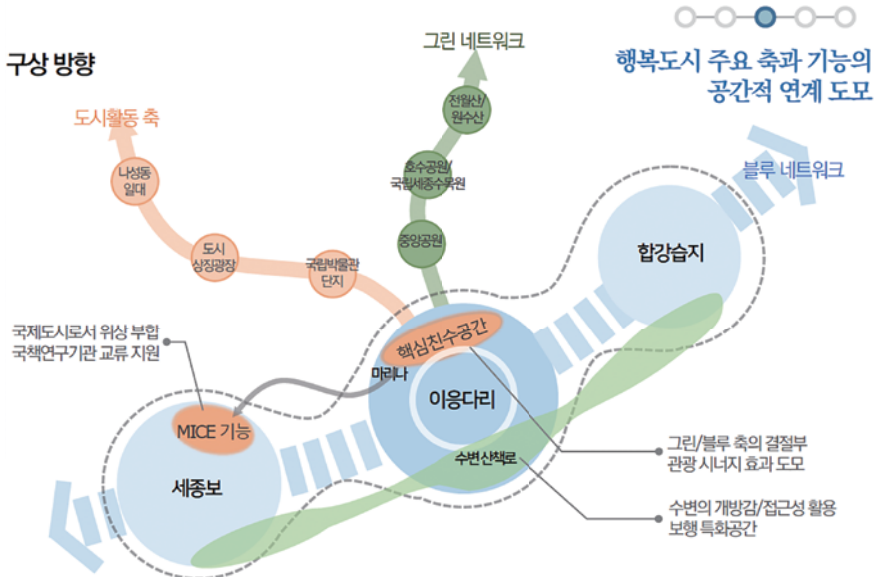
① 비전

- '세종 미래의 꿈, 모두가 함께하는 비단강'을 비전으로 한 프로젝트는 세종시 금강의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고, 친환경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 단순 시설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관광 명소 조성을 목표로 함.

② 프로젝트 개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요약

구분	내용
공간범위	세종보~이응다리~합강습지 주변 수변구역 약 9㎞ 구간
사업기간	2022. 7부터 지속
총사업비	약 7,351억 원(민자 6,610억 원, 재정 761억 원(국23, 시703, 기타15))
추진 과제	21개 과제(단기 8, 중기 3, 장기 10) 쉼이 있는 비단강(10개) : 세종보 주변 교류 + 휴식 재미있는 비단강(11개) : 핵심친수공간 문화 · 관광 + 체험 · 레저



※ 출처 : 디트NEWS24. (2023. 11. 2.). 세종시 '이응다리' 미완의 대기...'수상 체육 공연' 기능 품나.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863

③ 실행계획

쉼이 있는 비단강 과제

과제명	개략사업비 (총계 / 민자 / 재정) (단위 : 억 원)	주요 내용
비단강변 잔디광장 조성	10/-/10	• 세종동 금강변 약 22,000㎡에 다목적 잔디광장, 산책로 및 그늘막 조성 • 2024년 3월 완료 이후 경관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삼각편대 스마트 안전망 구축	11/-/11	• 이응다리 인근 금강변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
도심속 바비큐장 · 피크닉장 활성화	3/-/3	• 숲뜰근린공원 등 6개소에 바비큐 시설 20면과 피크닉 시설 67면 조성
세종합강캠핑장 운영 활성화	7/-/7	• 집중호우 침수 피해 복구 공사 후 2024년 12월 재개장 • 캠핑카존, 오토캠핑존, 프리캠핑존, 바비큐존 등 다양한 캠핑 시설 운영 활성화
금강 수변공원 조성	4/-/4	• 세종보 인근 약 6,000㎡를 시민과 수생태계가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 • 수변꽃길, 소규모 공원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 포함
호텔, 컨벤션 유치	5,000/5,000/-	• 금강변 나성동 부지(25,784㎡)에 전시 · 호텔 · 컨벤션 등 MICE 기능 도입 • 비단강 관광자원과의 시너지 강화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목표
호텔 입체보행브릿지	450/450/-	• 호텔과 연계하여 입체적인 보행브릿지를 조성하는 사업 • 호텔 · 컨벤션 유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이응다리 분수 확충	10/-/10	• 이응다리 중앙부 또는 난간에 분수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분수와 조명이 어우러진 경관 명소로 활용
스마트 방문객쉼터 조성	15/-/15	• 이응다리 주변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스마트 쉼터 공간 조성 • 통합 용역을 통해 위치 선정 및 사업 방안 구체화 예정
플로팅 가든	100/-/100	• 이응다리 주변 비단강에 생태 자연 요소를 수변 위까지 확장하여 플로팅 가든 조성 • 산책로와 공원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비단강 잠재력 극대화

재미있는 비단강 과제

과제명	개략사업비 (총계 / 민자 / 재정) (단위 : 억 원)	주요 내용
비단강 선착장 (마리나) 개선	12/-/12	• 이응다리 주변 기존 선착장 5개소 철거 및 2개소 시설 개선 • 선착장 활성화를 위한 유지 · 관리 추진
세종 빛축제	6/-/6	• 이응다리 및 수변공원에서 개최되는 축제 진행 • 개막식, 빛 조형물 전시, 공연 퍼포먼스(레이저쇼, 버스킹), 크리스마스마켓 운영, 제야 행사 등
비단강 파크골프장 조성	20/-/20	• 세종동 금남교 하부에 36홀 규모 파크골프장(43,000m²) 조성 • 2024년 6월 정식 개장 및 유료화 예정
수상레저 활성화	20/-/20	• 이응다리부터 아람찬교(합강) 약 6km 구간에서 수상레저 체험시설 운영 • 달빛배 시범 운영(2024. 11.~12.) 거쳐 카약킹 코스 개발 등 수상레저 시설 도입 및 상시 운영 추진
비단강변 야외수영장 조성	60/-/60	• 물빛찬 수변공원 일원에 하절기 비단강변 물놀이를 위한 야외수영장 조성 계획 • 2029년 개장 목표
상설 야외극장 설치 · 운영	3/-/3	• 이응다리에 상설 야외극장을 설치하여 시민 문화 수요 충족 및 이응다리 공간 활용도 높일 방안 모색
미디어아트뮤지엄 조성	100/100/-	• 이응다리 북측 수변(중앙공원 2단계 부지)에 민간 협업을 통한 기획전시 공간 조성 • '대관람차+미디어아트 뮤지엄' 컨셉의 테마파크로 복합 개발 추진 예정
대관람차 설치	1,000/1,000/-	• 이응다리 북측 수변(중앙공원 2단계 부지)에 세종시 대표 랜드마크이자 킬러 콘텐츠인 대관람차 도입 • 주 · 야간 핵심 경관 장소로 활용
실내놀이복합시설 조성	60/60/-	• 이응다리 북측 수변(중앙공원 2단계 부지)에 여가 활용을 위한 신개념 실내 체육 시설 조성 • '대관람차+실내놀이복합시설' 컨셉의 테마파크로 민간 복합 개발 추진
친환경 체험형 놀이공간 조성	10 / - / 10 (LH 협의)	• 이응다리 북측 수변(중앙공원 2단계 부지)에 모험형 · 체험형 놀이터, 바닥 분수, 분수대 물놀이 등 친환경 체험형 놀이공간 조성 •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LH와 협의 추진
이응다리 수상공연장 조성	450 / - / 450	• 이응다리 중앙부에 연면적 7,850m², 900석 규모의 수상 야외 공연장 조성 • 비공연 시 야외 전시장, 버스킹, 플리마켓 등 시민 문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 계획

3 적용·사례

가. 대한민국의 푸른 대동맥, 금강

①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선정 및 대규모 국비 지원

- 환경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발맞춰 홍수 및 가뭄에 대한 하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명품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함.
- 비단강 통합하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96억 원 규모(국비 50%, 시비 50%)의 대대적인 하천 정비 및 생태 활용 사업을 추진함.
- 이 사업을 통해 여울형 낙차공 및 자연형 호안 조성 등을 통해 치수 안전성을 담보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시민 친화적인 복합 문화 하천을 만들 계획임.
- 나아가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등 생태 축이 완성될 전망임.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종보 정상화 및 소수력 발전 연계 정책

- 금강 수변 활용에서 핵심은 '세종보' 운영 방안인데, 세종보는 2018년 전면 개방 이후 2021년 해체 결정이 내려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대강 보 존치 및 재가동 정책으로 선회하여 수문과 소수력 발전 시설 등에 대한 수리 및 정비 사업을 진행함.
- 당시 정부는 소수력 발전 재개와 유연한 수위 조절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지역 환경단체들이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며 약 700일간 이어온 천막 농성 끝에, 2026년 3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단체들과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전격 합의하여 발표함. 이에 따라 내년(2027년) 봄 세종보와 공주보 해체를 목표로 정책 방향이 다시 수정되었으며, 오랜 기간 지속된 천막 농성도 종료됨.

③ 생물 다양성 회복 모니터링 성과와 수생태계 보전 정책의 딜레마

- 환경부의 관측에 따르면, 세종보 개방으로 수위가 하락하면서 강바닥이 노출되어 모래톱과 하중도, 습지 등 다양한 미세 서식처(Micro-habitat)가 폭발적으로 형성되었고 이 변화는 수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와 2급 '흰목물떼새' 등 생물들의 극적인 귀환으로 이어짐.
- 하지만 보 개방으로 인한 수위 저하는 인근 지역의 지하수위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음.
- 실제로 금남면 지역의 지하수위는 2020년 대비 2023년에 1m 하락하면서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신규 관정 개발 신고가 폭증함.
- 이처럼 중앙부처의 수자원 정책은 단순히 하천 내부의 생태계 보전을 넘어, 인접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 물리적 생존권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음.



나. 다시 숨 쉬는 세계의 물결

① 독일 뮌헨 이자르강(Isar River) 및 베를린 판케천 복원 프로젝트

- 독일의 하천 복원의 목표는 '홍수 방재(안전)', '생태계의 원형 복원(지속가능성)',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사회적 편익)'임.
- 뮌헨 도심을 관통하는 '이자르 플랜(Isar-Plan)'이 대표적으로, 과거 이자르강은 콘크리트 제방으로 직강화된 거대한 배수로였는데, 1995년부터 정부는 10여 년에 걸쳐 공론화와 설계 후 14년에 걸쳐 콘크리트를 모두 뜯어내는 대공사를 단행함.
- 복원 후 자갈밭과 수변 습지가 되살아나 시민 삶의 질도 상승하였고, 여름마다 도심 해수욕장이 열림.
- 하폭 확장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도심 밀집 지역의 베를린 판케천(Panke River)은 하도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옮겨 반대편에 시민을 위한 휴식처와 보행로 공간을 마련함.

③ 싱가포르 비산-앙모키오 공원(Bishan-Ang Mo Kio Park) 칼랑강 복원

- 싱가포르 중심부의 칼랑강(Kallang River) 복원사업은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의 세계적인 사례임.
- 원래 칼랑강 공원 구간(2.7km)은 직선으로 파놓은 콘크리트 수로였으며 철책이 쳐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었음.
- 그러나 62ha에 달하는 거대한 공원 전체를 재설계하며, 수자원, 홍수 조절 기능, 생물 다양성, 공원 레크리에이션을 융합하는 ABC(Active, Beautiful, Clean) Waters 프로그램을 가동함.
- 자연형 하천으로 재탄생되었으며 식물의 뿌리와 천연 소재를 활용하여 강둑의 침식을 막는 식생호안공법(Soil Bioengineering)도 적용됨. 자연 식생은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함.
- 또한, 공원을 거대한 범람원으로 설계함. 강변을 따라 어린이 생태 놀이터와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섰으며, 과거의 콘크리트 벽체들은 하천 전망대를 짓는 재활용 소재로 쓰여 역사적 기억을 보존함.

독일 아자르강



싱가포르 칼랑강 복원



※ 출처 : 좌) 한겨레. (2010. 3. 30.). 독 이자르강 인공둑 허물자 홍수 줄고 생태계 활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3263.html
우) Reddit. (연도 미상). 싱가포르 칼랑강 복원 사진.
https://www.reddit.com/r/sustainability/comments/1pswbmy/river_in_singapore_rewilded_after_being/?tl=ko

4 시사점·정리

가. 금강 수변 생태 활용 정책의 의의 종합

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수평적 · 순환적 생태축' 완성

- 단절된 녹지축의 유기적 연결 : 중앙녹지공간의 '비워둠' 철학을 남측 금강 수변으로 확장하여,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금강을 잇는 거대한 순환적 에코벨트를 구축함.
- 비위계적 수평 경관의 실현 : 도시 중심을 인공 건물이 아닌 생태 자연에 내어준 도시계획 철학을 하천 생태계까지 연장하여 진정한 친환경 도시 구조를 완성함.

② 다목적 인프라 가치 재발견 및 경제 · 문화적 시너지 창출

- 중부권 체류형 문화 · 관광 거점 도약 : 대관람차, 수상레저, 수변공원 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통해 금강을 수동적 보전 구역에서 적극적인 여가 및 랜드마크 공간으로 전환함.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과 연계 가능)
- 미래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 : 세종보 정상화를 통한 소수력 발전 재개로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함.

③ 공공 갈등의 제도적 수용을 통한 성숙한 생태 거버넌스 안착

- 상호 견제와 합의의 협치 시스템 구축 : 전국 최초 '시민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으로 행정 관청, 환경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참여형 민주주의를 실현함.



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① 치수(治水)와 생태 보전 조화를 위한 섬세한 공간 및 수위 관리

- 엄격한 공간 조닝(Zoning) 확립 : 레저와 상업 인프라 중심의 '이용형 구역(이응다리 주변)'과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호를 위한 '보존형 구역(합강습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해야 함.
- 탄력적 · 과학적 수위 운영 매뉴얼 마련 : 홍수기, 농번기, 주요 조류 번식기 등 다양한 생태 주기와 계절적 수요에 맞춰 세종보 수위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환경부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요함.

②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연기반해법(NbS) 선제적 도입

- 친환경 생태하천 공법 적용 : 콘크리트 인공 제방을 지양하고 식생호안공법(Bioengineering)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생물 서식처 제공과 수질 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함.
- 기후 탄력적 범람원(Floodplain) 설계 :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하천 제방 밖 수변공원을 폭우 시 물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스펀지형 구조로 설계하여 도시의 방재 능력을 강화해야 함.

③ 민간 투자 사업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및 시민 참여 확대

- 엄격한 생태 · 경관 가이드라인 강제 : 대관람차 등 대규모 민자 시설 도입 시 조도 제한(빛 공해 방지) 및 오염원 하천 유입 차단 등 환경성을 지키는 기준을 사업 초기부터 엄격히 적용해야 함.
- 일상적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활성화 : 시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생태 맵핑 및 수변 정화 활동 등 일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금강을 가꾸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투자를 병행해야 함.



생각해 보기

- 세종보의 가동을 둘러싸고 우리는 첨예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수위 유지가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 개방 기간에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가 돌아온 모래톱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상충하는 두 의견을 조화롭게 품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 싱가포르 칼랑강 복원 사례가 세계적 칭송을 받는 이유는 콘크리트를 걷어낸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수공간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과 감성적 연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최근 세종시 역시 금강 수생태계를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했다. 금강이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놀이터이자 생태 학습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기획하고 싶은 활동은? 시민 참여 활동(예 : 수상 플로깅 대회, 시민 참여 생태 맵핑 앱 활용 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참고문헌

1. 경향신문. (2006. 1. 16.). 독락정과 전월산. https://www.khan.co.kr/article/200601161500232
2. 굿모닝충청. (2022). 세종의 10번째 생일, 2만 5천 명 인파 몰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096
3. 금강일보. (2025. 12. 31.). 2026 세종 새해 카운트다운쇼 일정은?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229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 9. 10.). 금강 세종 · 공주보,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 효과 뚜렷.
   https://eng.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98&boardId=1396910&boardMasterId=939
5. 김용국. (2024).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 방향 [포럼 발표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4 정원도시 정책포럼.
6. 뉴시스. (2022). 세종시 희망의 불꽃 '낙화놀이 다시 재개.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21013_0002046405
7. 디트NEWS24. (2026. 3. 23.) 세종보 천막 농성, 700여 일 만에 '해체결정'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045
8. 디트NEWS24. (2023. 10. 20.). 국립생물자원관 '세종' 어때? 5대 권역 '금강'에만 없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71
9. 디트NEWS24. (2023. 11. 2.). 세종시 '이응다리'미완의 대기...'수상 체육 공연' 기능 품나.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863
10. 문화저널 맥. (2022. 4. 3.). 고층 건물 즐비한 도심 한복판에 깊은 역사를 품다. 문화저널 맥.
    https://www.themac.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
11. 박경만. (2010. 3. 30.). 독 이자르강 인공둑 허물자 홍수 줄고 생태계 '활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3263.html
12. 박길용. (2021). 생태도시학. 윤성사.
13. 서자유, (2024). 세종호수공원 · 중앙공원 발전방안 설정을 위한 활용 현황과 서비스 평가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https://www.sri.re.kr/dms/contents/dms/header/01/content.01.51.motion
14. 서자유. (2024). 정원관련 국제 인증 도시의 정원녹지 정책 조사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15. 세계일보. (2022. 8. 6.). 한글의 화려한 변신...국내 최장 금강보행교 '이응다리'가보셨나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6504437

16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연도 없음).
blog.naver.com/sejong_storyhttps://blog.naver.com/la_korea/222173102376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원관리사업소. (연도 없음).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 공간 안내.
https://www.sjfmc.or.kr/sjpark/sub01_02_01.do

18 세종특별자치시. (연도없음). 이응다리.
https://www.sejong.go.kr/prog/tursmCn/tour/sub01_19/view.do?cntno=279)

19 조경설계 해인. (연도 없음). 중앙녹지공간 국제공모 당선작 설명자료

20 한겨레. (2010. 3. 30.). 독 이자르강 인공둑 허물자 홍수 줄고 생태계 활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3263.html

21 한겨레. (2024. 6. 16.). 세종보 닫고 악취나는 뻘밭으로 돌아갈 순 없다. 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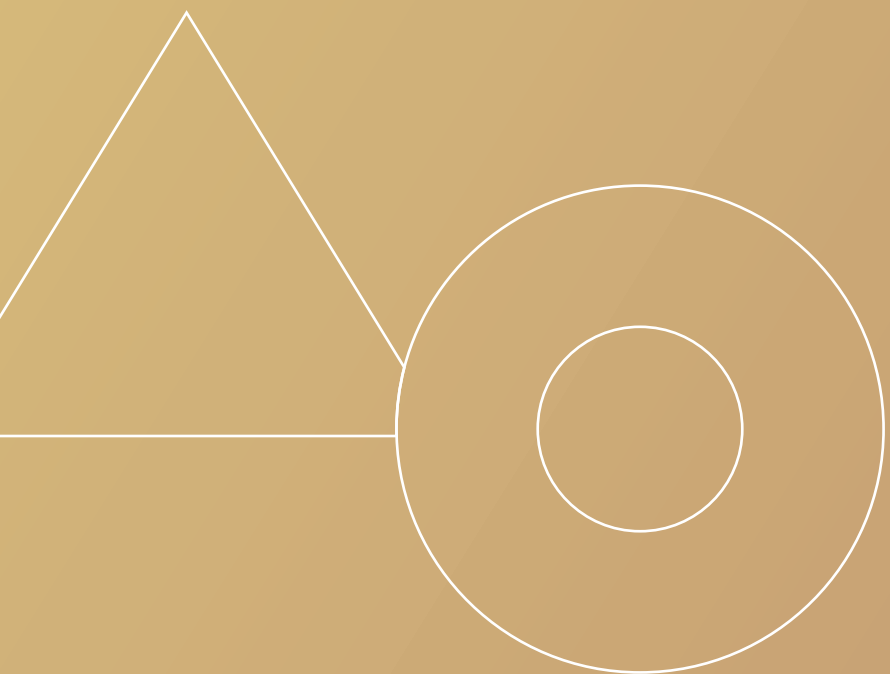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

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작품집, Ancient Futures(1등작).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https://library.krihs.re.kr/library/10190/contents/5912154

24 Balmori Associates · H Associates · Haeahn Architecture. (2007).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
Master Plan for Public Administration Town. https://www.balmori.com/portfolio/new-government-city

25 Howard, E.. (1898). Tomorrow: A Peaceful to Real Reform.

05 PART



평생학습도시 세종

5-1 세종 평생학습도시 정책 추진체제 및 혁신 인프라

5-2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세종형 평생학습정책

세종 평생학습도시 정책 추진체제 및 혁신 인프라

학습목표

1. 세종시가 평생학습을 개별 교육사업이 아닌 도시정책으로 확장해 온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의 역할과 협력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제도 · 조직 · 공간 · 정보 · 전문 인력 · 지역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세종형 평생학습 혁신 인프라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기획 실행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확대된 정책 영역과 행정 수요

① 평생학습 정책 영역 확대

- 세종시는 2019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와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현재 시민대학, 생활권 평생학습, 학습 취약계층 지원, 온라인 학습 등으로 사업영역이 넓어지면서 개별 사업을 넘어 도시 차원의 총괄 ·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② 재지정 대응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필요

- 2026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여 2028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됨.
- 재지정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성과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나. 다양한 평생교육 기능을 연결할 추진체계의 필요

① 기관별로 분산된 평생교육 기능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비롯해 대학 · 공공기관 · 민간평생교육기관 등이 각자의 기능과 자원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기관과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중복을 줄이고 시민의 학습 수요를 적절한 기관과 서비스로 연결할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② 정책연구와 평생교육 기능의 연계 기반 강화

- 2025년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통합으로 정책연구와 시민 평생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이에 따라 정책 총괄, 연구 · 평생교육, 교육문화 지원 기능 간 협력 구조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짐.

다. 생활권별 학습자원과 접근성 차이에 대응할 기반 필요

① 생활권별 교육자원과 접근 여건의 차이

- 세종은 계획도시의 생활권 구조와 기존 읍·면 지역이 함께 존재하여 지역별 인구구조, 이동 여건과 교육자원 접근성에 차이가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교육문화시설 등 기존 공공자원을 생활권의 실제 학습 기회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② 공간을 넘어 운영 기반까지 연결할 필요

-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학습공간뿐 아니라 정보·디지털 기반, 전문 인력, 기관 네트워크와 성과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함.
- 분산된 자원과 사업을 하나의 도시 평생학습 체계로 연결하는 혁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추진 내용

가. 도시 전체의 배움을 조율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세종특별자치시

① 흩어진 평생학습 정책을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연결

- 세종특별자치시는 평생학습도시의 중장기 방향과 재지정 대응, 시민 평생교육, 생활권 학습 기반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총괄함.
- 국가 평생교육 정책과 세종의 인구·복지·문화·경제 여건을 함께 살피며, 시민에게 필요한 학습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향을 조정함.
- 평생학습을 교육 부서 단일 사업으로 보지 않고 복지·청년·문화·일자리·자치행정 등 도시정책과 연결하여 시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확장함.

② 기관은 다르지만, 시민의 학습경로는 끊기지 않도록

- 세종연구원·교육청·대학·공공기관·민간 평생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결하고 역할을 조정함.
- 유사·중복 사업은 줄이고, 시민의 학습 수요가 적합한 기관과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정책·사업·정보를 연계함.
- 생활권별 학습 접근성과 참여 현황을 살펴 신도심과 읍·면 지역 사이에 학습기 회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함.

③ '몇 명이 왔는가?'를 넘어 '무엇이 달라졌는가?'까지

- 평생학습 성과를 단순 참여자 수와 만족도에 한정하지 않고 학습의 지속성, 접근성, 기관 간 연계, 시민 역량과 지역사회 참여 변화까지 확장해 살펴봄.
- 조사·연구와 현장 자료를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여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근거 기반 운영을 강화함.

나. 연구가 시민의 배움이 되고, 시민의 배움이 다시 정책이 되는 세종연구원

연구·교육·정책이 순환하는 세종형 평생학습 환류구조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및 기관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① 정책연구와 평생교육을 한 흐름으로 잇는 광역 플랫폼

- 세종연구원은 정책연구와 시민 평생교육 기능을 연결하여 지역 현안과 시민의 학습 수요를 함께 살피는 연구 · 교육 융합형 전문 기관으로 기능함.
-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기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과 사업 설계 근거로 활용함.
- 세종의 도시문제와 정책연구 성과를 시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로 전환하여 전문 지식을 시민의 학습자원으로 확장함.

② 시민 가까이에서 수요를 발견하는 생활권 학습망

- 읍 · 면 · 동 및 거점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역의 인적 · 공간자원 연계를 지원하여 시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거점 평생학습센터와 전문 학습매니저를 통해 지역의 실제 학습 수요를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높임.
- 관계자 연수,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컨설팅과 공동과제 발굴을 통해 개별 기관의 역량이 도시 전체의 평생학습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함.

③ 정보 · 데이터 · 기관을 연결하는 평생학습의 허브

-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평생교육 정보망과 온라인 학습을 연계하여 시민이 필요한 학습 정보와 교육 기회를 더 쉽게 찾도록 지원함.
- 일반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문해교육 등 분야별 공공 · 민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함.
- 정책연구 · 학습 정보 · 참여 성과를 연결하여 시민의 선택과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지식 · 데이터 기반을 강화해 나감.

다. 학교와 도서관의 문을 도시의 배움으로 넓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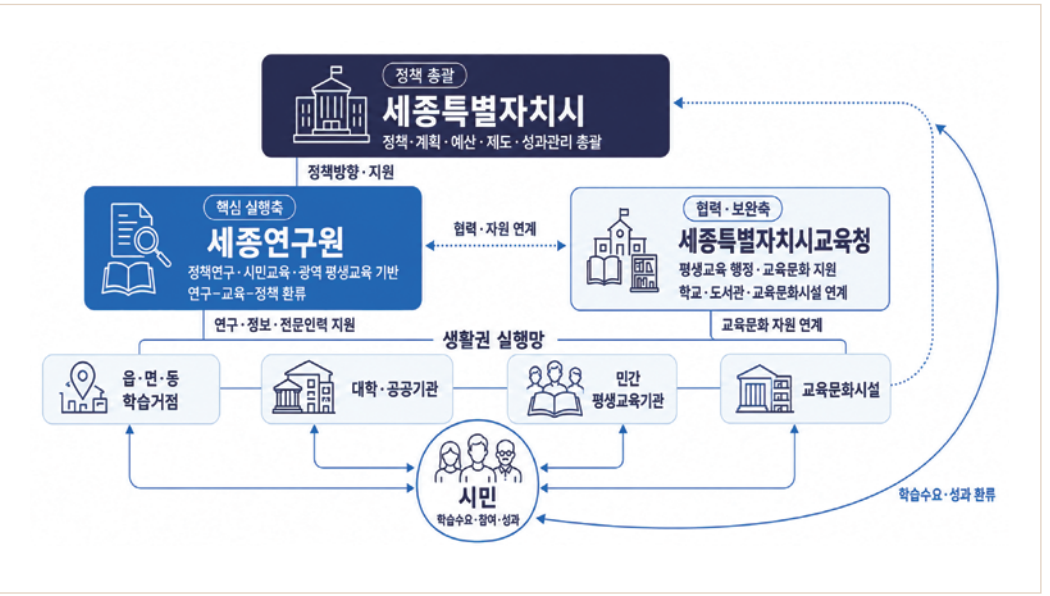
① 교육행정과 시민 평생학습을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 등록 · 관리, 학점은행제 등 교육청 소관 평생교육 행정을 담당함.
- 학교 · 도서관 · 교육문화시설 등 기존 교육자원을 시민의 평생학습과 연결하여 생활권 학습공간의 범위를 넓힘.

② 평생교육원 · 교육문화원을 생활권 학습 거점으로

- 평생교육원은 강좌, 학습동아리, 지역교육협력과 독서 문화 활동을 통해 배움과 지역공동체를 연결함.
- 교육문화원은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 · 문화예술 · 체험 중심의 교육 문화 거점으로 기능함.
- 세종시와 세종연구원의 평생학습 정책에 교육청의 학교 · 도서관 · 교육 문화 자원이 더해질수록 시민이 만나는 학습공간은 도시 곳곳으로 확장됨.

세종 평생학습도시 정책 추진체제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및 기관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라. 새로 짓기보다 잘 연결하는 세종형 평생학습 혁신 인프라

① 정책부터 생활권 공간까지, 도시의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 세종형 평생학습 혁신 인프라는 새로운 시설의 확충만을 의미하지 않음.
- 중장기계획 · 조례 · 예산과 같은 정책 · 제도, 세종시 · 세종연구원 · 교육청 · 대학 · 기관이 참여하는 조직 · 거버넌스,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 · 복합커뮤니티센터 · 도서관 등의 생활권 공간을 함께 연결하는 체계임.
- 이를 통해 시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학습에 접근하고, 기관별 자원이 도시 전체의 학습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함.

② 공간에 정보와 사람이 더해질 때 비로소 학습 인프라가 완성

- 평생교육 정보망, 온라인 학습, 학습 이력과 성과자료 등 정보 · 디지털 기반을 통해 시민의 학습 접근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임.
- 학습매니저, 교 · 강사, 기관 담당자 등 전문 인력과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 현장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공간 · 프로그램 · 정보 · 전문 인력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생활권 학습망 안에서 연결될 때 평생학습 인프라는 실제 시민의 배움으로 작동함.

③ 연구와 성과가 다시 다음 정책으로 돌아오는 구조

- 실태조사, 정책연구, 시민 의견과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함.
- 현장에서 확인된 수요와 성과를 다음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 '정책 – 연구 – 교육 – 현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함.
- 이를 통해 세종의 평생학습은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을 넘어 도시가 스스로 배우고 개선하는 정책 체계로 발전할 기반을 갖추게 됨.

세종형 평생학습 혁신 인프라의 주요 구성

구성요소	주요 내용	정책적 기능
정책 · 제도	중장기계획, 조례, 예산, 재지정 대응	정책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
조직 · 거버넌스	세종시, 세종연구원, 교육청, 대학 · 기관 협력	역할 조정과 사업 연계
생활권 공간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근거리 학습 접근성 강화
정보 · 디지털	평생교육 정보망, 온라인 학습, 학습 이력 · 성과 자료	학습 정보 통합과 근거 기반 정책 지원
사람 · 네트워크	학습매니저, 교 · 강사, 기관 담당자, 공공 · 민간 기관 협력	현장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연구 · 환류	실태조사, 정책연구, 시민 의견과 성과 분석	연구-교육-정책의 선순환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세종형 평생학습 혁신 인프라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및 기관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적용·사례

가. 「세종형 R-E-P 연계 순환체제」 : 연구(R) · 교육(E) · 정책(P)의 융합 플랫폼 구축

① 정책 · 연구 · 학습을 한 축으로 묶는 세종형 추진체계

-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책을 총괄하고, 세종연구원이 정책연구와 시민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실행을 뒷받침함.
- 2025년 기능 통합을 계기로 연구와 평생교육을 한 기관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됨.

② 시민의 배움을 다시 정책으로 돌리는 R-E-P 환류 체계

- 지역 현안과 시민 수요를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로 확산함.
- 학습 · 참여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의 수요와 경험을 다시 연구와 정책에 반영하는 R-E-P 순환구조를 강화함.

나. 「세종형 생활권 학습네트워크」 : 공간 · 기관 · 사람을 연결하는 분산형 학습 인프라 조성

① 읍 · 면 · 동을 촘촘히 잇는 생활권 학습망

- 읍 · 면 · 동 및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시설 · 교육기관 · 인적자원을 생활권 단위로 연결함.
- 신도심과 읍 · 면 지역의 거리 · 인구 · 교육자원 차이를 고려해 시민 가까이에서 배움이 시작되는 구조를 강화함.

② 도시의 공공자원을 배움터로 바꾸는 학습 자원화

- 복합커뮤니티센터 · 도서관 · 평생교육시설 등 기존 공간에 프로그램 · 전문 인력 · 지역기관을 연계함.
- 분산된 도시자원을 하나의 생활권 학습망으로 묶어 도시 전체를 배움의 인프라로 활용함.

다. 「세종형 평생학습 정보플랫폼」: 학습 정보 · 온라인 교육 · 기관 연결 디지털 인프라 조성

① 흩어진 학습 정보를 한 곳으로 잇는 통합정보망

- 평생교육 정보망을 기반으로 지역의 강좌 · 기관 · 학습공간 정보를 연계하여 시민이 필요한 학습 기회를 쉽게 찾도록 지원함.
-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연결해 시민의 학습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임.

② 정보에서 데이터로 확장하는 스마트 평생학습 기반

- 온라인 학습과 학습 정보를 연계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낮추고 시민의 학습경로를 확장함.
- 향후 학습 이력 · 참여성과 · 정책자료를 연결해 시민의 학습 선택과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4 시사점·정리

가. 행정수도의 지식자산을 시민의 성장 자산으로 전환

① '지식이 모인 도시'에서 '지식을 나누는 도시'로

- 세종에는 행정 · 연구 · 교육 분야의 전문 자원이 집적되어 있어 이를 시민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전환할 잠재력이 큼.
- 정책연구와 전문 지식이 기관 내부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이해와 역량으로 확산될 때 세종만의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② 시민의 경험까지 도시의 지식으로 축적

- 전문 기관이 생산한 지식뿐 아니라 시민이 학습하고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도 지역의 중요한 정책자원이 될 수 있음.
- 전문가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 시민의 경험과 현장 지식까지 활용하는 개방형 지식생태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나. 계획도시의 공간체계를 학습 접근성의 강점으로 전환

① 생활권 구조를 시민 학습의 자산으로 활용

- 복합커뮤니티센터 · 도서관 · 공공시설이 생활권 단위로 배치된 세종의 도시 구조는 시민 가까이에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임.
- 새로운 시설을 늘리기보다 기존 도시자원을 얼마나 편리하고 촘촘하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정책 성과가 될 수 있음.

② 신도심과 읍 · 면의 차이를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 획일적인 공급보다 인구 · 거리 · 교통 · 시설 등 생활권별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세종형 평생학습의 완성도는 공급량보다 '어디에 살든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는가'라는 시민 체감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기관의 성과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하나의 학습도시 구현

① 행정의 경계보다 시민의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보다 필요한 배움을 쉽게 찾고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가임.
- 기관별 사업 성과를 넘어 시민의 관점에서 끊임없는 학습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도시 차원의 조정 역량임.

② 협력의 성과를 시민의 변화로 확인

- 기관 간 협력은 협약 · 회의 · 사업 수보다 새로운 학습기회가 만들어지고 시민의 접근성과 선택권이 실제로 높아졌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행정과 기관의 협업이 시민의 참여와 성장으로 이어질 때 세종형 추진체제의 실질적인 가치가 드러남.

라. 평생학습을 도시의 '학습 능력'으로 확장

① 시민과 함께 행정도 배우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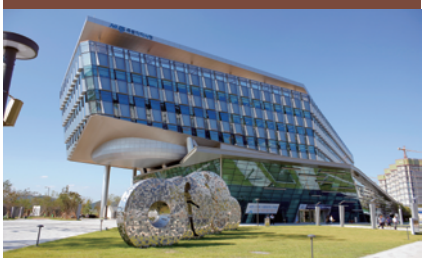
- 시민의 수요 · 참여 경험 · 사업 성과를 다음 정책 설계에 반영하여 정책 자체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되는 구조가 필요함.
-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하는 행정의 학습 역량이 도시의 변화 대응력을 높임.

② 프로그램의 지속을 넘어 도시의 변화 역량 강화

- 평생학습의 성과는 프로그램의 수나 참여 인원보다 시민과 행정이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있음.
- 세종의 행정 · 연구 · 교육 역량과 시민의 학습경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평생학습도시'를 넘어 스스로 배우고 진화하는 '학습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

세종 평생학습도시의 주요 정책·연구·평생교육 기반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세종연구원 간행물



이도마루 전경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연구원, 세종시교육청평생교육원(이도마루) 공식 누리집.

생각해 보기

- 세종의 연구·교육·정책이 실제로 '한 바퀴 도는' R-E-P 순환 체제가 되려면, 우리 행정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 시민이 어느 생활권에 살든 '하나의 학습도시 세종'을 경험하게 하려면, 공간·기관·정보를 어떻게 더 촘촘히 연결해야 할까?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세종형 평생학습 1

학습목표

1. 생애단계별로 달라지는 학습 수요와 생활권 기반 평생학습의 의미를 이해한다.
2. '세종 새움'과 '다시피움'의 대상 · 내용 · 운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3. 성장과 진로,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세종형 지원 체제를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기획 실행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아동 · 청년의 성장 단계별 학습 격차와 진로 전환 대응

① 아동 · 청소년의 교육 기회 격차 완화

- 가정환경과 돌봄 여건에 따라 교육 경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 등 생활공간과 연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함.

② 청년의 진로 · 취업 전환기 맞춤 지원 강화

- 전공과 실제 직무 간 차이, 취업 정보와 준비 역량의 격차에 대응하여 개인별 진로와 상황을 고려한 학습지원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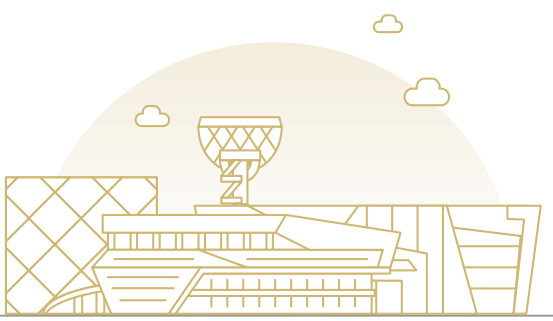
나. 4050 세대의 경력 전환과 사회참여 수요 확대

① 축적된 경력의 새로운 전문 역량 전환

- 4050 세대에게는 단순 취미 교육을 넘어 기존의 경력과 경험을 새로운 전문 역량으로 확장하는 생애 전환 학습이 필요함.

② 개인의 경험을 지역사회 인적자원으로 활용

- 학습 이후 실제 지역 활동까지 이어질 때 시민의 경험이 개인의 자산을 넘어 세종의 인적자원으로 축적될 수 있음.



2 추진 내용

가. 「세종 새움」: 아동의 성장에서 청년의 도약까지

① 「세종 씨앗터」: 지역아동센터 연계 성장지원

-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제공하여 아동 · 청소년의 교육격차 완화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함.
- 아동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역기관과 멘토를 연결함.

② 「세종 도약터」: 청년 취업역량 맞춤 지원

- 세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 멘토링과 교육비를 지원함.
- 청년이 자신의 진로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도록 지원하여 취업 준비의 실효성을 높임.

나. 「다시 피움」: 4050의 경력과 경험을 지역의 전문 역량으로

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시민 전문 인력 양성

- 생애전환기 4050 세대를 대상으로 실전형 평생학습을 운영함.
- 2026년에는 정원 · 한글 · 수어 3개 과정을 중심으로 시민 전문 인력을 양성함.

② '입문–심화–활동'의 단계별 학습경로

- 분야별 입문과 심화 교육을 거쳐 실제 지역 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운영함.
- 교육 수료에 머물지 않고 학습성과가 새로운 사회적 역할로 이어지도록 지원함.

3 적용·사례

가. 「세종 씨앗터」: 아동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육지원

- 지역아동센터와 멘토를 연결하여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을 아동의 생활공간에서 제공함.
- 교육기관으로 학습자를 불러오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으로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임.

나. 「세종 도약터」: 청년의 '다음 단계'를 위한 맞춤형 도약 지원

- 개인별 멘토링과 교육비 지원을 결합하여 청년이 필요한 직무교육을 선택하도록 지원함.
- 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 개인의 진로와 역량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둠.

다. 「다시 피움」: 4050 경력을 지역사회 전문 역량으로 전환

- 정원 · 한글 · 수어 등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전문 역량을 단계적으로 개발함.
- 오래 축적된 시민의 경험을 새로운 학습과 지역 활동으로 이어주는 세종형 경력 전환 평생학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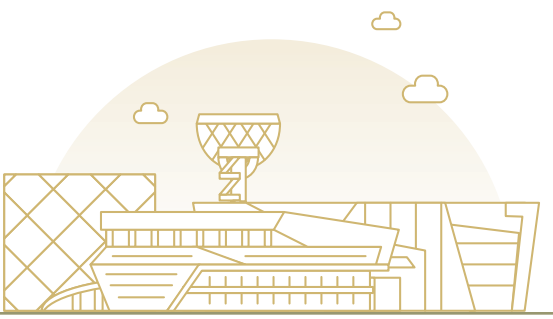
4 시사점·정리

가. 연령별 지원을 넘어 생애전환기 중심의 정책 설계 강화

- 아동의 성장, 청년의 진로 · 취업, 4050의 역할전환은 서로 다른 정책 대상이지만 모두 다음 생애 단계로 이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임.
- 연령별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학습–진로–활동으로 이어지는 전환경로를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참여실적을 넘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 정책성과는 참여 인원뿐 아니라 후속 학습, 진로 · 취업 준비, 전문 역량 활용과 지역사회 활동으로의 이동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시민의 배움이 개인의 성장과 지역의 인적자원 확충으로 이어지는지를 세종형 생애 전환 정책의 주요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생각해 보기

- 아동·청년·4050의 생애전환기에 교육 이후의 '다음 단계' 까지 이어주려면 어떤 정책과 기관이 함께해야 할까?
- 시민의 경력과 경험을 새로운 전문 역량과 지역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세종의 분야는 무엇일까?

주민밀착형
거점 평생교육
지원 확대·운영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세종형 평생학습 2

학습목표

1. 세종의 신도심 · 읍면지역 특성과 생활권 평생학습의 정책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세종 자람터」의 세 유형과 「배움마당」의 운영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3. 주민의 작은 학습모임과 지역자원이 생활권 평생학습으로 성장하는 지원구조를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기획 실행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생활권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 접근성 대응

① 신도심과 읍 · 면이 공존하는 세종의 학습환경

- 세종은 신도심 생활권과 읍 · 면 지역이 함께 있어 거리 · 교통 · 시설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학습 참여기회가 달라질 수 있음.
- 시민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지원이 필요함.

② 교육시설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의 접근 확대

- 교육기관의 위치뿐 아니라 근무 · 돌봄 · 운영시간 등 시민의 생활 조건도 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침.
- 주민 · 기관 · 지역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 기회를 시민의 일상 곁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음.

나. 작은 학습모임의 지속적 성장지원 필요

① 주민의 관심을 학습의 출발점으로

- 평생학습은 대규모 강좌뿐 아니라 관심이 같은 주민들의 작은 모임에서도 시작될 수 있음.
- 처음 시작하는 모임이 학습을 지속하도록 초기 단계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② 학습모임에서 지역 학습 주체로 성장

- 자율학습이 지속되면 평생학습 동아리로 성장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 · 단체는 지역의 학습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음.

다. 지역 유휴공간의 공동 학습 자원화

① 새로 짓기보다 이미 있는 공간의 활용

- 세미나실 · 다목적실 등 이용하지 않는 시간의 공간을 개방하면 별도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도 생활권 학습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② 공간정보와 이용 체계 연계

-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찾고 활용하도록 공간정보와 등록 · 대관 기능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내용

가. 「세종 자람터」 : 작은 배움을 지역의 힘으로 키우는 단계별 육성

① 「돋움이터」 : 5인 이상 초기 학습모임의 첫걸음 지원

- 공통 관심을 가진 5인 이상 학습자 모임에 지식 배달 강좌를 지원함.
- 주민이 원하는 주제와 장소에서 부담 없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② 「품앗이터」 : 시민이 이끄는 자율학습동아리 육성

- 시민이 스스로 학습 주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 · 지원함.
- 학습모임이 자율성을 갖추고 지역의 기관 · 단체와 활동 영역을 넓히도록 지원함.

③ 「샘솟이터」 : 기관의 전문성을 생활권 학습자원으로

- 기관의 전문성과 교육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 · 지원함.
- 전문 기관 · 단체가 지역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거점 역할을 확대하도록 지원함.

나. 「배움마당」 : 비어 있는 공간을 생활권 공유 학습공간으로

① 지역 유휴공간의 발굴 · 개방

-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무료 학습공간으로 활용함.
- 2026년에는 기존 공간을 정비하여 배움마당 8개소를 관리 · 지원할 계획임.

② 공간정보 · 등록 · 대관의 플랫폼화

- 평생교육 정보망에서 배움마당 위치 · 이용 정보와 공간 등록 · 대관 서비스를 제공함.
- 별도 학습공간이 없는 작은 모임도 가까운 생활권에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지원함.



3 적용·사례

가. 「돋움이터」: 다섯 사람이 모이면 시작되는 생활권 학습

- 5인 이상 주민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면 지식 배달 강좌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음.
- 행정이 강좌를 먼저 정하는 방식보다 주민의 관심과 수요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특징임.

나. 「품앗이터」: 배움을 스스로 이어가는 시민 학습동아리

- 주민이 학습 주제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평생학습 동아리로 성장함.
- 배움을 개인의 수강에서 주민 간 관계와 공동 활동으로 확장하는 생활권 학습모델임.

다. 「샘솟이터」: 기관의 전문성이 동네의 배움으로

- 지역기관의 전문성과 교육 대상별 수요를 결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관의 전문 역량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학습자원으로 활용함.

라. 「배움마당」: 비어 있던 공간의 새로운 쓰임

- 세미나실 · 다목적실 등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공간을 주민의 학습공간으로 공유함.
- 별도 시설을 짓기보다 기존 공간의 쓰임을 바꾸어 학습 기회를 넓히는 생활권 공유정책임.

자람터 유형별 생활권 적용 사례

구분	사례	주요 내용
돋움이터	"다섯 사람이 모이면 배움이 찾아온다"	5인 이상 학습자 모임을 대상으로 지원
품앗이터	"혼자 배운 지식을 이웃과 함께 키우다"	시민의 자율적 평생학습 동아리를 공모 · 연계 방식으로 발굴하고 지원
샘솟이터	"기관의 전문성이 생활권의 배움으로 솟아나다"	기관별 전문성과 교육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보조금을 지원



4 시사점·정리

가. 주민의 작은 관심을 정책 수요로 발견하는 생활권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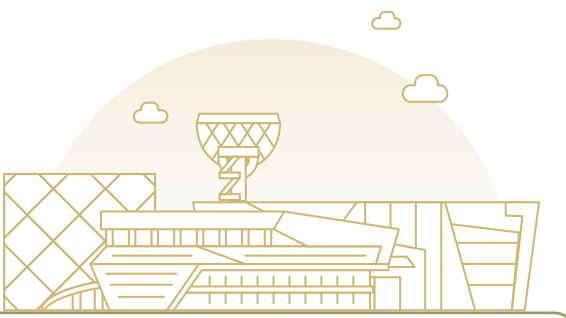
- 평생학습 수요는 행정이 기획한 강좌뿐 아니라 주민의 소소한 관심과 자발적인 모임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
- 생활권 행정은 이미 형성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작은 학습의 가능성을 찾아 성장시키는 역할이 중요함.

나. '첫 모임'이 지역의 학습 역량으로 성장하는 경로 구축

- 돋움이터 · 품앗이터 · 샘솟이터는 각각의 사업 실적보다 주민 모임 · 학습동아리 · 기관의 전문성이 지역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정책성과 역시 참여 인원뿐 아니라 학습의 지속성, 자율성, 지역 활동으로의 확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공간의 보유에서 공유와 활용 중심으로의 전환

- 배움마당의 가치는 공간의 수보다 실제 주민 이용과 지속적인 학습활동에서 확인되어야 함.
- 지역의 유휴공간을 공동의 학습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생활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식임.



생각해 보기

- 우리 생활권에서 주민 다섯 명의 관심이 지속적인 학습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은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
- 우리 부서나 기관의 공간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의 「배움마당」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어울림마루·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세종형 평생학습 3

학습목표

1. 학습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장벽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어울림마루」, 느린학습자 지원, 평생교육 이용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생활권 · 맞춤형 · 경제적 지원을 결합한 세종형 포용 평생학습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기획 실행할 수 있다.

1 정책 배경

가. '교육기회 제공'에서 '실제 참여 보장' 정책 확대 필요

① 학습 참여를 가로막는 복합적 장벽

- 장애 · 학습 속도 · 경제적 부담 · 디지털 환경 등으로 교육 참여와 지속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강좌 개설보다 이동 · 안전 · 보조 인력 · 교육비 · 정보 접근 등 실제 참여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함.

② 학습자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 장애 유형, 학습 수준과 속도,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지원 방식이 다름.
- 획일적 교육보다 당사자의 특성과 일상을 고려한 맞춤 지원이 요구됨.

나. 생활권 중심의 포용적 평생학습 기반 조성 필요

① 가까운 지역기관을 학습 거점으로 활용

- 신도심과 읍 · 면 지역의 접근성 차이를 고려해 생활권 내 전문 기관 · 단체를 학습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익숙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동 부담과 참여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함.

② 당사자 · 가족 · 지역기관의 협력 확대

- 학습자 발굴부터 교육 · 후속지원까지 평생교육기관, 교육청, 지역기관 · 단체 간 협력이 필요함.
- 느린학습자의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이해와 소통까지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학습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장벽

구분	사례
물리적 장벽	이동, 공간, 안전성, 보조 인력 등 실제 참여 여건
경제적 장벽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평생교육 이용권 등 지원 수단
정보 · 디지털 장벽	정보 접근, 디지털 기기 활용, 온라인 학습환경 적응
심리 · 사회적 장벽	학습 실패 경험, 낙인, 가족의 부담과 지역사회의 이해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2 추진 내용

가. 「어울림마루」 : 생활권 중심 장애인 평생학습 거점 운영 확대

① 생활권 기관 · 단체 기반 학습 거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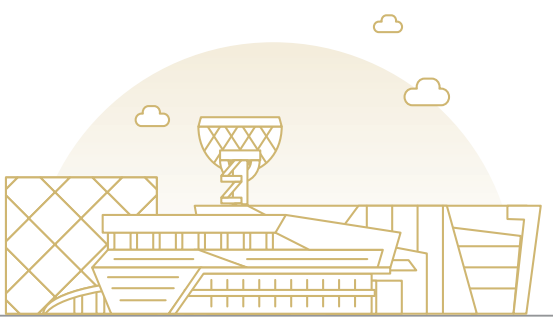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 단체를 생활권 학습 거점으로 활용해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함.
- 이동 · 안전 · 보조 인력 등 실제 참여 여건을 함께 고려함.

② 장애 유형 · 학습 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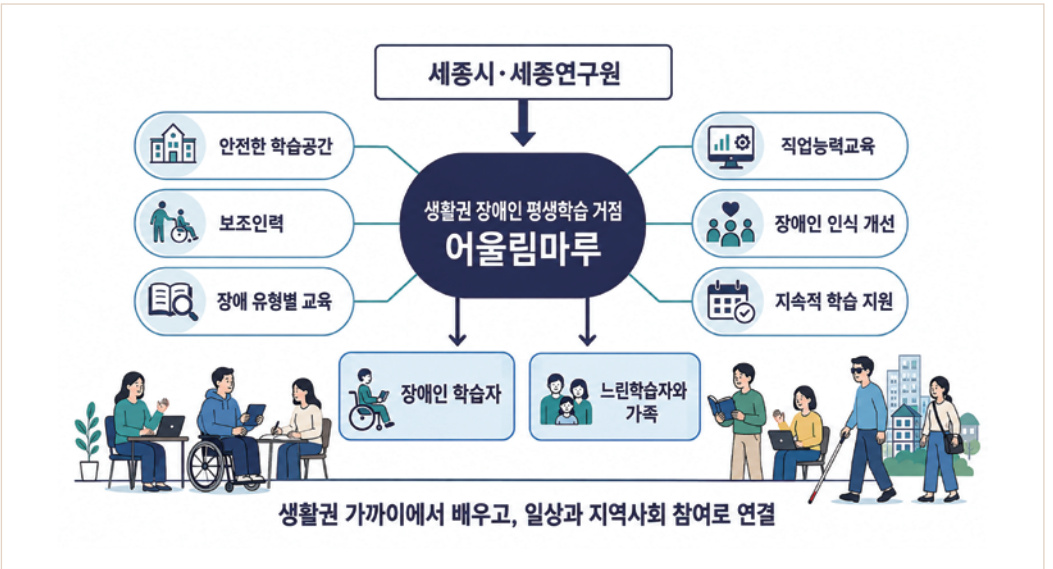
-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을 반영한 교육과 학습모임을 지원함.
- 직업능력 · 사회참여 등 학습 이후의 활동까지 연계함.

③ 지역사회 포용환경 조성

- 장애인 인식 개선과 기관 · 단체 협력을 통해 포용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함.
- 교육 참여를 개인 지원에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로 확장함.



어울림마루의 주요 운영 영역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나.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발굴·맞춤 학습·사회 적응 통합지원

① 학습 특성 파악과 맞춤 지원

-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느린학습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선별을 지원함.
- 학습자의 특성과 지원 요구를 파악해 적합한 교육으로 연결함.

② 인지·정서·진로·소통 역량 지원

- 인지, 정서·진로, 사회 소통·가족 소통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영역을 지원함.
- 당사자와 가족이 학습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 역량을 높이도록 함.

다. 「평생교육 이용권」: 경제적 학습 장벽 완화 정책

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학습 선택권 지원

- 경제적 여건으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시민에게 교육비를 지원함.
- 학습자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선택해 참여하도록 지원함.

② 지원 규모 확대

- 2025년 451명에서 2026년 762명으로 지원 규모 확대를 계획함.
- 1인당 지원 금액은 35만 원으로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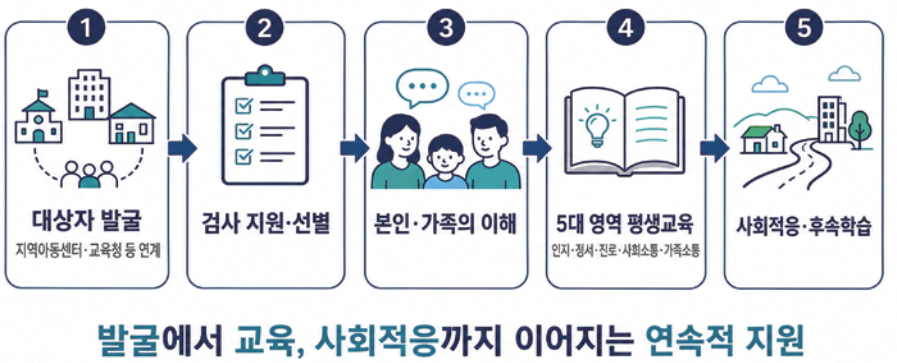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현장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svc/mtm/MtmMain.do

느린학습자 발굴-학습-사회적응 지원과정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3 적용·사례

가. 「어울림마루」 : 가까운 생활권에서 이어지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① 지역 전문 기관 · 단체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② 교육 내용뿐 아니라 이동 · 안전 · 보조 인력 · 지속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생활권형 지원체계임.

나. 「느린학습자 지원」 :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

① 학습자의 인지 · 정서 · 진로 · 소통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

② 가족의 이해와 의사소통 역량까지 함께 지원하여 일상 및 사회 적응으로 학습 효과를 확장하는 통합지원 체계임.

다. 「평생교육 이용권」 : 학습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 접근성 확대

① 교육비 부담을 낮춰 학습자가 필요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② 2026년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경제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 수단임.

2026년 학습 취약계층 평생교육 사업 목표와 자원

항목	2026년 계획
학습 취약계층 사업 지표	15개소 지정, 교육 참여 연인원 2,000명
생애전환 맞춤형 평생학습 전체 지표	네트워크 기관 · 단체 200개소, 사회적 약자 교육 참여 연인원 16,500명
사업예산	학습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기회 확대 127백만 원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세종시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규모 변화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 규모	451명	762명
세부 인원	성인 400명, 장애인 51명	성인 704명, 장애인 58명
지원 금액	35만 원(1인당)	35만 원(1인당)
지원 방향	일반 · 노인 · 디지털 · 장애인 등 지원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중 지원 자격 범위 확대 예정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4 시사점·정리

가. 대상별 강좌보다 '학습 장벽 제거' 중심의 정책 전환

① 포용적 평생학습의 핵심은 별도 프로그램의 수보다 시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음.

② 이동 · 안전 · 비용 · 정보 · 학습속도 등 서로 다른 장벽을 함께 살펴야 함.

나. 당사자 중심에서 가족 · 지역사회까지 확장하는 지원

① 학습자의 변화가 지속되려면 당사자 교육과 함께 가족의 이해, 지역기관의 전문성,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② 특히 느린학습자와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 · 복지 · 지역사회가 함께 접근할수록 지원 공백을 줄일 수 있음.

다. 참여 인원보다 '지속 학습과 일상의 변화'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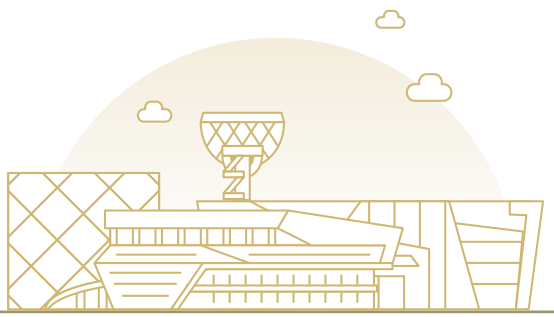
① 정책성과는 교육 참여 인원뿐 아니라 학습 지속, 후속 교육, 일상 적응, 사회적 소통과 지역 활동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함.

② 가까운 생활권에서 배우고, 필요한 지원을 받고, 이후 활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포용 평생학습의 중요한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세종형 포용적 평생학습의 주요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생활권 기반	가까운 지역 내 기관 · 단체를 평생학습 거점으로 활용
당사자 중심	장애 유형, 학습 속도, 안전, 보조 인력과 지속성 고려
가족 · 지역 연계	당사자 지원을 가족의 이해와 지역사회 인식 개선으로 확장
다기관 협력	지역아동센터 · 교육청 · 장애인 관련 기관 · 단체가 발굴과 지원에 참여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생각해 보기

- 우리 부서의 정책이나 시설에는 장애인·느린학습자가 실제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없는가?
- 학습 취약계층의 교육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학습과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협업이 필요할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과
명예학위제 : 세종형
시민대학 특화 운영체제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세종형 평생학습 4

학습목표

1.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정책적 의미와 운영체계를 이해한다.
2. 명예학위제와 온 · 오프라인 학습경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시민의 배움을 역량 · 참여 · 지식 공유로 확장하는 세종형 시민교육의 특징을 이해한다.

1 정책 배경

가. 세종형 시민 역량 강화 시민대학 특화모델 개발 필요

① 세계시민 역량 강화 세종형 시민대학 특화모델 개발 필요

- 세종의 행정 · 연구 ·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일반 교양을 넘어 정책 이해 · 공공 참여 · 소통 · 세계시민성을 강화하는 시민대학 특화모델이 필요함.
- 지역과 국가,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시민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세종형 시민 역량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② 명예학위제 기반 시민 학습 성장경로 체계화

- 학습 이력을 단계적으로 축적 · 인정하여 단기 수강을 지속적인 시민 학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전임학사 – 부제학 – 대제학'의 명예학위제를 통해 '학습 – 성취 – 심화 – 활동'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학습성과가 시민강사 · 지역 활동 · 정책 참여로 이어지도록 시민 역량의 사회적 활용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행정수도 · 지식도시 세종의 참여형 시민교육 기반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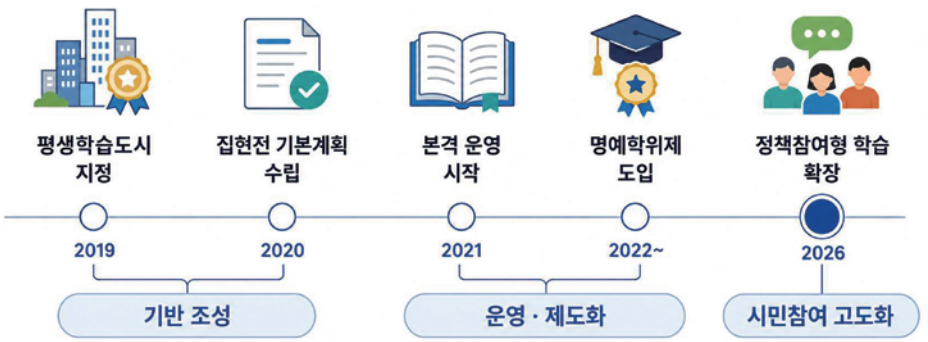
① 행정 · 연구 · 전문 지식의 시민 학습 자원화

- 세종에 집적된 행정 · 연구 · 교육 분야의 전문 지식을 시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자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정책 · 지역 현안 · 미래 이슈를 시민교육과 연계하여 단순 교양을 넘어 정책 이해 · 공공 판단 · 사회 참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대학 · 연구기관 · 전문 기관의 지식자원을 시민대학과 연계해 행정수도 · 지식도시 세종만의 특화 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② 학습에서 정책 참여 · 지식 공유로 이어지는 시민 역량 확장

- 시민이 교육의 수강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참여형 학습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민 학습이 정책 이해 · 지역 활동 · 시민강사 · 지식 공유 등으로 이어지도록 학습 이후의 참여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시민대학을 배우는 공간에서 도시의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 역량 플랫폼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단계별 발전과 시민참여 확장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202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p.29 및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누리집(검색일 : 2026. 8. 10.)을 바탕으로 재구성

2 추진 내용

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특화 운영

① 시민의 삶 · 정책 · 미래를 담는 특화 시민교육 운영

- 시민 · 인문 · 문화예술 · 실용 · AI 융합 등 생활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함.
- 정책 · 지역 · 미래 이슈까지 학습 영역을 넓혀 시민의 정책 이해 · 공공 참여 ·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지향함.
- 2026년 계절학기에는 총 20개 교육과정을 운영함.

② 권역 · 대학 · 기관 · 온라인을 잇는 통합 시민대학 체계

- 생활권 강좌와 대학 · 기관의 전문과정, 온라인학당을 집현전 체계 안에서 연계함.
- 세종연구원의 평생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기획 – 운영 – 학습 관리'를 통합 지원함.
- 시민이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 학습을 선택하고 다음 과정으로 이어갈 지속 학습 기반을 강화함.

나. 「세종형 시민대학 명예학위제」 — 단계별 시민학습 성장 및 참여 유인 체제 강화

① 전임학사–부제학–대제학 단계별 학습성과 인정

- 일정한 학습 실적을 축적한 시민에게 전임학사 100시간 – 부제학 200시간 – 대제학 300시간의 단계별 명예학위를 수여함.
- 시민이 자신의 학습 이력과 성취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학습에 도전하도록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제공함.

② '수강'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민 학습 경로

- 개별 강좌 이수를 누적이 가능한 성취로 전환하여 단기 수강을 지속 · 심화학습으로 발전시킴.
- 학습성과가 시민강사 · 지역 활동 · 정책 참여 등으로 이어지도록 '학습 – 성취 – 심화 – 활동'의 성장경로를 강화함.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단계와 기준

구분	대상	기본 이수시간	취득 현황
전임학사	시민대학 학습자	100시간(학점)	220명
부제학	전임학사 취득자	200시간(학점)	24명
대제학	부제학 취득자	300시간(학점)	11명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누리집 '명예학위제'.
https://sjlms.sri.re.kr/front/prtcpnt/staticpage/staticWepPage.do?swep=010204&type=k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수여식



※ 출처 : 브릿지경제. (2025. 3. 1.). 세종인재평생교육원, 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255명 배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301500012

다. 행정수도 · 지식도시 세종형 시민 역량 플랫폼 구축 운영

① 행정 · 연구 · 전문 지식의 시민 학습 플랫폼화

- 대학 · 연구기관 · 전문 기관의 전문 지식과 정책연구 성과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자원으로 개방 · 연계함.
- 정책 · 지역학 · AI · 미래 이슈 등 세종의 도시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통해 정책 이해 · 지역 이해 ·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함.
- 기관별로 축적된 지식자원을 집현전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 지식도시 세종만의 시민교육 콘텐츠로 확장함.

② 시민 지식 공유 · 참여 · 환류 체계 강화

- 시민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시민강사 · 지역 활동 · 지식 공유로 확장하도록 지원함.
- 학습성과가 지역문제 이해와 정책 참여로 이어지도록 시민의 후속 활동 경로를 강화함.
- 집현전을 배우는 시민 → 나누는 시민 →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세종형 시민 역량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감.

3 적용·사례

가. 「집현전 생활밀착 시민교육」 : 시민의 일상을 정책교육으로

① 생활문제 기반 시민 역량 강화

- 가정 · 경제 · 건강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교육 주제로 반영함.
- 생활 속 문제해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시민 역량을 강화함.

② 「신혼 · 예비부부 행복특강」 : 가족생활 역량 강화

- 심리 · 경제생활 · 소통 등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함.
- 결혼과 가족생활의 실제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지원함.

③ 「경제금융아카데미」 : 생활경제 역량 강화

- 시민의 실질적인 경제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 금융교육을 운영함.
- NH농협은행의 전문성을 시민교육 자원으로 활용함.

④ 「저속노화아카데미」 : 건강한 생애 관리 역량 강화

- 식습관 · 생활 관리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함.
- 시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역량을 높임.

세종형 맞춤 특화 시민교육

사업명	주요 내용
신혼 · 예비부부 행복특강	심리, 경제생활, 소통법 등 행복한 부부관계 형성
경제금융아카데미	실질적인 경제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 금융교육
저속노화아카데미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관리를 통한 건강 유지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나. 「온라인학당 · 세종지역학」 : 세종의 지식을 시민에게

① 온 · 오프라인 학습 기회 확장

- 온라인학당을 통해 시간 · 장소의 제약을 낮추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함.
- 권역 · 대학 · 기관 연계 과정과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의 학습 선택권을 넓힘.

② 정책 · 연구 성과의 시민 콘텐츠화

- 세종연구원의 정책 · 연구 성과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함.
- 전문 지식을 정책 이해 · 지역 현안 학습으로 확장함.

③ 「세종지역학」: 도시 정체성 학습 강화

- 세종의 역사 · 인물 등 지역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개발함.
- 시민의 지역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는 세종 특화 시민교육으로 활용함.

③ 시민강사 · 인기 강좌 온라인 확산

- 대제학 등 명예학위 취득자의 지식과 경험을 시민강사 콘텐츠로 활용함.
- 인기 강좌를 온라인에 게시해 시민의 학습성과를 다시 새로운 학습 기회로 이어지도록 함.

2026년 스마트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 방향

콘텐츠 유형	제작 방향
정책연구	세종연구원의 정책 · 연구 성과를 시민 친화적 콘텐츠로 개발
지역 연계	세종의 역사 · 인물 등 세종지역학 콘텐츠 개발
시민 · 집현전 인기 강좌	대제학 시민강사와 인기 강좌의 온라인 콘텐츠화

※ 출처 : 세종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다. 「집현전 통합 누리집」: 배움의 시작부터 명예학위까지

① 강좌 정보 · 수강 · 온라인 학습 통합

- 권역 · 대학 · 기관 연계 강좌와 온라인학당을 한곳에서 안내함.
- 시민이 강좌 검색 – 수강 신청 – 온라인 학습을 하나의 누리집에서 이용하도록 지원함.

② 명예학점 · 명예학위 연계

- 온라인학당의 명예학점 과정을 집현전의 학습성과 인정 체계와 연계함.
- 오프라인 수강과 온라인 학습, 명예학점 · 명예학위가 이어지는 지속 학습 경로를 지원함.

집현전 수강생 모집 관련 발간물



※ 출처 :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공식 누리집. https://sjlms.sri.re.kr/front/prtcpnt/board/commonBoardDataList.do?bcd=102

4 시사점·정리

가. 생활문제 해결형 시민교육의 특화

① 가정 · 경제 · 건강 등 시민의 실제 생활문제를 교육 주제로 반영하여 교양 중심 교육을 생활역량 · 문제해결 중심 시민교육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② 참여 인원보다 시민의 실천과 생활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성과관리가 중요함.

나. 세종 지식자산의 시민 학습 자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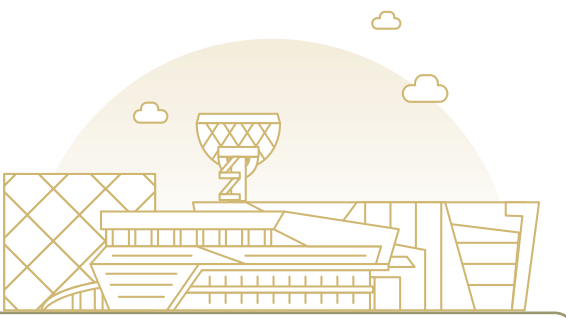
① 정책 · 연구 · 세종지역학 · AI 등 세종의 지식자원을 시민 친화적 콘텐츠로 전환하여 행정수도 · 지식도시형 시민교육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온라인학당과 시민강사를 활용해 지역의 지식과 시민의 학습성과를 다시 시민에게 확산할 필요가 있음.

다. 강좌 참여에서 지속학습 경로로의 전환

① 강좌 검색 – 수강 – 온라인 학습 – 명예학점 – 명예학위를 하나의 학습경로로 연계하여 시민의 지속 학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② 명예학위 이후에도 시민 강사 · 지역 활동 · 정책 참여로 이어지는 학습성과의 사회적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생각해 보기

- 명예학위 취득자의 학습성과를 시민 강사·지역 활동·정책 참여로 이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세종의 행정·연구·전문 지식을 시민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
- 강좌·온라인 학습·명예학점·명예학위를 하나의 학습경로로 잇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

참고문헌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6).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이용권. 2026년 8월 19일 검색, https://www.lllcard.kr/reg/sejong/main/mainView.do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2) 평생학습 진흥방안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3.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지속가능원. (2026, 4월 28일). [모집안내] 2026년도 세종 씨앗터 멘토 모집 공고. https://nanochem.korea.ac.kr/bbs/share/541/269073/artclView.do?layout=unknown
4.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4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수탁통계자료 CSM 2024-17). 한국교육개발원.
5.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5). 2024 평생교육백서(제24호, RM 2024-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세종연구원. (2026a). 2026년 주요업무계획 [업무계획].
7. 세종연구원. (2026b). [수강신청] 2026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계절학기 수강생 모집. https://sjlms.sri.re.kr/front/prtcpnt/board/commonBoardDataView.do?bbs_sn=1&bbs_wr_sn=2580&menu_id=0201
8. 세종연구원. (n.d.-a).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2026년 8월 19일 검색, https://sjlms.sri.re.kr/front/main.do
9. 세종연구원. (n.d.-b).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제. 2026년 8월 19일 검색, https://sjlms.sri.re.kr/front/prtcpnt/staticpage/staticWepPage.do?swep=010204&type=k
10. 세종연구원. (n.d.-c).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발간물. 2026년 8월 19일 검색, https://sjlms.sri.re.kr/front/prtcpnt/board/commonBoardDataList.do?bcd=102
11. 세종특별자치시. (2016).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7–2021) 수립 연구[연구보고서].
12. 세종특별자치시. (202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종합발전계획].
13. 세종특별자치시. (2026).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누리집. 2026년 8월 19일 검색, https://www.sejong.go.kr
14.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2924호. (2025). https://ns.service.go.kr/amll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원. (20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원. https://life.sje.go.kr/edu/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9).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https://council.sejong.go.kr/cms/mntsViewer.do?mntsId=4917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6). 홍보관 : 의정활동사진. 2026년 8월 19일 검색, https://council.sejong.go.kr/svc/mtm/MtmMain.do
18. 윤소. (2025, 3월 1일). 세종인재평생교육원, 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255명 배출.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301500012

Memo

Memo

Memo

집필진

내용	집필자	소속기관
1. 행정수도 세종		
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행정도시 기능 1-2 국가 중추 기능 분산 및 행정기관 이전	지남석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 문화수도 세종		
2-1 한글문화 정책과 도시브랜드 2-2 한글문화 거점 공간 및 콘텐츠	양유정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장
3. 스마트도시 세종		
3-1 스마트 환경 서비스	송양호	세종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
3-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안용준	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
4. 정원 · 생태도시 세종		
4-1 중앙 녹지공간과 녹지체계 4-2 금강 수변 생태 활용	서자유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5. 평생학습도시 세종		
5-1 세종 평생학습도시 정책 추진 체제 및 혁신 인프라 5-2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세종형 평생학습 정책	최운실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명예교수

세종시 바로알기 정책편

발행일 2026년 10월

발행처 (재)세종연구원

발행인 권영걸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대평동)
전화 044-865-9670

팩 스 044-866-8552

누리집 www.sri.re.kr

인쇄처 디자인시티(044-866-6522)

본 교재는 세종연구원 공직자교육센터의 교육용 자료로 비매품입니다.
본 교재 내용은 세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집필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본 교재의 무단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